

#1

바닥에서 쇳가루 냄새가 올라왔다.

한시윤은 무릎을 꿇고 있었다. 폐창고 콘크리트 위에 번진 먼지가 장갑 끝에 달라붙었다. 손전등 불빛이 3미터 앞 시신의 복부를 비추고 있었고, 그 둘레로 누런 액체가 마른 자국이 바닥 금 사이로 스며들어 있었다.

서류봉투는 이미 손에 들려 있었다. 핏방울이 모서리에 세 점. 봉인 스티커가 반쯤 찢긴 상태. 안에 들어 있는 건 자신을 덮어씌운 감정 조작 자료의 정리본이었다. 이것만 넘기면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선이 시신 위에서 멈추지 않았다.

손전등 각도를 낮췄다. 시신 목 아래 피부 접힌 곳. 거기서 뭔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의 형태가 문제였다. 번데기 껍질 두 개. 루시리아 속. 3령 유충에서 번데기로 전환된 형태. 이걸 사후 36시간 이상이 지나야 나오는 단계다.

바닥으로 시선을 옮겼다.

먼지 위에 박힌 딱정벌레 사체 하나. 더듬이가 부러져 있었다. 실피대과. 건조 사체에 붙는 종이다. 그런데 시신은 건조 단계가 아니었다. 부패 초기. 실피대과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한시윤의 손이 멈췄다.

부패 초기에 오는 파리 유충과 건조기에 오는 딱정벌레가 같은 반경 50센티미터 안에 있었다. 자연 발생이면 시간 축이 맞지 않는다. 두 종이 동시에 존재하려면 시신이 이 장소에서만 부패한 게 아니거나, 곤충이 시신과 함께 이동했거나.

"같이 나올 수 없는——"

말이 끝나지 않았다.

뒤통수에 둔탁한 충격이 왔다. 시야가 한쪽으로 기울었다. 손전등이 바닥에 부딪혀 광원이 천장 쪽으로 돌아갔다. 검은 장갑이 한시윤의 목 뒤를 눌렀다. 무릎이 접혔다. 콘크리트에 턱이 찍혔다.

씻가루가 입술 틈으로 밀려들었다.

검은 장갑 남자의 체중이 등 위로 올라왔다. 한시윤은 고개를 틀었다. 시야 끝에 서류봉투가 있었다. 거기 너머로 운전기사가 서 있었다. 팔짱을 낀 채, 깨진 형광등 조각을 발끝으로 밟고 있었다. 구두 밑에서 유리가 갈리는 소리가 났다.

목에 압박이 왔다.

한시윤의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다. 먼지 위의 딱정벌레 사체가 보였다. 부러진 더듬이의 각도. 건조기 종이 부패 초기 현장에 있는 이유. 이동. 누군가 시신을 옮겼거나 곤충을 옮겼다. 포장이 같다. 세팅된 현장이다.

'이건 자살이 아니었어.'

숨이 끊기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번데기 껍질의 색이었다. 갈색이 아니라 적갈색. 온도가 높은 곳에서 발육된 개체. 이 창고의 야간 기온에서는 나올 수 없는 색.

시야가 닫혔다.

---

천장이 달랐다.

한시윤은 눈을 떴다. 형광등이 아니라 LED 조명이었다. 노란 빛이 아니라 흰 빛.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매트리스. 씻가루 냄새가 아니라 빨래 세제 냄새.

숨을 들이쉬었다. 기도가 열려 있었다. 목을 눌렀다. 통증이 없었다.

손을 들어 올렸다. 장갑이 없었다. 손톱 밑에 먼지가 없었다. 폐창고 바닥에서 긁어 올린 섯가루도, 번데기 껍질에 닿았던 촉감도 없었다.

몸을 일으켰다.

탁상 달력이 침대 옆에 있었다. 3월. 한시윤은 달력의 연도를 봤다. 두 번 봤다. 세 번째는 보지 않았다.

3년 전이었다.

휴대전화를 집었다. 화면 상단의 날짜가 달력과 같았다. 잠금화면 아래 알림이 두 개. 하나는 통신비 고지서. 하나는 법곤충학 학회 월례 세미나 안내.

한시윤은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두 손을 펼쳤다. 떨리지 않았다. 떨려야 하는데 떨리지 않았다. 목이 졸렸다. 숨이 끊겼다. 바닥에서 섯가루 맛을 느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호흡하고 있다.

'묻어둬.'

침대에서 내려왔다. 맨발이 장판에 닿았다. 차가웠다. 감각이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옷장 옆에 필드 키트가 있었다. 가죽 케이스가 아니라 천 파우치. 3년 전이면 아직 가죽 케이스를 사기 전이다. 한시윤은 파우치를 열었다. 핀셋 두 개. 채집 바이알 네 개. 온도 로거 하나. 10배 루페 하나. 얇은 니트릴 장갑 한 켤레.

장갑을 꺼내 양손에 끼지 않았다. 왼쪽 주머니에 넣었다.

파우치 지퍼를 닫고 어깨에 걸었다.

메모지가 책상 위에 있었다. 비어 있었다. 펜은 없었다. 한시윤은 메모지를 보지 않았다. 기록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기록할 것이 너무 많아서 아직 순서를 정하지 못했다.

현관문 앞에 섰다.

'이번에는 증거가 남아야 한다. 내가 죽기 전에.'

문을 열고 나갔다.

---

차 안에서 전화가 울렸다.

한시윤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엔진은 걸려 있었고, 기어는 주차에 놓여 있었다.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한 게 아니었다. 정할 필요가 없었다. 전화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화면에 이름이 떴다. 윤태건.

"한 박사."

한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 박사, 거기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피스텔 변사 건 하나 떴는데, 감식 쪽에서 곤충 전문가 호출 요청 넣었습니다. 올 수 있습니까?"

한시윤의 손이 핸들 위에서 멈췄다.

오피스텔. 변사.

이 사건이었다. 3년 전, 자살로 종결된 사건. 자신이 참여하지 못했던 사건. 감식 요청이 있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다른 감정관이 투입됐고, 그 감정관이 자살 소견을 냈다. 그 후로 아무도 다시 열지 않았다.

"밀실입니까?"

전화 너머에서 윤태건이 잠깐 멈췄다. "어떻게 아십니까."

"감식관이 자살 쪽으로 보고 있습니까?"

"한 박사, 지금 현장 사진도 안 본 상태에서——"

"가겠습니다. 주소 보내주십시오."

전화를 끊었다.

기어를 드라이브로 옮겼다. 커피 캔이 컵홀더에서 흔들렸다. 마시지 않았다.

'이 사건이 시작이었다. 이걸 놓쳤기 때문에 3년이 들어졌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

오피스텔 704호 앞에 통제선 테이프가 쳐져 있었다.

복도 형광등이 한 개 나가 있었다. 나머지 한 개가 떨어지면서 불균일한 백색광을 깔았다. 테이프 앞에 순경 한 명이 서 있었고, 테이프 너머로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실내에서 감식관의 장갑 소리가 들렸다. 라텍스가 피부에 밀착될 때 나는 짧은 탄성음.

한시윤은 테이프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원룸이었다. 8평 남짓. 현관에서 거실까지 네 걸음. 거실 끝에 창문. 창문은 닫혀 있었다. 잠금 손잡이가 수평이었다. 잠긴 상태.

시신이 거실 중앙에 있었다.

목땀 끈이 천장 배관을 감고 있었다. 의자 하나가 시신 왼쪽으로 쓰러져 있었다. 발끝과 바닥 사이 거리 약 12센티미터. 시반은 하지에 집중돼 있었다. 목 위의 삭혼은 단일 줄 형태.

윤태건이 현관 쪽에서 들어왔다.

"보시다시피 전형적입니다. 문은 안쪽에서 잠겼고, 창문도 마찬가지로 잠겼습니다. 유서는 없지만 감식관도 자살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시윤은 시신을 보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를 먼저 읽었다. 환기가 없었다. 실내 온도가 높았다. 밀폐 시간이 길다. 그런데 부패 진행 속도가 온도에 비해 느렸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느렸다.

시선이 왼쪽 벽 상단으로 갔다.

환기구가 있었다. 15센티미터 사각형. 철망이 나사 네 개로 고정돼 있었다. 철망 표면에 먼지가 균일하게 덮여 있었다. 최근에 열린 적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철망 안쪽, 그 너머 어둠 속에서 뭔가 걸려 있는 것이 보였다.

감식관이 시신 옆에서 고개를 들었다. "한 박사, 소견서 방향은 거의 정리됐습니다. 추가 확인 사항이 있으시면——"

한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쓰러진 의자를 집어 환기구 아래로 옮겼다. 의자 위에 올라섰다. 얼굴이 철망까지 20센티미터 거리로 좁혀졌다.

왼쪽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 양손에 끼었다. 니트릴이 손가락 마디를 조였다. 파우치에서 핀셋을 빼냈다. 루페를 오른쪽 눈에 댔다.

철망 안쪽.

그물코 사이로 밀어 넣은 핀셋 끝이 무언가에 닿았다. 단단했다. 가벼웠다. 핀셋을 비틀었다. 저항이 있었다. 철망 안쪽 모서리에 끼어 있었다. 비틀림 각도를 3도 줄이고 당겼다.

빠져나왔다.

번데기 껍질이었다.

길이 약 8밀리미터. 적갈색이 아니라 암갈색. 루시리아 세리카타. 성충으로 완전히 우화한 뒤 남은 빈 껍질. 끝부분이 깨끗하게 벌어져 있었다. 성충이 빠져나간 흔적.

'바깥이 아니라 안쪽이다.'

파리가 환기구 바깥에서 철망을 통과해 실내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이 껍질은 철망 안쪽에 박혀 있었다. 방 안에서 유충이 자라고,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되어 환기구를 통해 빠져나가려다 껍질이 안쪽 모서리에 걸린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루시리아 세리카타의 번데기 기간. 실내 온도 고려하면 최소 7일. 성충 우화까지 합하면 최소 9일. 시신의 부패 정도와 시반 상태로 추정된 사망 시각은 3~4일 전. 번데기가 여기 있으려면 파리 알이 사망 시점보다 최소 5일 전에 들어와야 한다.

사망 전에 파리가 이 방에 있었다.

사망 전에 창문이나 환기구가 열려 있었다.

지금 창문은 잠겨 있고, 환기구 철망은 나사로 고정돼 있다.

누군가 담았다.

한시윤은 의자에서 내려왔다. 핀셋 끝에 걸린 번데기 껍질을 들고 윤태건 앞으로 걸어갔다. 윤태건이 한 발 물러섰다.

"웬니까 그게."

한시윤이 윤태건의 손바닥을 펼쳤다. 저항이 없었다. 핀셋을 기울여 껍질을 떨어뜨렸다. 암갈색 빈 껍질이 형사의 손금 위에 놓였다. 길이 8밀리미터. 무게는 느끼지 못할 정도.

"번데기 껍질입니다."

"그래서요."

"창문은 닫혀 있는데 이걸 안쪽에 박혀 있습니다."

윤태건이 손바닥 위의 껍질을 내려다봤다. 감식관이 장갑 낀 손을 멈추고 돌아봤다. 순경이 현관 쪽에서 고개를 들었다.

한시윤이 말했다.

"파리는 시간을 숨기지 않습니다."

윤태건의 입이 벌어졌다. 닫히지 않았다.

"증거부터 보시죠."

한시윤은 다시 환기구 쪽으로 돌아섰다. 핀셋을 들어 올렸다. 철망 안쪽에 껍질이 더 있었다.

=====

#2

윤태건의 손바닥 위에서 번데기 껍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거실 천장 형광등이 깜빡였다. 그 떨림이 껍질 표면의 얇은 균열선을 한 번 비추고 지나갔다.

"한 박사."

윤태건이 손바닥을 내려다본 채 말했다.

"이게 왜 문제입니까."

한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무릎을 꿇은 자세 그대로 환기구 철망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장갑 낀 검지가 철망 가장자리에 붙은 먼지층을 훑었다. 먼지가 손가락 끝에서 미세하게 말렸다. 그 아래

껍질 하나가 더 보였다. 완전히 빈 껍질. 성충이 빠져나간 뒤의 등 쪽 열개선이 세로로 갈라져 있었다.

한시윤이 일어섰다.

"형사님 손에 있는 건 빈 번데기 껍질입니다. 성충이 우화한 뒤 남은 거요."

"그래서요."

"시신 표면에는 아직 초기 산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알에서 부화한 지 얼마 안 된 단계."

윤태건의 눈이 시신 쪽으로 갔다가 돌아왔다.

한시윤이 환기구를 가리켰다. "여기 안쪽 껍질은 한 단계 더 진행돼 있습니다. 번데기까지 갔다가 우화가 끝났어요. 시신 표면보다 훨씬 앞선 단계입니다."

뒤에서 감식관이 끼어들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이 좁아져 있었다.

"한 박사님, 벌레 얘기는 알겠는데요. 이건 목땀 자살 현장입니다. 끈 매듭 형태, 의자 위치, 문 잠금 상태까지 전부 정리돼 있어요. 벌레 몇 마리가 좀 다르다고 그걸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한시윤이 감식관을 봤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같은 방에서 같은 시간축으로 죽었다면 순서가 뒤집힐 수 없습니다."

감식관이 입을 열려다 멈췄다. 한시윤은 이미 시신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

시신은 내려진 상태였다. 거실 중앙에서 약간 비껴난 위치, 바닥에 놓인 흰 시트 위. 목 부위의 삭흔이 형광등 아래서 선명했다. 한시윤은 시트 가장자리에 무릎을 대고 앉았다. 확대경을 꺼냈다. 주머니에서 나온 렌즈에 먼지가 한 점 묻어 있었다. 소매로 닦았다. 렌즈를 눈 앞에 세웠다.

얼굴부터 봤다.

눈 가장자리. 비강 입구. 입술 경계선.

파리 알 덩어리가 셋 보였다. 크림색에 가까운 타원형 무더기. 부화 전이었다. 알 표면에 건조 흔적이 없었다. 산란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목 부위로 넘어갔다. 삭흔 가장자리 피부가 접힌 틈. 거기에도 산란 흔적이 있었다. 역시 초기 단계. 1령 유충이 몇 마리 꿈틀거리고 있었으나 체장이 짧았다. 부화한 지 하루 안쪽.

한시윤이 확대경을 내렸다.

뒤를 돌아봤다.

"환기구 안쪽 껍질 다시 보여주세요."

윤태건이 손바닥을 내밀었다. 한시윤이 그 위의 껍질을 확대경으로 들여다봤다. 등 쪽 열개선. 세로 균열의 가장자리가 바깥으로 말려 있었다. 우화가 완전히 끝난 형태. 내부에 남은 조직편이 없었다.

'시신 표면에서는 알이 갓 부화한 단계. 환기구 안에서는 성충이 빠져나간 단계.'

같은 공간이면 같은 파리 개체군이다. 같은 온도, 같은 습도, 같은 시간을 공유한다. 시신에 먼저 산란이 일어나고, 그 뒤에 환기구 같은 이차 서식처로 퍼지는 게 정상 순서다. 시신이 선행하고 주변이 후행한다.

지금은 뒤집혀 있었다.

한시윤이 감식관 쪽을 봤다. 감식관은 팔짱을 낀 채 현장 카메라를 어깨에 걸고 서 있었다.

"시신 표면의 곤충 발달이 환기구 내부보다 뒤쳐져 있습니다."

감식관이 고개를 저었다. "환기구 안쪽이 온도가 좀 높을 수 있잖습니까. 배관열 때문에."

"배관열을 감안해도 단계 차이가 맞지 않습니다. 온도 차로 설명하려면 환기구 내부가 최소 8도 이상 높아야 해요. 이 건물 배관 구조로는 불가능합니다."

감식관의 입이 닫혔다.

한시윤이 시신 옆에 놓인 체온 측정 메모를 집어 들었다. 직장 온도 기록. 현장 도착 시각 옆에 적힌 숫자들을 훑었다. 실내 온도 17도. 시신 직장 온도 28.4도.

"마살 공식 기준으로, 실내 17도에서 직장 온도 28.4도면 사후 경과 시간이 대략 8시간에서 10시간 사이입니다."

펜을 꺼냈다. 메모지 여백에 시간을 적었다.

"환기구 안쪽 번데기 껍질의 우화 완료 단계는 이 온도 기준으로 최소 10일입니다."

숫자 두 개를 나란히 적었다. 사망 추정 8~10시간. 환기구 내 곤충 발달 10일.

"시신이 이 방에 놓인 시간과 벌레가 이 방에서 자란 시간이 다릅니다. 벌레가 훨씬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윤태건이 번데기 껍질을 증거 봉투에 넣었다. 봉투 입구를 접는 손끝이 평소보다 느렸다.

---

한시윤이 창문 앞으로 갔다.

잠금 걸쇠가 안쪽에서 채워져 있었다. 걸쇠 표면에 먼지가 균일하게 쌓여 있었다. 최근에 조작한 흔적이 없다는 뜻이다. 한시윤은 걸쇠를 만지지 않았다. 눈으로만 훑었다. 걸쇠 아래 창틀 홈에 페인트 벗겨진 자국이 한 군데 있었다. 오래된 흔적이었다.

환기구로 시선을 옮겼다.

철망이 안쪽에서 나사 네 개로 고정돼 있었다. 나사 머리에 녹이 슬어 있었다. 최소 수개월 전에 조여진 상태.

"창문 닫힌 상태에서 환기구도 막혀 있으면, 파리가 들어올 경로가 없습니다."

순경이 문 옆에서 고개를 들었다. "현관 출입은요?"

"도어락 기록 있습니까."

순경이 주머니에서 기록표를 꺼냈다. 접힌 A4 한 장. 한시윤이 받아 펼쳤다.

도어락 해제 기록. 날짜와 시간이 세 줄 찍혀 있었다.

첫 번째. 신고 당일 오후 11시 17분. 경비실 마스터키 해제.

두 번째. 그 이틀 전 오전 8시 42분. 비밀번호 해제.

세 번째. 그 사흘 전 오후 9시 03분. 비밀번호 해제.

한시윤이 두 번째 기록에 펜 끝을 댔다.

"이 시각이 마지막 정상 출입입니다."

윤태건이 옆에서 기록표를 들여다봤다. "이틀 전 오전 8시 42분. 그때 피해자가 나간 거겠죠."

"나갔거나, 누군가 들어온 겁니다."

윤태건이 한시윤을 봤다.

한시윤은 메모지를 꺼냈다. 아까 적어 둔 시간축 옆에 도어락 기록 시각을 나란히 배치했다.

환기구 곤충 발달 역산 기준점. 시신 표면 곤충 발달 역산 기준점. 도어락 마지막 해제 시각. 경비실 마스터키 해제 시각.

네 개의 시간이 메모지 위에 줄을 섰다.

한시윤의 펜이 멈췄다.

도어락 마지막 해제 시각과 환기구 곤충 역산 시간 사이에 11분의 빈 구간이 있었다. 도어락이 열리기 11분 전에 이미 환기구 안쪽의 파리 활동이 시작됐어야 계산이 맞았다.

한시윤은 그 11분 옆에 물음표 하나를 적었다.

설명하지 않았다.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웁니까 그게." 윤태건이 물었다.

"아직 모릅니다."

'11분. 도어락이 열리기 전에 벌레가 먼저 반응했다. 이 방 안에 시신이 아닌 다른 유기물이 먼저 놓여 있었을 가능성. 아니면 다른 진입 경로.'

한시윤은 대답 대신 환기구 나사 머리 위의 녹 패턴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

거실 중앙으로 돌아왔다.

감식관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다. 보드에는 현장 초동 수사 타임라인이 매직으로 적혀 있었다. 신고 시각, 도착 시각, 현장 보존 시작 시각.

한시윤이 보드 옆에 섰다.

주머니에서 번데기 껍질 사진과 시신 표면 사진을 꺼냈다. 감식반이 찍은 컬러 출력물이었다. 현장 도착 직후 받아 둔 것이다.

두 장을 나란히 보드에 붙였다.

왼쪽. 환기구 내부 번데기 껍질. 열개선이 벌어진 빈 껍질. 우화 완료.

오른쪽. 시신 비강 부위 확대. 크림색 알 무더기. 부화 초기.

"순서가 뒤집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한시윤이 왼쪽 사진 아래에 숫자를 적었다. '최소 10일.' 오른쪽 사진 아래에도 적었다. '24시간 이내.'

감식관이 팔짱을 풀었다. "한 박사님. 자살이라는 결론은 매듭 형태와 의자 위치, 유서까지 종합한 겁니다. 벌레 시간표 하나로—"

"벌레 시간표가 아닙니다."

한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 방의 시간과 이 시신의 시간이 따로 놓고 있다는 겁니다."

감식관의 시선이 두 사진 사이를 오갔다. 입술이 한 번 벌어졌다가 닫혔다.

순경이 문 옆에서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윤태건은 증거 봉투를 쥔 채 두 사진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손가락이 봉투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다. 그의 턱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뭔가를 씹는 것 같은 동작이었으나 입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한시윤이 보드를 두드렸다.

"방은 사후에 다시 잠겼습니다."

"뭐라고요?" 윤태건이 시선을 들었다.

"도어락 기록에서 마지막 비밀번호 해제는 이틀 전입니다. 시신의 사후 경과 시간은 8시간에서 10시간. 이틀 전에 문이 열리고, 그 뒤로 아무도 비밀번호로 출입한 기록이 없는데, 시신은 10시간 전에 죽었습니다."

감식관이 끼어들었다. "안에서 스스로 잠그고 죽은 거 아닙니까. 자살이면 당연히—"

"그러면 환기구 안 벌레가 10일 전부터 자라고 있었던 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감식관의 입이 닫혔다.

한시윤은 보드에서 한 발 물러섰다.

감식관이 현장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카메라 스트랩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며 짧은 소리를 냈다. 아무도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다. 거실 형광등이 다시 한 번 깜빡였다. 시신 위에 드리운 그림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환기구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아주 낮게 울렸다. 그 소리도 금방 죽었다.

---

한시윤이 침실 쪽으로 걸었다.

문턱 앞에서 멈췄다.

윤태건이 뒤따라왔다. 증거 봉투가 그의 손안에서 바스락거렸다.

"한 박사."

한시윤이 돌아봤다.

"확실합니까."

한시윤은 땀을 들이지 않았다.

"이 사람은 이 방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윤태건의 표정이 굳었다. 입이 반쯤 벌어진 채로 닫히지 않았다. 증거 봉투를 쥐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

#3

윤태건이 현관 안쪽 통제선을 다시 걸었다.

"감식반 추가 인원 한 명 더 들어옵니다. 아무도 거실 안쪽 건드리지 마세요."

순경이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빠졌다. 현관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하나 더 올라왔다. 굽 낮은 구두. 보폭이 일정했다. 감식 가방을 왼손에 들고 있었다.

서민아가 통제선 앞에서 멈췄다.

라텍스 장갑을 꺼내 오른손부터 끼웠다. 손목 부분을 한 번 당겨 밀착시키고, 현장 안쪽을 훑었다. 시선이 거실 중앙 매듭 흔적에서 시작해 환기구, 바닥 감식 표지, 한시윤 순서로 이동했다.

"곤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박사."

목소리에 적대가 없었다. 감정도 없었다. 국과수 법의학자가 현장에서 쓰는 표준 어조 그대로였다.

한시윤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놓인 증거 봉투 세 개를 정리하고 있었다. 장갑 낀 손가락이 봉투 위 라벨을 한 번씩 눌러 접착 상태를 확인했다. 그리고 나서야 몸을 일으켰다.

반박이 올 자리에 물건이 왔다.

한시윤이 증거 테이블 위에 사진 두 장을 펼쳤다. 피해자 하의 바짓단 클로즈업. 구두 바닥 클로즈업. 현장 초기 감식 때 촬영된 원본이었다. 사진 모서리에 감식관 서명과 시각이 찍혀 있었다.

"바짓단부터 보시죠."

서민아가 테이블 앞으로 왔다. 허리를 숙이지 않고 사진을 집어 눈높이까지 올렸다. 형광등 아래에서 표면 입자 분포를 확인하는 동작이었다. 왼손 검지가 바짓단 접힌 부분 안쪽을 가리켰다.

"카펫 섬유가 아니네요."

"아닙니다."

서민아가 사진을 내려놓고 구두 바닥 사진을 들었다. 굽 뒤축과 앞코 사이 홈에 낀 입자가 확대돼 있었다. 실내 카펫의 합성 섬유 잔여물이라면 색이 균일해야 했다. 사진 속 입자는 색이 고르지 않았다. 거무스름한 것과 회갈색이 섞여 있었다.

"이건 토사입니다."

한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태건이 뒤에서 팔짱을 풀었다. 입을 열려다 닫았다. 두 사람이 사진을 사이에 두고 주고받는 대화의 속도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다.

---

한시윤이 채취 브러시를 꺼냈다.

브러시 끝이 가늘었다. 모 한 올 한 올이 분리된 정밀 채취용. 손잡이를 엄지와 검지로만 잡고, 바짓단 접힌 안쪽을 쓸었다. 한 번. 입자가 브러시 끝에 붙었다. 투명 채취판 위에 떨어냈다. 미세한 알갱이가 판 표면에 흩어졌다.

구두 바닥은 더 까다로웠다. 흠이 깊었다. 브러시 끝을 흠 결 방향으로 맞춰 넣고, 한 줄씩 긁어냈다. 세 번째 흠에서 입자와 함께 얇은 막 조각이 떨어져 나왔다. 갈색이 아니었다. 반투명. 수분을 머금은 적이 있는 질감.

한시윤의 손이 멈췄다.

'날파리.'

아니, 정확하게는 날파리의 번식 흔적이었다. 성충 사체도 아니고, 번데기도 아니었다. 알 덩어리가 부화한 뒤 남는 얇은 막. 구두 바닥 흠에 눌러 붙어 있었다는 건 피해자가 이 물질 위를 밟고 걸었다는 뜻이다.

"서 박사."

서민아가 옆에서 채취판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한시윤이 흠에서 꺼낸 막 조각을 핀셋으로 집어 별도 슬라이드에 올렸다. 서민아가 슬라이드를 받아 형광등 바로 아래로 가져갔다.

"사이코다과 날파리 흔적이요?"

"습한 배수 환경에서 산란합니다. 실내 카펫 위에서는 나올 수 없는 종입니다."

서민아가 슬라이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실내 먼지가 아닙니다."

한시윤이 채취판 위 토사와 현장 감식반이 이미 확보해 둔 실내 카펫 먼지 대조 표본을 나란히 놓았다. 색이 달랐다. 입자 크기가 달랐다. 카펫 표본은 합성 섬유가 섞여 밝은 회색에 가까웠고, 바짓단과 구두에서 나온 토사는 어둡고 입자가 굵었다. 유기물이 섞인 흙.

"이 토사 구성이면 배수구 주변이 가장 가깝습니다. 건물 내부에 지하 배수 구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민아가 슬라이드를 내려놓았다.

"법의학 시간측과 곤충 시간측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문장이었다. 그래서 무거웠다. 국과수 법의학자가 곤충 감정 결과를 기각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한시윤이 채취 도구를 정리했다. 브러시를 케이스에 넣고, 슬라이드를 봉투에 밀봉하고, 라벨에 시각과 채취 위치를 적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만 거실에 남았다.

---

지하 주차장은 달랐다.

공기부터 달랐다. 오피스텔 복도의 건조한 냉방 공기가 계단실 중간에서 끊겼다. 그 아래부터는 습기가 올라왔다. 콘크리트 벽면에 수막이 맺혀 있었다. 형광등 두 개 중 하나가 나가 있었고, 남은 하나가 주황빛으로 깜빡거렸다.

윤태건이 앞에 섰다.

손전등을 켜다. 광원이 바닥을 훑었다. 주차 구획선 페인트가 반쯤 벗겨져 있었다. 배수구는 주차장 동쪽 끝, 기둥 두 개 사이에 있었다. 쇠 격자 위에 낙엽 찌꺼기와 검은 잔여물이 엉켜 있었다.

순경이 통제선을 치고 있었다. 노란 테이프가 기둥에서 기둥으로 걸렸다.

한시윤이 계단을 내려왔다. 마지막 세 계단에서 발을 멈추고 바닥을 봤다. 계단 끝과 주차장 바닥의 경계. 그 경계선에 물기가 번져 있었다. 배수구에서 올라온 물이 아니었다. 결론. 지하 공기와 지상 공기의 온도차가 만든 수분.

'이 습도면 된다.'

배수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쇠 격자 홈 사이로 손전등을 비췄다. 격자 아래 5센티미터 지점. 유기물 잔해가 쌓여 있었다.

한시윤은 장갑 낀 손가락으로 격자 모서리를 잡고 들어올렸다. 쇠가 콘크리트에 긁히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렸다.

배수구 안쪽 벽면.

얇은 막이 붙어 있었다. 사이코다과 날파리의 산란 흔적. 습한 유기물 표면에 알을 낳고, 부화 후 남은 막. 구두 바닥에서 나온 것과 같은 질감.

한시윤이 채취 도구를 꺼냈다. 핀셋으로 막 조각을 떼어 슬라이드에 올렸다. 배수구 내벽의 토사도 브러시로 긁어 채취판에 담았다. 두 번째 채취판. 위층에서 가져온 피해자 바짓단 토사 채취판과 나란히 놓았다.

색이 같았다.

입자 크기가 같았다.

윤태건이 뒤에서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다. 광원이 두 채취판을 동시에 비췄다.

"같은 흙이야?"

"같은 흙입니다."

한시윤이 일어섰다. 무릎에 묻은 콘크리트 분진을 털지 않았다. 시선이 배수구에서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이동했다. 배수구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직선 거리 약 열다섯 걸음. 그 사이에 기둥 세 개.

"피해자는 here를 걸었습니다. 구두 바닥에 이 흙이 들어갔고, 바짓단이 이 토사에 스쳤습니다."

윤태건이 손전등을 엘리베이터 쪽으로 돌렸다.

"근데 시신은 위에 있었잖아."

한시윤이 고개를 돌렸다.

"죽은 자는 스스로 위층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차장에 반향이 돌았다. 형광등이 한 번 깜빡거렸다. 순경이 통제선 너머에서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

서민아가 계단을 내려왔다.

한시윤이 간이 도면을 기둥 옆 바닥에 펼쳤다. 오피스텔 평면도. 지하 1층 주차장, 엘리베이터, 계단실, 그리고 위층 사망 현장 호수가 표기돼 있었다. 옆에 엘리베이터 동선표를 놓았다. 관리소에서 뽑아온 승강기 운행 기록이었다.

한시윤의 손가락이 도면 위를 짚었다. 배수구. 엘리베이터. 사망 현장 호수. 세 지점을 잇는 선.

"피해자는 이 구역에서 먼저 사망했습니다."

서민아가 도면을 들여다봤다. 시선이 배수구 위치에서 머물렀다.

"시신 운반 후 목매 연출이요?"

"가능성을 묻는 겁니까."

"법의학적으로 배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서민아의 목소리는 평평했다. 사후 경직 발현 전에 시신을 옮겨 자세를 잡았다면, 경직은 그 자세 그대로 고정된다. 사망 후 일정 시간 이내에 운반이 이루어졌다면 목매 자세로의 위장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서민아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윤태건이 도면 앞에 쪼그려 앉았다.

"이동을 동반한 위장 타살."

훈жат말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한시윤을 봤다.

한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태건이 일어섰다. 무전기를 집어 들었다.

"본부. 사건 분류 변경합니다. 자살 아닙니다. 위장 타살 가능성 확보. 수사 범위 오피스텔 전체 및 지하 주차장으로 확대합니다."

무전기 너머에서 잡음이 한 번 튀었다. 응답이 왔다. 윤태건이 무전기를 허리에 꽂았다.

'자살에서 타살로. 타살에서 운반까지. 한 겹 더 벗겨졌다.'

한시윤은 도면을 접지 않았다. 시선이 엘리베이터 동선표 위에 머물러 있었다.

---

관리소 문이 열려 있었다.

안쪽에서 모니터 세 대가 켜져 있었다. 출입기록 시스템, CCTV 관제 화면, 승강기 운행 로그. 관리소장이 의자에 앉아 있었고, 경비원이 그 뒤에 서 있었다.

윤태건이 문을 밀고 들어갔다.

"사망 추정 시각 전후 여섯 시간. 출입기록 전부 뽑아주세요."

관리소장이 마우스를 잡았다. 클릭 세 번. 화면이 바뀌었다. 날짜별 출입 로그가 시간순으로 정렬됐다. 윤태건이 의자 뒤에 서서 화면을 읽었다.

스크롤이 내려갔다.

22시 14분. 23시 02분. 23시 51분. 00시 18분.

그 다음이 01시 47분이었다.

윤태건의 손이 관리소장 어깨 위로 뻗었다. 검지가 화면을 짚었다.

"00시 18분에서 01시 47분. 한 시간 반이 비어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고개를 돌렸다. "그건 기계 오류인 것 같은데요. 가끔 로그가 안 찍힐 때가—"

"기계 오류면 로그가 비는 게 아니라 에러 코드가 찍힙니다."

윤태건이 말을 잘랐다. 부드럽지 않았다.

관리소장의 손이 마우스에서 떨어졌다. 경비원이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한시윤이 관리소 문 앞에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문틀에 어깨를 기대고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었다. 비어 있는 시간대. 00시 18분에서 01시 47분.

피해자 구두 바닥의 흙. 지하 주차장 배수구의 흙. 사이코다과 날파리의 산란 막. 곤충 시간축과 법의학 시간축의 교차 검증. 그 모든 것이 가리키는 시간대가 저 빈 구간 안에 있었다.

한시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모니터 화면만 봤다.

비어 있는 한 시간 반. 누군가 지웠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윤태건이 관리소장을 다시 봤다.

"승강기 로그도 같은 시간대 뽑아주세요."

관리소장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0.5초. 그리고 움직였다.

화면이 바뀌었다. 승강기 운행 기록. 같은 시간대.

기록이 없었다.

=====

## #4

윤태건이 관리소 문을 열었다.

안쪽에서 형광등이 깜빡였다. 한쪽 벽면을 채운 모니터 여섯 대 중 네 대가 꺼져 있었다. 나머지 두 대에는 주차장 실시간 화면이 떠 있었지만 타임스탬프가 보이지 않았다.

관리소장이 의자에서 일어섰다. 오십대 후반. 목 뒤로 땀이 번져 있었다. 야간인데도 난방이 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로그 삭제 건 확인하러 왔습니다."

윤태건이 말했다. 관리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 앞으로 걸어갔다.

"그게, 시스템 자체가 오래됐어요. 하드가 한 번 날아간 적이 있어서 그때 복구하면서 일부가 유실된 겁니다. 삭제가 아니라 오류예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로그 화면이 떴다. 3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 사흘치 출입 기록이 비어 있었다. 빈 칸이 아니었다. 행 자체가 없었다. 오류로 빠졌다면 데이터 구멍이 불규칙해야 한다. 이건 깔끔하게 잘려 있었다.

윤태건이 화면을 들여다봤다.

한시윤은 관리소장의 뒤쪽, 벽에 걸린 정비 기록표 앞에 서 있었다.

남필구가 관리소 문 앞에서 팔짱을 꼈다. 서민아가 그 옆에 섰다. 남필구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문틀에 어깨를 기대고 있었다.

"윤 형사, 로그 건은 디지털 포렌식 쪽에 넘기면 될 일이야. 여기서 시간 쓸 필요 없어."

남필구가 말했다.

"부장님, 원본 정비 기록이 먼저입니다."

윤태건이 돌아보지 않고 답했다.

"정비 기록이 왜 필요한데."

"환기 설비 점검 일지입니다. 점검 동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누가 언제 들어갔는지 나와 있어야 합니다."

관리소장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잠깐 멈췄다.

한시윤이 정비 기록표의 비닐 커버를 들어 올렸다. 클립보드에 A4 용지 열두 장이 꽂혀 있었다. 월별 점검 일지. 3월분은 중간에 끼워져 있었다. 잉크 색이 다른 줄이 하나 있었다. 3월 16일. 환기 설비 외부 점검구 — 점검 완료. 서명란은 비어 있었다.

서명 없는 점검 완료.

한시윤이 기록표를 제자리에 놓았다. 관리소장 쪽을 보지 않았다.

"환기구 외부 점검 통로, 지금 진입 가능합니다."

"그건... 야간에는 좀 위험하고요."

"열쇠 있습니까."

"있긴 한데."

"열어주십시오."

관리소장이 윤태건을 봤다. 윤태건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필구가 한 발 앞으로 나왔다.

"한 박사, 곤충 감정 보고서 먼저 정리하는 게 순서 아닌가. 지하 주차장 습도 데이터 아직 정리 안 됐다고 들었는데."

"보고서는 현장 확인 후에 씁니다."

"곤충은 참고사항이야. 참고사항으로 수사 동선을 바꾸는 건—"

"부장님."

한시윤이 처음으로 남필구를 정면으로 봤다.

"환기구 점검 통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남필구의 입이 닫혔다. 노골적으로 화가 난 표정은 아니었다. 다만 턱이 미세하게 굳었다. 자기 말이 잘린 것보다, 잘린 뒤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은 것이 더 거슬리는 얼굴이었다.

---

환기구 외부 점검 통로는 건물 뒤편 기계실 옆 철문 너머에 있었다.

관리소장이 열쇠를 세 번 돌려야 했다. 잠금이 뻑뻑했다. 녹이 슬었다. 하지만 열쇠 구멍 안쪽에는 녹이 없었다. 최근에 누군가 열쇠를 넣은 적이 있다는 뜻이었다.

한시윤이 그 차이를 봤다. 말하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안쪽은 폭 80센티미터, 높이 160센티미터의 콘크리트 통로였다. 천장에 배관이 지나가고, 왼쪽 벽을 따라 환기 덕트가 이어져 있었다. 바닥에 먼지가 고르게 쌓여 있었다.

고르지 않았다.

한시윤이 손전등을 켰다. 빛이 바닥을 훑었다. 통로 입구에서 7미터 지점까지는 먼지가 균일했다. 7미터 이후부터 먼지층에 선형 압흔이 있었다. 무릎이나 발이 눌린 자국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질질 끈 흔적. 폭이 일정하지 않았다. 30센티미터에서 15센티미터로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졌다.

'끌었다. 무거운 것을.'

한시윤이 무릎을 꿇었다. 손전등 각도를 낮췄다. 빛이 먼지 표면을 비스듬히 굽었다.

굵힌 자국이 선명해졌다.

환기 덕트 점검구 덮개 아래쪽. 철망이 덕트 본체에 나사 네 개로 고정돼 있었다. 나사 머리에 십자 홈이 파여 있었다. 네 개 중 세 개는 먼지가 메워져 있었다. 한 개만 홈이 깨끗했다. 최근에 드라이버가 들어간 흔적.

한시윤이 철망 가장자리에 손전등을 가져갔다.

틈이 있었다. 덕트 본체와 철망 사이, 2밀리미터 정도의 간극. 그 간극 안쪽에 무언가 끼어 있었다.

섬유.

짧았다. 5밀리미터 미만. 검은색. 직조 패턴이 일정했다. 면이 아니었다. 합성 소재. 장갑에서 나올 법한 직물.

한시윤이 코를 가져갔다. 철망 틈 안쪽에서 냄새가 났다. 석유 계열. 윤활제. 경첩이나 나사를 돌릴 때 쓰는 범용 스프레이 타입의 잔향이었다.

"감식관."

뒤에 서 있던 감식관이 다가왔다.

"이 섬유 채취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사 머리 네 개 전부 접사로 찍어주십시오."

감식관이 핀셋을 꺼냈다. 한시윤은 일어서지 않았다.

손전등을 철망 너머 덕트 내부로 비췄다. 빛이 덕트 안쪽 벽면을 더듬었다. 먼지. 배관 위의 응결 자국. 그리고—

곤충 사체.

작았다. 3밀리미터 내외. 건조 상태. 분포가 이상했다. 덕트 안쪽이 아니라, 점검구 쪽으로 몰려 있었다.

기류 방향이 안에서 밖으로 흐르는 구조라면 곤충 사체는 반대편 끝에 쌓여야 한다. 지금 이 사체들은 공기가 들어오는 쪽, 즉 외부 점검구 방향에 집중돼 있었다.

안에서 나온 게 아니다. 밖에서 들어온 것이다.

"윤 형사."

한시윤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왜요."

"범인이 방 안에서 빠져나간 게 아닙니다."

윤태건이 한 발 다가왔다. 통로 천장에 머리가 닿을 뻔했다. 허리를 숙이며 한시윤 옆으로 왔다.

"무슨 뜻입니까."

"밀실이 아니라 정비 동선입니다."

한시윤이 손전등으로 점검구 덮개, 나사, 먼지 위 끌린 자국을 차례로 가리켰다.

"범인은 방 안에 갇힌 적이 없습니다. 피해자를 방 안에 두고, 이 통로를 통해 나왔습니다. 점검구를 열고, 환기 덕트 철망을 빼고, 방 안쪽 잠금장치에 접근한 뒤, 다시 철망을 끼우고, 점검구를 닫았습니다. 밖에서 잠금을 완성한 겁니다."

윤태건이 바닥의 끌린 자국을 봤다. 철망 틈의 섬유를 봤다. 나사 머리의 먼지 차이를 봤다.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드라이버, 윤활제—"

"정비 기록표에 3월 16일 환기 설비 외부 점검이 기재돼 있습니다. 서명은 없습니다."

"그날 아무도 안 왔다?"

"누군가는 왔습니다. 점검하러 온 게 아니었을 뿐입니다."

'동선을 알고 있었다. 구조를 외우고 있었다. 건물 관계자이거나, 관계자에게 정보를 받은 사람이다.'

윤태건이 일어섰다. 통로 천장에 등이 닿았다. 먼지가 떨어졌다.

"관리소장한테 정비 외주 업체 목록 뽑으라고 해야겠습니다."

"그전에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한시윤이 통로 안쪽을 가리켰다. 손전등 빛이 15미터 앞에서 꺾이는 모서리를 비쳤다.

---

서민아가 통로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시윤이 꺾인 모서리를 돌아 나왔을 때, 서민아가 간이 도면을 펼쳐 들고 있었다. 건물 설비 배치도. 관리소에서 복사해 온 것이었다.

"한 박사, 환기 덕트 구조가 피해자 호실 화장실 천장까지 연결됩니다."

"확인했습니다."

"사후 연출 시간축 계산했어요."

서민아가 도면 위에 볼펜으로 표시한 시간선을 가리켰다.

"시신의 사후 경직 진행도와 체온 하강 곡선으로 봤을 때 사망 추정 시각은 3월 16일 오전 1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출입 로그가 삭제된 구간이 14일부터 17일이고, 정비 기록표의 무서명 점검 완료가 16일이면—"

"충돌하지 않습니다."

"충돌하지 않아요."

두 사람의 시선이 도면 위에서 만났다. 한시윤이 먼저 시선을 돌렸다.

"범인은 16일 새벽에 피해자를 살해한 뒤, 방 안에서 잠금을 설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비 통로로 나와서 환기구 철망을 원래대로 복원하고 점검구를 닫았습니다. 방 문은 내부 잠금 상태로 남고, 창문도 걸쇠가 내려간 상태로 유지됩니다."

"밀실이 완성되는 거죠."

"밀실이 아닙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처음부터 설계돼 있었습니다."

윤태건이 통로에서 나왔다. 머리에 먼지가 묻어 있었다. 셔츠 소매에 녹물 자국이 번져 있었다.

"한 박사, 통로 끝에 점검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로 나오니까."

"1층 기계실 뒤편 주차장 쪽. 외부 출입이 됩니다."

한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출구까지 확보돼 있었다.'

서민아가 도면을 접으며 말했다.

"곤충 사체 분포 방향과 이 구조를 같이 보고서에 올리면, 사망 시각과 범행 동선이 한 축으로 묶입니다."

"곤충은 참고사항이 아니라 시간축입니다."

한시윤이 말했다. 서민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반론은 없었다.

남필구가 통로 입구에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구두 앞코가 콘크리트 턱 위에 걸쳐 있었다. 안쪽의 먼지가 구두에 묻는 것을 피하고 있었다.

"한 박사, 점검구 추가 개방은 감식팀장 결재를 받아야 해."

"부장님, 형사가 현장 보전 명령 내리면 결재 없이 가능합니다."

윤태건이 말했다. 남필구의 시선이 윤태건에게 갔다.

"윤 형사, 절차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야. 다만—"

"절차 안 무시합니다. 제가 현장 보전 명령 내렸습니다. 지금 유효합니다."

남필구의 턱이 다시 굳었다. 입술을 한 번 깨물었다. 돌아서지는 않았다.

관리소장이 남필구 뒤에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옆에 경비원이 한 명 서 있었다. 경비원은 손에 든 무전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점검구 봉인 해제합니다."

윤태건이 통로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한시윤이 뒤를 따랐다.

---

점검구 덮개는 사각형 철판이었다.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 모서리 네 곳에 육각 볼트가 박혀 있었다. 볼트 머리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 네 개 중 두 개만 먼지가 온전했다. 나머지 두 개는 먼지 위에 공구 자국이 찍혀 있었다. 렌치나 소켓이 닿은 원형 압흔.

한시윤이 손전등을 볼트 머리에 밀착시켰다. 압흔의 지름이 일정했다. 같은 공구를 두 번 사용한 흔적.

'두 개만 풀었다. 네 개를 다 풀 필요가 없었다. 두 개만 풀면 철판이 한쪽으로 젖혀진다.'

"감식관, 봉인 테이프 앞뒤로 치고 볼트 두 개만 빼주십시오. 먼지 없는 쪽."

감식관이 봉인 테이프를 양쪽에 부착했다. 드라이버 대신 소켓 렌치를 꺼냈다. 볼트가 반 바퀴 돌아 '깹' 하고 소리가 났다. 녹이 아니었다. 나사산에 무언가 말라붙어 있었다. 윤활제가 굳은 잔여물.

'여기에도 뿌렸다.'

볼트 두 개가 빠졌다. 철판이 자중으로 아래쪽으로 처졌다. 한시윤이 장갑 낀 손으로 철판 모서리를 잡고 천천히 젖혔다.

안쪽은 어두웠다. 손전등 빛이 들어갔다.

덕트 내부. 폭이 좁았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는 아니었다. 하지만 팔은 들어갔다. 어깨까지 밀어 넣으면 안쪽 60센티미터 지점까지 손이 닿았다.

한시윤이 빛을 천천히 돌렸다.

덕트 바닥면. 먼지 위에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다. 다섯 개가 아니었다. 세 개. 엄지, 검지, 중지만 닿은 형태. 나머지 두 손가락은 무언가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닥에 닿지 않은 것이다.

빛이 더 안쪽으로 갔다.

무언가 걸려 있었다.

덕트 내벽의 이음새. 금속판과 금속판이 겹치는 부분. 리벳 머리가 0.5밀리미터 정도 튀어나와 있었다. 그 돌출부에 무언가가 걸려 있었다.

한시윤의 손이 멈췄다.

끈이었다.

얇았다. 폭 3밀리미터 이하. 길이는 4센티미터 남짓. 색은 확인이 어려웠다. 먼지와 어둠 때문이었다. 한시윤이 손전등 각도를 바꿨다. 빛이 끈 표면을 비스듬히 훑었다.

갈색이었다. 원래 색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스며들어 변색된 것이었다.

한시윤이 숨을 한 번 멈췄다. 코를 가져가지 않았다. 가져갈 필요가 없었다. 눈으로 봤다. 끈의 섬유 사이에 미세하게 뭉친 잔류물이 있었다. 건조 상태. 갈변 완료. 시간이 지난 혈흔의 전형적인 형태였다.

"핀셋 주십시오."

감식관이 핀셋을 내밀었다. 한시윤이 받아 들었다. 오른팔을 덕트 안으로 밀어 넣었다. 어깨가 철판 모서리에 닿았다. 핀셋 끝이 끈 조각에 닿았다. 리벳 머리에 걸린 부분을 비틀지 않고 그대로 들어 올렸다. 끈이 빠져나왔다.

증거 봉투를 펼쳤다. 끈 조각이 투명 봉투 안에 놓였다.

빛 아래서 보니 더 선명했다. 갈변된 얼룩이 끈 중앙부에 집중돼 있었다. 양쪽 끝은 깨끗했다. 중앙부만 젖었다가 마른 패턴.

'뭍었다. 피가 나는 부위를. 그리고 끌었다.'

"윤 형사."

"됩니다."

윤태건이 봉투를 들여다봤다. 눈이 좁아졌다. 입술이 한 번 닫혔다 열렸다.

"혈흔입니까."

"감식 결과를 봐야 확정됩니다. 하지만 변색 패턴과 위치로 보면 피해자의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봉인합니다."

윤태건이 봉투 위에 서명했다. 날짜를 적었다. 감식관이 이중 봉인 테이프를 붙였다.

한시윤은 덕트 안을 한 번 더 비쳤다. 끈이 걸려 있던 리벳 머리 주변으로 미세한 스크래치가 나 있었다. 끈을 당길 때 생긴 마찰 자국. 한 방향이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통로 뒤편에서 발소리가 났다. 남필구였다.

"뭐가 나왔어?"

윤태건이 봉인된 증거 봉투를 들었다. 남필구의 시선이 봉투 안의 갈색 끈 조각에 멈췄다.

입이 열렸다.

닫혔다.

다시 열리지 않았다.

=====

#5

한시윤은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자석 네 개를 뽑았다. 사진 네 장을 순서 없이 내렸다.

브리핑실 형광등이 한쪽만 깜빡였다. 아무도 고치지 않았다. 이 시간에 시설관리과는 퇴근한 지 두 시간째였다.

윤태건이 뒷줄 의자에 앉아 커피를 들었다. 식은 지 오래된 자판기 커피. 한 모금 마시다 말고 컵을 내려놓았다. 한시윤이 보드 위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검은 마커.

보드 상단에 가로선 하나를 그었다. 왼쪽 끝에 '0h', 오른쪽 끝에 '96h'. 선 위에 눈금을 찍었다. 12시간 단위. 여덟 개의 점이 일정한 간격으로 박혔다.

사진 네 장을 다시 집었다.

첫 번째. 환기구 그물망에 붙어 있던 번데기 껍질 확대 사진. 자석으로 시간축 72h 지점에 붙였다.

두 번째. 시신 표면에서 채취한 3령 유충의 체장 측정 사진. 0.9센티미터. 축 위 48h 지점.

세 번째. 지하 주차장 배수구 토사. 적갈색 퇴적물 위에 올려진 파리 성충 사체 세 마리. 시간축의 맨 왼쪽, 0h 지점에 붙였다.

네 번째.

한시윤의 손이 잠깐 멈췄다. 점검구 내부에서 수거한 혈흔 묻은 끈 조각. 매듭 방향이 오른손잡이 기준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오른손잡이었다.

시간축 24h 지점. 배수구 토사와 시신 표면 사이.

자석이 보드에 붙는 소리가 났다. 딸깍.

브리핑실에 형사 네 명, 감식관 두 명. 남필구는 맨 앞줄 오른쪽 끝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다. 서민아는 남필구에게서 두 자리 떨어진 곳에서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다.

"배수구 토사부터 봅니다."

한시윤이 세 번째 사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토사 내 파리 성충 세 마리. 좋은 루시리아 세리카타. 사체 건조도와 날개 마모 정도로 보면 사망 후 최소 84시간 이상 경과한 개체들입니다. 이 파리들은 시신에 산란한 뒤 배수구 쪽으로 이동해서 죽었습니다."

마커 캡을 열었다. 0h 지점 아래에 '최초 노출'이라고 썼다.

"시신이 처음 외부 환경에 노출된 시점은 여기입니다. 경찰 추정 사망 시각보다 이틀 빠릅니다."

남필구의 팔짱이 풀렸다.

"한 박사."

한시윤은 돌아보지 않았다. 두 번째 사진으로 손이 옮겨갔다.

"시신 표면 3령 유충. 체장 0.9센티미터. 실내 온도 17도 기준 적산온도를 역산하면 산란 시점은 사망 후 약 48시간입니다. 이건 시신이 밀폐 공간으로 옮겨진 뒤에 유입된 2차 산란입니다."

'1차 산란 장소와 2차 산란 장소가 다르다. 시신이 움직였다.'

48h 지점 아래에 '이동 후 2차 노출'이라고 썼다.

"환기구 번데기 껍질."

72h 지점. 마커가 사진 옆에 멈췄다.

"번데기 완성까지 실내 17도에서 최소 6일. 역산하면 1차 산란과 시점이 겹칩니다. 환기구에 들어간 파리는 배수구 파리와 같은 세대입니다."

형사 한 명이 의자를 당기는 소리가 났다. 앞으로 몸을 숙였다.

"그리고 이겁니다."

네 번째 사진. 끈 조각.

"점검구 내벽에서 발견된 끈 조각입니다. 혈흔이 묻어 있고, 매듭 방향은 왼손잡이 기준입니다. 피해자는 오른손잡이였습니다."

24h 지점에 '잠금 조작'이라고 적었다. 마커 캡을 닫았다.

보드 위에 가로선 하나. 사진 네 장. 네 개의 시점이 한 줄 위에 나란히 놓였다.

0h — 최초 노출, 1차 산란, 배수구 토사.  
24h — 잠금 조작, 끈 조각, 점검구 경로.  
48h — 이동 후 2차 노출, 시신 표면 유충.  
72h — 환기구 번데기, 밀봉 환경 증거.

한시윤이 돌아섰다.

"네 개의 물증은 각각 다른 위치에서 수거됐습니다. 하지만 곤충 발달 단계를 기준으로 시간축에 올리면 하나의 경로가 됩니다."

남필구가 일어섰다.

"한 박사, 곤충 감정은 참고사항입니다. 법의학 소견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을 보조 자료로—"

"배치되지 않습니다."

서민아의 목소리였다.

노트북을 닫지 않은 채 고개를 들었다. 남필구 쪽을 보지 않았다. 보드를 봤다.

"부장님, 제가 재검한 시신 체내 잔류 가스 농도와 조직 자가분해 단계를 48시간 기준으로 다시 맞춰 봤습니다. 한 박사 시간축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남필구의 입이 열렸다 닫혔다.

"오히려 기존 1차 소견서의 추정 사망 시각이 이 축과 맞지 않습니다."

서민아는 그 말만 하고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내렸다. 감정이 없었다. 사실만 놓았다.

윤태건이 뒷줄에서 손을 들었다. 들지 않아도 됐지만 습관이었다.

"운반 경로 추가합니다."

일어서면서 주머니에서 접은 종이를 꺼냈다. 지하 주차장 점검구에서 건물 내부까지의 동선 도면.

"점검구에서 사망자 거주 층까지 엘리베이터를 거치지 않고 접근 가능한 경로가 하나 있습니다. 비상계단 옆 배관 통로. CCTV 사각입니다. 끈 조각이 발견된 점검구 위치가 이 경로 진입 지점과 일치합니다."

종이를 보드 옆에 붙였다. 테이프가 없어서 자석으로 눌렀다.

"잠금장치는 외부에서 조작 가능합니다. 배관 통로 쪽 점검 패널을 열면 도어 래치에 접근됩니다. 시설관리 업체 확인 완료했습니다."

남필구가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자세로 보드를 봤다.

사진 네 장이 시간축 위에 정렬돼 있었다. 서민아의 법의학 데이터가 그 축을 지지했다. 윤태건의 동선이 물리적 경로를 닫았다.

한시윤은 포인터를 들지 않았다. 마커를 내려놓았다.

"현장 조작은 가능해도 곤충 시간축 전체는 맞출 수 없습니다."

브리핑실이 조용했다. 형광등 한쪽이 다시 깜빡였다. 그 사이의 정적이 길었다.

"파리는 시간을 숨기지 않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있으면 산란하고, 정해진 속도로 자랍니다. 누가 문을 잠그든, 누가 창문을 닫든, 유충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크기가 됩니다."

'이게 이 직업의 전부다. 벌레는 거짓말을 못 한다.'

감식관 한 명이 침을 삼켰다. 목 움직임이 보였다.

한시윤이 보드 옆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이 사건은 목매 자살이 아닙니다. 별도 장소에서 사망한 피해자를 현 위치로 이동시킨 뒤 자살로 위장한 타살입니다. 공식 사망 시각은 경찰 추정 기준에서 48시간 앞으로 수정돼야 합니다."

남필구가 입을 열었다. "한 박사, 1차 소견서에 서명한 건 우리 쪽이야. 수정하려면 절차가—"

"절차는 부장님 소관입니다."

한시윤은 그 말만 했다.

남필구를 밀어붙이지 않았다. 설득하지도 않았다. 물증이 보드 위에 있었고, 시간축이 한 줄로 정렬돼 있었다. 그걸로 됐다.

윤태건이 사건 분류 문서를 꺼냈다. 표지에 '변사 — 자살 추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빨간 펜으로 '자살 추정'을 긋고 그 위에 '위장 타살'이라고 썼다.

형사가 수정된 사망 시각표를 돌렸다. 기존 시각에 사선이 그어지고 새 시각이 적혔다.

서민아가 노트북에서 수정 소견서 초안을 열었다. 프린터로 보냈다. 브리핑실 구석의 복합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남필구는 앉았다. 팔짱을 다시 꼈다. 입은 닫혀 있었다.

막지 못했다. 막을 근거가 없었다.

증거 목록이 정리됐다. 번데기 껍질, 배수구 토사, 점검구 사체, 끈 조각. 네 개의 물증 옆에 채취 일시, 위치, 곤충 증명, 발달 단계가 기록됐다.

한시윤은 장갑을 벗었다.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보드를 한 번 더 봤다.

사진 네 장. 시간축 하나. 사건 하나.

닫혔다.

브리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형광등이 여기도 한쪽이 나가 있었다. 이 건물 전체가 교체 시기를 넘긴 것 같았다.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윤태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커피를 뽑고 있는 게 아니었다. 자판기에 기대서 양손에 종이를 들고 있었다. 사진이었다.

한시윤이 걸음을 멈췄다.

"끝나고 드리려 했는데."

윤태건이 사진을 내밀었다. 두 장.

첫 번째 사진. 시신 전신. 야외. 풀밭 위에 엎어진 상태. 발목 부근에 흙이 묻어 있었다. 흙 색이 이상했다. 짙은 회청색. 점토질이 아니었다.

'염분이 섞인 갯벌 퇴적토.'

두 번째 사진. 시신 목 부위 확대. 피부 표면에 곤충이 붙어 있었다. 작았다. 2밀리미터 남짓한 검은 점 여러 개.

한시윤이 사진을 가까이 가져갔다. 복도 형광등 아래로 기울였다.

등 쪽 무늬. 더듬이 마디 수. 흉부 형태.

"이 시신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내륙이요. 경기 북부 야산."

한시윤의 시선이 발목 흙으로 돌아갔다. 다시 곤충 사진으로 옮겨갔다.

발목의 흙은 해안 기원이었다. 갯벌이나 간석지에서만 나오는 퇴적 구조.

시신에 붙은 곤충은 내륙 산림성 종이였다. 산 위에서만 사는 녀석들.

흙과 벌레가 만날 수 없는 조합이었다.

"시신이 옮겨졌거나, 흙이 옮겨졌거나."

한시윤이 사진을 내렸다.

윤태건이 한 발 다가섰다. "어느 쪽입니까."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사진 속 곤충의 크기를 다시 봤다. 2밀리미터. 성충이 아니었다. 초기 발달 단계. 시신에 도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발목 흙의 퇴적 깊이는요."

"사진밖에 없어서. 내일 현장 열립니다."

한시윤은 사진 두 장을 돌려주지 않았다. 접어서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다음 건 더 노골적이군요."

윤태건이 자판기에서 등을 땀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말없이 한시윤을 봤다.

복도 끝 형광등이 꺼졌다 켜졌다. 자판기 모터만 낮게 돌아갔다.

한시윤은 이미 걷기 시작했다.

=====

#6

통제선 안쪽으로 들어서자마자 물안개가 발목을 잡았다.

하천 둔치 아래로 시신이 누워 있었다. 얼굴 쪽은 이미 검시관이 덮어놓은 상태였고, 통제선 말뚝 사이로 형사 둘이 기록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한시윤은 시신 얼굴 쪽으로 가지 않았다. 발 쪽으로 돌아갔다.

"발목부터 보죠."

윤태건이 반 박자 늦게 따라왔다. 형사 하나가 고개를 돌렸다.

"한 박사, 위에서는 사고사 정리 방향으로—"

"압니다."

한시윤이 무릎을 꿇었다. 장갑을 끼는 동작은 이미 통제선 넘기 전에 끝나 있었다. 시신의 오른쪽 신발부터 봤다. 운동화. 끈이 묶인 채였다. 발등 위로 하천 뺨이 말라붙어 있었고, 발목과 신발 사이 틈—발목뼈 바로 위, 양말이 접히는 경계선—에 시선이 멈췄다.

집게가 공중에 걸렸다.

틈 안쪽에 흙이 박혀 있었다. 갈색이 아니었다. 검붉은 적갈색, 입자가 고르고, 물에 씻긴 흔적이 없었다. 표면이 건조했다. 하천 뺨과 색이 달랐고, 습기를 먹은 적이 없는 흙이었다.

'화단 흙이다.'

한시윤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돌렸다.

"세척 금지. 발목과 신발 접합부 확대 촬영부터."

검시관이 사진기를 들다 말고 멈췄다. "지금 순서가—"

"바뀌야 합니다."

윤태건이 끼어들었다. 빠르지 않았지만 정확했다. "촬영 먼저 해. 세척은 뒤로."

검시관이 입을 다물고 카메라를 들었다. 셔터음이 둔치에 짧게 울렸다. 한시윤은 신발 접합부의 틈을 집게로 1밀리미터 벌렸다. 안쪽으로 적갈색 흠이 더 깊이 눌러 있었다. 물이 닿은 적 없는 층위. 표면에 수분 팽창 흔적도, 유실된 경계선도 없었다.

"이 흠 젖은 적 없습니다."

윤태건이 증거 봉투를 펼쳤다. 한시윤이 핀셋 끝으로 흠 조각 하나를 떼어 봉투 안에 떨어뜨렸다. 봉투 입구를 눌러 밀봉하는 윤태건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하천에 빠져서 죽었으면, 여기에 마른 흠이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형사가 기록지를 내렸다.

"그게 그냥 빠지기 전에 밟았던 흠 아닙니까?"

"신발 밑이 아니라 발목과 신발 사이입니다. 걸을 때 끼는 위치가 아닙니다."

형사가 말을 잇지 못했다. 한시윤은 이미 다른 쪽 발목으로 넘어가 있었다. 왼쪽 신발 접합부. 같은 적갈색 흠. 같은 건조 상태. 대칭.

'양쪽 다. 누군가 이 사람 발목을 잡았다.'

---

한시윤이 무릎을 세우고 종아리 쪽으로 시선을 올렸다.

옷단이 접힌 채로 종아리 피부에 붙어 있었다. 하천 빨이 얇게 묻어 있었지만, 한시윤이 보는 건 빨이 아니었다. 옷단 접힘선과 종아리 피부 사이 틈. 확대 렌즈를 꺼내 들었다. 렌즈 표면에 물안개가 번졌다가 체온으로 걷혔다.

종아리 피부 위, 옷단 안쪽. 수변 곤충 흔적이 거의 없었다.

"면봉."

윤태건이 채취 면봉 케이스를 열어 건넸다. 한시윤이 종아리 피부 표면을 면봉으로 가볍게 눌렀다. 면봉에 묻어나는 것은 빨과 미세한 모래뿐이었다. 렌즈 아래로 옷단 섬유를 훑었다.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하천변에 오래 있던 시신이면 이 정도로 비어 있을 수 없습니다."

검시관이 렌즈를 내려다봤다. "뭐가 없다는 겁니까?"

"수변 부착 흔적이요. 갈따구 유충 껍질, 수서곤충 배설 흔적, 담수 달팽이 점액 자국. 하천 둔치에 6시간만 놓여 있어도 종아리 옷단은 그것들 투성이가 됩니다."

한시윤이 면봉을 증거 봉투에 넣었다. 윤태건이 봉투를 받아 번호를 적었다.

"지금 이 시신 종아리는 물가에 놓인 지 얼마 안 됐거나, 아예 다른 곳에서 옮겨왔거나. 둘 중 하나."

검시관의 손이 사진기 위에서 멈췄다. 셔터를 못 누르는 게 아니라, 뭘 찍어야 할지 순서를 잃은 손이었다.

한시윤이 일어섰다.

"발목 신발 틈의 건조한 흙. 종아리 옷단의 빈약한 수변 흔적. 한 세트입니다."

윤태건이 한시윤을 봤다. 한시윤은 그 시선을 받지 않고 시신 전체 윤곽을 한 번 훑었다.

"여기 흙은 물가 흙이 아닙니다. 하천이 만든 시신이 아닙니다."

---

통제선 바깥에서 무전이 울렸다.

형사가 무전기를 들었다. 건너편에서 "사고사 종료 보고 언제 올라오냐"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형사가 한시윤을 봤다. 한시윤은 장갑을 벗고 있었다.

"한 박사,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사고사 아니라는 겁니까?"

"다른 장소에서 죽고, 물가에 버려졌습니다."

형사의 턱이 굳었다. 기록지를 든 손이 반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증거가 흙하고 벌레 없는 것뿐입니다. 그걸로 유기라고 단정—"

"단정이 아닙니다. 사고사로 달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윤태건이 무전기를 형사 손에서 가져갔다. 버튼을 눌렀다.

"윤태건입니다. 하천변 사고사 종료 보고 보류합니다. 현장 통제 연장. 시신 이동 잠정 중단."

무전 너머가 잠깐 조용했다. 그 사이 윤태건은 들것 옆에 서 있던 이송 인력 쪽으로 걸어갔다.

"들것 내려놔. 아직이야."

이송 인력 둘이 들것 손잡이에서 손을 뗐다. 한 명이 장갑을 낀 채로 바지에 손을 문질렀다. 물안개가 조금 더 걷히고 있었지만, 통제선 안쪽의 공기는 오히려 무거워졌다.

형사가 한 발짝 다가왔다. "위에 뭐라고 올립니까? 익사 사고가 아니라 유기 의심이라고?"

윤태건이 돌아봤다. "유기 의심으로 분류 보류. 추가 감식 필요. 그대로 올려."

'이 놈은 아까부터 내 말이 아니라 결과만 보고 있다.'

한시윤은 새 장갑을 꺼내 끼면서 검시 텐트 쪽으로 걸었다. 뒤에서 형사가 무전기를 다시 잡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

검시 텐트 안은 조명이 낮았다.

검시관이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다. 화면에 시신 측면 확대 사진이 떠 있었다. 귀 뒤쪽.

"한 박사, 아까 발목 보시는 동안 추가로 찍어둔 겁니다. 귀 뒤에 뭐가 있어서."

한시윤이 태블릿을 받았다.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벌렸다. 귓바퀴 뒤쪽 피부, 유양돌기 아래 움푹한 주름 라인. 이물 흔적이 있었다. 육안으로는 때처럼 보이는 검은 점 서너 개.

한시윤이 라이트를 꺼내 태블릿 화면이 아닌 시신 쪽을 비췄다. 검사관이 시신의 고개를 옆으로 기울여 고정했다. 귓바퀴 뒤. 라이트 불빛이 피부 주름 사이로 파고들었다.

점이 아니었다.

알이었다.

'파리 산란 흔적.'

0.8밀리미터 남짓. 흰색이 약간 누렇게 변한 상태. 수분을 먹은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서 건조가 시작된 표면이었다. 배열이 고랑을 따라 한 줄로 늘어서 있었다. 물이 닿았다면 유실되거나 흩어졌을 배열이다.

한시윤이 채취 면봉으로 귓바퀴 안쪽을 눌렀다. 면봉에 알 한 개가 묻어왔다. 건조 상태 그대로.

"이거……" 검사관이 면봉을 봤다. "파리알입니까?"

"맞습니다."

윤태건이 텐트 안으로 들어왔다. 입구 지퍼를 내리는 소리가 짧게 굼혔다. 한시윤의 손 위 면봉을 보고, 태블릿 화면을 보고, 시신 귀 뒤를 봤다. 세 번 시선이 이동하는 데 2초가 걸리지 않았다.

"귀 뒤에서 나왔습니까?"

"귀 뒤, 그리고 귓바퀴 안쪽."

한시윤이 확대 렌즈를 귓바퀴 안쪽에 대고 각도를 틀었다. 이주(耳珠) 안쪽, 외이도 입구 바로 전. 알이 더 있었다. 일곱 개에서 열 개 사이. 물에 씻긴 흔적 없이, 마른 피부 위에 산란된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산란 흔적은 수중 노출 이후에 생긴 게 아닙니다."

검시관의 침 삼키는 소리가 텐트 안에서 생각보다 크게 울렸다.

한시윤이 렌즈에서 눈을 떴다.

"파리는 젖은 피부에 산란하지 않습니다. 마른 피부, 체온이 떨어진 직후, 은폐된 주름 부위에 먼저 접근합니다. 이걸 물가에 놓이기 전에 이미 열린 흔적입니다."

윤태건의 턱이 미세하게 당겨졌다. 기록지를 왼 손이 아래로 내려갔다.

"물에 빠지기 전에 이미 파리가 왔다는 뜻입니까?"

한시윤이 면봉을 증거 봉투에 넣었다. 봉투 입구를 접고, 핀셋을 내려놓고, 장갑을 벗었다. 장갑 안쪽에 습기가 차 있었다. 아침 공기가 손등 위로 번졌다.

"물보다 먼저 파리가 왔습니다."

텐트 조명 아래, 태블릿 화면의 귓바퀴 확대 사진 위로 알의 배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한 줄. 흐트러지지 않은 한 줄. 물이 한 번도 건드리지 못한 줄이었다.

=====

#7

슬라이드를 라이트 패널 위에 올리자 유충 잔해가 푸른 빛 아래 선명해졌다. 귓바퀴 안쪽, 이주(耳珠) 뒤편에서 채취한 산란 흔적. 한시윤은 집게 끝으로 슬라이드의 위치를 밀리미터 단위로 조정하며 배율을 맞췄다.

서민아가 폐 소견서를 테이블 반대쪽에 펼쳤다. A4 세 장. 첫 장에 붉은 펜으로 밑줄이 두 군데 그어져 있었다.

"폐포 내부에 수중 미생물 검출됐고, 기도 점막 부종도 확인됐습니다. 교과서대로라면 생활 반응 있는 익사 소견이에요."

한시윤은 슬라이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기도 점막 부종 정도는요."

"경도. 심하지 않아요."

"경도면 물을 들이마신 시간이 짧다는 뜻입니다."

집게가 공중에 걸렸다. 한시윤이 슬라이드 옆에 현장 사진 두 장을 나란히 놓았다. 귀 뒤쪽 확대 사진과 귓바퀴 내측 사진. 두 장 모두 산란 흔적의 위치를 빨간 원으로 표시해 두었다.

"귀가 먼저 열렸습니다."

서민아가 소견서에서 고개를 들었다.

"산란 위치가 귓바퀴 안쪽과 이주 후방에 집중돼 있어요. 수중 노출 상태에서 이 위치에 이 단계까지 산란이 진행되려면, 시신이 물 밖에서 상당 시간 노출된 뒤 산란이 선행됐어야 합니다."

한시윤이 소견서 첫 장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붉은 밑줄이 그어진 두 번째 항목, 폐포 내 규조류 검출 부분.

"폐 소견하고 단계가 안 맞습니다."

서민아는 반박하지 않았다. 자기 보고서를 다시 내려다봤다. 3초. 소견서 두 번째 장을 넘겨 규조류 정량 데이터를 확인했다.

"규조류 양이 적긴 해요. 전형적 익사 케이스 대비 삼분의 일 수준."

"살아서 물을 충분히 들이마신 거라면 그 양이 나올 수 없습니다. 들이마신 게 아니라 넣어진 겁니다."

'사후 주수(注水). 폐에 물을 밀어넣으면 소량의 구조류가 수동적으로 유입된다. 기도 점막 부종은 사망 직전 극히 짧은 시간 물에 접촉한 흔적일 수도 있고, 사후 조직 반응일 수도 있다.'

서민아가 펜을 내려놓았다. 감정적 반응은 없었다. 데이터를 읽는 사람 특유의 건조한 정리.

"자료상 어긋남은 맞아요. 귀 쪽 산란 단계가 수중 노출 시간과 양립하지 않는다는 건 동의합니다."

한시윤이 라이트 패널을 꺾다.

"물에서 죽은 시신이 아닙니다. 마른 상태로 먼저 방치된 시신이에요."

감정실 안에서 서 있던 감식관이 클립보드를 가슴에 붙인 채 침을 삼켰다. 윤태건이 감정실 유리문 너머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

증거 대조대 위에 시신 의복이 펼쳐졌다. 상의 왼쪽 어깨 솔기, 바지 무릎 안쪽, 등판 중앙. 세 곳에 섬유 채취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테이프 표면의 미세 보풀이 형광등 아래에서 회색빛으로 떠 있었다.

한시윤이 먼저 테이프 하나를 집었다. 등판 중앙 것. 보풀의 길이는 2밀리 미만, 굵기는 육안으로 겨우 식별되는 수준이었다. 옆에 놓인 비교 샘플—차량 트렁크 내장재에서 채취한 섬유 조각—과 색조가 같았다.

"채취 위치를 보세요."

윤태건이 대조대 앞으로 왔다.

"등판 중앙, 어깨 솔기, 무릎 안쪽. 세 곳 전부 눌린 자세에서 접촉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한시윤이 의복 등판의 보풀 분포를 손가락으로 따라갔다. 견갑골 사이에서 요추 방향으로 내려가는 타원형 분포. 사람이 등을 대고 좁은 공간에 눌러 있었을 때 생기는 압박 패턴이었다.

"웅크린 채 실렸다는 겁니까."

한시윤이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귓바퀴 산란 사진을 대조대 위에 다시 꺼냈다. 의복 보풀 사진과 나란히.

'귀의 산란 흔적은 마른 환경에서 선행됐다. 트렁크 보풀은 시신이 운반됐다는 물증이다. 두 점이 한 줄로 잇는다.'

"귀에서 나온 산란 단계는 물 밖 환경 기준 최소 18시간 선행 노출을 요구합니다. 트렁크 내장재 보풀은 시신이 차량으로 이동했다는 물리적 증거고요."

서민아가 폐 소견서를 들고 대조대 옆에 섰다. 구조류 정량 데이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폐 쪽도 같은 방향이에요. 능동적 흡입이 아니라 수동적 유입."

한시윤이 세 장의 사진과 소견서를 일직선으로 정렬했다. 귀, 폐, 트렁크.

"피해자는 물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마른 상태로 놓였다가 운반됐고, 이후 물에 넣어진 겁니다."

짚았다. 설명이 아니라 팩트 세 점의 연결이었다.

"현장 사망이 아니라 운반 후 투기입니다."

윤태건이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수첩을 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됐다가 풀렸다.

"사건 축이 바뀌네요."

한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조대 위의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있었다.

---

국과수 복도는 형광등이 한 줄 꺼져 있었다. 왼쪽 벽 세 번째 등. 그 아래를 남필구가 걸어오고 있었다.

한시윤이 감정실에서 나오자 남필구가 멈췄다. 손에 임시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표지에 '하천변 변사 건 — 중간 소견'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 박사, 중간 소견 보고에 '익사 부정' 표현을 넣었다고?"

"넣었습니다."

"부정이 아니라 '추가 검토 필요'로 돌려줄 수 없나. 아직 섬유 비교 최종 결과도 안 나왔고—"

"섬유 비교는 육안 대조 단계에서 이미 일치 방향입니다."

남필구가 보고서 표지를 엄지로 문질렀다. 종이 모서리가 살짝 말렸다.

"감식 결과가 공식 확정되기 전에 단정 표현이 나가면 복잡해져. 알잖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문법이였다.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빠르다고 말하는 것이다. 한시윤은 거기에 시간을 쓰지 않았다.

"확정 시점은 부장님이 정하시면 됩니다."

남필구가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닫았다. 한시윤은 이미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복도 끝, 브리핑실 앞 출입문 옆에 사람이 한 명 서 있었다. 출입증을 목에 걸고, 취재 수첩을 왼손에 쥐고 있었다. 오세령이었다.

한시윤이 지나가려 하자 오세령이 반보 앞으로 나왔다. 시선이 한시윤의 감정실 출입증을 읽었다.

"법곤충감정사. 한시윤 박사시죠."

한시윤이 멈추지 않았다. 걸음은 그대로였다.

"괴짜 감정사라던데요."

걸음이 느려졌다. 멈춘 건 아니었다. 오세령을 보지도 않았다.

오세령이 수첩을 들지 않은 채 물었다. 목소리가 낮았다. 자극적이지 않았다. 재는 톤.

"하천변 변사 건, 사고사로 마무리됩니까?"

"익사가 아닙니다."

한 줄이었다. 한시윤은 그대로 복도를 빠져나갔다.

오세령은 수첩을 펴지 않았다. 대신 휴대전화를 꺼내 메모 앱을 열었다. 엄지가 화면 위에서 잠깐 멈추더니, 네 글자를 쳤다.

'익사 아님.'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브리핑실 문 앞에서 출입증을 다시 만지작거렸다. 기사감이라는 건 알았다. 아직 이름을 걸 단계는 아니었다.

---

교통정보센터 보관실 앞. 밤이었다. 천장 형광등 하나가 간헐적으로 깜빡였다. 보관실 철문 옆에 교통정보센터 직원이 서 있었고, 윤태건이 그 앞에서 요청 기록 파일을 넘기고 있었다.

A4 출력물. 카메라 확보 요청 접수 로그. 날짜순으로 정렬된 리스트에서 윤태건의 손가락이 세 번째 줄에서 멈췄다.

"요청 접수가 사건 당일 오후 2시 14분."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반출 승인은 다음 날 오후 5시 38분이야. 27시간 걸렸어."

윤태건이 로그의 다음 줄을 읽었다. '반출 지연 사유: 담당자 부재 / 서명 대기.' 담당자 이름 란은 이니셜만 찍혀 있었다.

"담당자 부재? 사건 당일에?"

직원이 대답하지 못했다. 윤태건이 다음 장을 넘겼다. 같은 날 다른 사건 카메라 요청 세 건은 전부 접수 후 네 시간 이내에 반출이 완료되어 있었다.

'이 건만 27시간.'

한시윤이 보관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윤태건이 파일을 들고 돌아왔다.

"한 감정관."

"봤습니다."

"단순 실수로 보입니까?"

한시윤은 형광등이 깜빡이는 천장을 한 번 올려다봤다. 다시 내렸다.

"같은 날 다른 건은 전부 정상 처리됐고, 이 건만 담당자 부재로 하루 넘게 묶었으면 실수가 아닙니다."

윤태건이 파일을 접었다. 접힌 면에 이니셜이 보였다. 손으로 덮었다.

"누가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한시윤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올라가지 않았다. 내려가지도 않았다.

윤태건이 무전기를 쥐었다가 내렸다. 보관실 철문 뒤로 서버 팬 도는 소리가 일정하게 흘렀다. 직원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있었다. 형광등이 다시 깜빡였다.

윤태건이 파일을 다시 폈다. 이니셜을 봤다. 관할 쪽 사람이었다.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었다. 그게 더 나빴다.

=====

#8

해가 능선 뒤로 반쯤 빠져 있었다. 별장 진입로는 비포장이었고, 타이어가 자갈을 밟을 때마다 차체가 흔들렸다.

윤태건이 핸들을 꺾으며 말했다.

"급사래요.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러 왔다가 침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

한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별장 외벽이 보였다. 2층짜리 목조 구조. 야외 테크가 거실 쪽으로 길게 붙어 있었다.

"검시관은 심장 돌연사 쪽으로 봤고, 형사팀도 거의 정리 분위기입니다."

"냉방 상태는."

"예?"

"침실 냉방. 켜져 있었습니까."

윤태건이 잠깐 말을 끊었다가 전화 기록을 훑었다. "현장 보고엔 에어컨 가동 중이라고 돼 있네요. 설정 온도 19도."

한시윤이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다.

"7월 말에 19도면 시신 변화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누가 설정했는지 확인됐습니까."

"아직요."

차가 멈췄다.

---

침실 문을 열자 찬 공기가 먼저 나왔다.

시신은 이미 이송된 상태였다. 침대 위에 실루엣 마커와 채증 번호 표시만 남아 있었고, 냉방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19도. 리모컨이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한시윤은 리모컨을 보되 만지지 않았다.

형사 한 명이 복도에서 들어왔다.

"한 박사님, 검사관 소견은 심장—"

"시신 사진 있습니까."

"예. 발견 당시 촬영본 여기—"

한시윤이 사진을 받아 들었다. 상반신부터 봤다. 얼굴, 목, 어깨. 손가락이 목깃 부위에서 멈췄다.

목깃 안쪽. 왼쪽 칼라 접힌 면에 산란 흔적이 물려 있었다. 파리가 알을 낳은 자리. 흰색 점 형태 군집이 천 섬유 사이에 끼어 있었고, 오른쪽 칼라에는 없었다.

한쪽에만.

한시윤은 사진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침대 위치를 다시 봤다. 침대는 방 중앙에 있었고, 좌우 모두 벽에서 떨어져 있었다.

"이 흔적은 실내 냉방하고 안 맞습니다."

형사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뭘 봐야 하는지 모르는 눈이었다.

한시윤이 면봉을 꺼냈다. 채취 키트 안에서 가장 가는 것. 목깃 안쪽 왼쪽 칼라에 해당하는 침대 마커 영역 주변 섬유 잔해를 긁었다.

"파리 산란은 체온과 습기에 반응합니다. 19도 냉방이 연속 가동된 실내에선 이 밀도로 한쪽에만 물리지 않습니다."

'한쪽에만 물렸다는 건 바람이 아니라 지면 방향이다. 한쪽 면만 노출된 채 누워 있었다는 뜻이다.'

"이건 야외 노출 흔적입니다. 바닥이나 표면 위에 한 방향으로 눕혀져 있었을 때 파리가 접근 가능한 쪽에만 산란한 겁니다."

형사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한시윤은 다음 사진으로 넘겼다. 손등 클로즈업. 오른손 등에 미세한 가루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윤태건이 옆에서 같이 봤다.

"이건 뭘니까."

"날개 비늘입니다."

한시윤이 사진을 기울여 빛 각도를 바꿨다. 미세한 인분—나방류 날개 표면에서 떨어지는 편평한 비늘 조각이 손등 피부 주름 사이에 끼어 있었다. 두세 점.

"야간 조명에 끌려드는 나방류가 피부 위에 앉았다가 남긴 겁니다. 실내에서는 이 종류가 안 들어옵니다. 밀폐된 냉방 공간이면 더더욱."

윤태건이 냉방기를 봤다. 리모컨을 봤다. 다시 사진을 봤다.

한시윤은 채취 면봉을 밀봉했다.

"침실 사망이 아닙니다."

---

밖으로 나왔다.

야외 데크는 별장 거실에서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이어져 있었다. 폭 3미터, 길이는 8미터쯤. 난간은 나무였고, 난간 위에 야외 조명이 세 개 달려 있었다. 지금은 꺼져 있었다.

한시윤이 데크 바닥을 봤다. 목재 판과 판 사이 틈이 5밀리 정도 벌어져 있었다. 그 틈 안에 뭔가가 끼어 있었다.

손전등을 켰다.

틈 사이에 파리 우화 흔적이 있었다. 각피 잔해 한 점. 크기로 보면 Calliphora 계열 성충이 빠져나간 뒤 남은 껍질이었다.

"이 바닥 틈에 유충이 있었다는 겁니다. 데크 위에 유기물—체액이든 음식물이든—이 흘러서 틈 사이로 스며든 뒤 유충이 발육한 겁니다."

윤태건이 쭈그려 앉아 손전등을 가져갔다. 틈을 직접 봤다.

"이게 시신이 여기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까."

"단독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목깃 산란 방향, 손등 날개 비늘, 그리고 이 바닥 틈 유충 흔적. 세 개가 전부 같은 시나리오를 가리킵니다."

한시윤이 난간 위 야외 조명을 손전등으로 비췄다. 조명 갓 안쪽에 나방 사체가 두 마리 붙어 있었다. 종이 손등 비늘과 일치하는지는 채취 후 대조해야 했지만, 크기와 색이 비슷했다.

"피해자는 이 데크에서 야간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조명이 켜진 상태에서. 파리와 나방 모두 접근 가능한 환경. 이후 누군가 시신을 실내로 옮기고 냉방을 켜했습니다."

'시간을 벌려고. 부패를 늦추려고.'

윤태건이 일어섰다.

"데크에서 침실까지 동선, 유리문 통과해서 거실 지나고 복도 꺾어서 침실. 중간에 흔적 남을 수밖에 없는 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윤태건이 뒤를 돌아봤다. 형사가 서 있었다.

"거실이랑 복도 바닥 전부 다시 채증해. 데크부터 침실까지 동선 전체. 끌린 자국, 체액 흔적, 섬유 잔해 다 봐."

형사가 움직였다. 윤태건의 말투가 달라져 있었다. 지시가 빨라졌고, 의문형이 사라졌다.

한시윤은 그걸 봤다. 아무 말 하지 않았다.

---

거실로 들어왔을 때, 참고인 세 명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별장 관리인 한 명, 주말 동석자 두 명. 관리인은 60대 남자였고, 동석자 둘은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셋 다 물을 마시고 있었다. 빈 술병이 싱크대 옆에 네 개 놓여 있었다. 와인 두 병, 위스키 두 병.

윤태건이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한시윤은 앉지 않았다. 벽 쪽에 서서 채증 사진 묶음을 넘기고 있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금요일 밤 도착해서 토요일까지 같이 있었고, 일요일 아침에 피해자가 침실에서 일어나지 않아서 확인해보니 사망해 있었다. 맞습니까?"

동석자 둘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관리인은 물컵을 내려놓았다.

"금요일 밤에 야외 데크에서 술 드셨습니까?"

"아뇨, 안에서만 마셨습니다."

동석자 하나가 대답했다. 다른 동석자가 따라서 고개를 끄덕였다. 한 박자 늦게.

"야외 조명은요. 금요일 밤에 켜셨습니까."

관리인이 대답했다. "저녁에 잠깐 켜다가 껐습니다. 벌레 때문에 보통 안 켜요."

"몇 시에 켜다가 몇 시에 끄셨습니까."

"한 7시쯤 켜다가... 8시? 8시 반쯤 껐을 겁니다."

한시윤이 사진 넘기던 손을 멈췄다.

'나방 접촉 시간이 8시 반 이전이면 손등 비늘 밀도가 너무 높다. 더 오래 켜져 있었다.'

"밖에서 먼저 열렸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한시윤을 봤다.

한시윤은 벽에서 한 발 떨어졌다.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목깃 클로즈업.

"파리 산란 흔적이 왼쪽 칼라에만 몰려 있습니다. 실내 냉방 환경에서는 이런 편향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외에서 한 방향으로 눕혀진 상태에서 파리가 접근 가능한 쪽에만 산란한 겁니다."

동석자 하나가 입을 열었다.

"그건 뭐, 에어컨 바람 방향 때문일 수도—"

"에어컨 바람으로 산란 위치가 편향되려면 풍속이 초속 2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19도 설정 냉방기 실내 순환 풍속은 0.3에서 0.5. 산란 편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입이 닫혔다.

윤태건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목소리에 쿠션이 빠져 있었다.

"금요일 밤 일정을 다시 말씀해주세요. 도착 시각부터."

"6시쯤 도착해서 짐 풀고, 7시부터 거실에서 술 마시고, 11시쯤 각자 방에 들어갔습니다."

동석자 둘의 대답이었다.

"피해자는 몇 시에 방에 들어갔습니까."

"같이요. 11시쯤."

관리인이 끼어들었다. "저는 10시에 관리동으로 갔습니다."

윤태건이 통화 내역 출력본을 꺼냈다.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 기록입니다. 금요일 밤 11시 42분에 발신 기록이 있습니다. 통화 시간 3분 18초. 11시에 방에 들어가서 잤다면, 42분에 전화를 건 건 맞습니까."

"그건 아마 방에서—"

"기지국 위치가 야외입니다."

동석자의 말이 중간에서 끊겼다. 다른 동석자가 물컵을 들었다가 마시지 않고 내려놓았다.

한시윤이 두 번째 사진을 놓았다. 손등 비늘.

"이 비늘은 야간 조명에 끌리는 나방이 피부 위에 앉아야 남습니다. 조명을 8시 반에 켜면 이 접촉은 8시 반 이전에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비늘 부착 밀도와 분포를 보면, 최소 2시간 이상 조명 근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관리인의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다.

"8시 반에 끈 게 아닙니다. 더 늦게까지 켜져 있었고, 피해자는 야외 데크에 있었습니다."

윤태건이 시간표를 메모지에 다시 그렸다. 6시 도착. 7시 음주 시작. 조명 가동 시각 미상. 11시 취침 진술. 11시 42분 야외 발신.

"야외 조명을 정확히 몇 시에 끄셨습니까. 다시 한 번."

관리인이 대답하지 않았다. 3초. 5초.

"잘 기억이—"

"CCTV는 없습니까."

윤태건이 관리인에게 물었다.

"없습니다."

"야외 조명 스위치가 타이머식입니까, 수동입니까."

"수동입니다."

윤태건이 메모지를 내려놓았다. 참고인 세 명의 시간표를 나란히 적어 놓은 것이었다. 세 줄. 세 줄 다 11시 취침으로 맞춰져 있었는데, 11시 42분 야외 발신 하나가 세 줄 전부를 관통하고 있었다.

'전부 틀렸다. 11시에 아무도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윤태건이 한시윤을 봤다. 한시윤은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다.

"한 감정관, 바로 보시죠."

한시윤의 손이 멈추지 않았다. 고개만 살짝 돌렸다.

윤태건이 메모지를 다시 집어 들었다. 참고인 세 명의 시선이 그 메모지 위에 모여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거실 냉방기가 도는 소리만 낮게 깔렸다.

세 사람의 시간표가 전부 무너졌다.

윤태건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메모지를 테이블에 내려놓는 동작이 느렸다. 의도적으로 느린 것이었다. 참고인 전원이 그 종이를 보게 하려는 것이었다.

종이 위에 적힌 세 줄의 '11시'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다.

=====

#9

잔디 경계선은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한시윤은 무릎을 꿇은 채 잔디 표면에 손바닥을 댔다. 왼쪽으로 30센티. 다시 오른쪽으로 30센티. 이슬이 손등까지 스며들었지만 닦지 않았다. 손바닥 아래 잔디 밀도가 달랐다. 왼쪽은 뿌리가 엉겨 있고 오른쪽은 뿌리가 짧았다. 토양에 아직 안 붙은 거다.

집계를 꺼냈다. 경계 지점에서 잔디 한 줄기를 뽑았다. 하부에 검은 망사가 딸려 나왔다.

이식 잔디다.

"감식관, 여기 라인 따라 테이프 쳐주십시오."

감식관이 다가왔다가 멈칫했다.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한시윤은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바닥을 훑었다. 경계선 하나가 아니었다. 폭 약 1미터 20센티, 길이 4미터. 직사각형. 잔디밭 한복판을 정밀하게 잘라낸 듯한 구획이었다.

절단면을 들여다봤다. 기존 잔디의 절단 끝은 갈변이 시작되어 섬유질이 말려 있었고, 이식된 잔디의 절단면은 수분이 아직 남아 있었다. 이틀 이내. 잘린 시점이 다르다.

'하부 망사 제조사가 다르면 유통 경로가 나온다.'

윤태건이 통제선 밖에서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까부터 입을 열지 않았다. 한시윤이 바닥에서 뭔가를 읽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뭘 읽는지는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한시윤이 옆에 놓인 투명 봉투를 집었다. 시신 발바닥에서 채취한 미세 흙 샘플. 어젯밤 검사 과정에서 떼어낸 것이다. 봉투 안의 흙 색이 이식 구간 하부 토양과 육안으로도 같았다. 적갈색 점토질. 기존 잔디밭 토양은 회갈색 사질토였다.

봉투를 잔디 이식 구간 옆에 나란히 내려놓았다. 비교할 것도 없었다. 같은 흙이다.

"윤 형사."

윤태건이 통제선을 넘었다.

"발바닥이 지나간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한시윤은 봉투와 이식 구간 사이를 손가락으로 번갈아 가리켰다. 윤태건이 쪼그려 앉았다. 흙 색을 봤다. 봉투를 봤다. 다시 잔디를 봤다.

"시신이 이 위를 밟았다는 겁니까?"

"밟았거나 끌렸거나. 발바닥 채취물에 딱정벌레과 유충 사체 파편이 한 점 붙어 있었습니다. 이식 잔디를 깔 때 하부 흙과 함께 떨어진 개체입니다. 기존 잔디밭 토양에선 이 종이 안 나옵니다."

윤태건이 침을 삼켰다. 목젖이 움직이는 게 보였다.

"침실에서 쓰러진 게 아니라 here를 지났다?"

"침실 안 바닥에서는 발바닥 흙과 일치하는 토양이 없었습니다. 있으면 안 되는 위치에 없고, 없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감식관 한 명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셔터음이 이슬 젖은 잔디밭에서 유난히 건조하게 울렸다.

한시윤이 일어섰다. 장갑 안쪽에 흙이 묻어 있었다. 벗지 않았다.

"이 잔디는 최근에 깔렸습니다. 사건 이후가 아니라, 사건 전후 48시간 이내. 그리고 이식 구간 아래 곤충상 분포를 보면 기존 토양 생태가 교란된 시점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윤태건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잔디를 갈아끼운 이유가 뭐니까."

"이 구간에서 일어난 일을 덮기 위해서."

한시윤은 확대 사진 세 장을 봉투에서 꺼냈다. 발바닥 접사, 이식 구간 절단면 접사, 기존 잔디 절단면 접사. 나란히 바닥에 놓았다. 세 장의 사진은 한 문장이었다. 시신은 이 잔디 위를 지나갔고, 누군가 그 자리를 잘라내고 새 잔디를 덮었다.

---

진입로 끝에 조경 자재 적재 구간이 있었다.

윤태건이 먼저 갔다. 한시윤은 반 보 뒤에서 바닥을 보며 따라갔다. 진입로 자갈 사이에 잔디를 포장 비닐 조각이 끼어 있었다. 비닐 모서리가 찢긴 방향이 안쪽에서 바깥이 아니라 바깥에서 안쪽이었다. 반입 방향이다.

"여기."

윤태건이 적재 구간 구석을 가리켰다. 잔디를 한 개가 풀리다 만 채 비닐에 감겨 있었다. 크기는 폭 1미터 20센티, 길이 약 5미터. 잔디밭에서 확인한 이식 구간 치수와 거의 동일했다.

'미리 재단해서 가져온 거다.'

형사 한 명이 반입 영수증 사본을 들고 왔다. 윤태건이 받아 읽었다. 날짜가 사건 발생 이틀 전이었다. 잔디를 두 개, 하부 망사 포함, 배송지 이 별장 주소.

"이들 전에 주문했다고?"

"배송 완료 시점은 사건 하루 전입니다."

윤태건이 영수증을 한시윤에게 넘겼다. 한시윤은 날짜만 봤다. 수량을 봤다. 잔디밭에 깔린 건 한 롤. 여기 남은 게 한 롤. 두 개 다 있다.

"차량 적재 흔적은요."

형사가 사진을 꺼냈다. 적재 구간 바닥에 타이어 자국이 두 겹. 하나는 배송 차량 패턴이고 하나는 승용차급 패턴이었다. 승용차 자국이 배송 자국 위에 찍혀 있었다. 나중에 온 거다.

"조경업자 확인됐습니까?"

"별장 관리 계약 업체 소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잔디 교체 작업 의뢰 기록은 업체 장부에 없습니다."

윤태건이 한시윤을 봤다. 한시윤은 포장 비닐을 집게로 잡고 있었다. 비닐 안쪽에 장화 바닥 흠이 찍혀 있었다. 밟고 올라선 흔적이다. 장화 패턴을 사진과 대조할 수 있다.

"한 감정관."

한시윤이 비닐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당황해서 덮은 게 아닙니다."

비닐을 내려놓았다.

"잔디를 자르고, 새 잔디를 깔고, 가장자리를 맞추려면 최소 두 시간입니다. 야간에, 조명 없이, 한 사람이. 그런데 절단면이 일직선이고 하부 망사 접합이 깔끔합니다."

윤태건의 턱이 굳었다.

"우발 은폐가 아니라 준비된 알리바이입니다."

형사 한 명이 뒤에서 숨을 들이켰다. 내쉬지 못했다.

한시윤은 장갑을 벗었다. 오른손 손가락 끝에 적갈색 흙이 손톱 밑까지 들어가 있었다.

"물리 동선은 여기서 닫힙니다. 시신은 침실이 아니라 잔디밭 이식 구간을 경유했고, 경유 흔적을 덮기 위해 잔디를 교체했고, 교체 자재는 사건 이틀 전에 미리 주문했습니다."

윤태건이 영수증을 접었다. 접는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다.

"영장 범위 넓혀야겠습니다."

"그쪽은 형사 영역입니다."

한시윤이 돌아섰다. 잔디밭 너머로 아침 해가 별장 지붕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빛이 이식 구간과 기존 구간의 색 차이를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시간이 3초쯤 흘렀다. 그 3초 동안 잔디밭은 증거물이 되었다.

---

수사본부실 화이트보드에 동선도가 새로 그려졌다.

잔디밭 경유, 침실 재배치, 잔디 교체. 세 단계가 화살표 세 개로 붙었다. 윤태건이 직접 매직으로 쓴 글씨는 크고 거칠었다.

문이 열렸다.

오세령이었다. 녹음기를 가방 안에 넣은 채 들어왔는데 가방 지퍼가 열려 있었다. 의도적이었다. 손에는 A4 두 장. 기사 초안이었다.

"윤 형사, 별장 건 사건 종결 방향 맞습니까?"

"기자가 왜 여기 들어옵니까."

"문이 열려 있었으니까요."

윤태건이 뒤를 봤다. 형사 하나가 시선을 피했다. 누가 열어준 건 아닌데 닫지도 않은 거다.

오세령은 화이트보드를 봤다. 동선도를 읽었다. 빨랐다. 3초 안에 핵심을 잡았다.

"잔디 교체가 사전 준비였다는 거, 이거 공식 발표에 나오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오세령이 한시윤을 봤다. 한시윤은 책상 끝에 앉아 발바닥 채취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한 감정관."

"네."

"기사 초안에 이름 넣으려고 합니다. 사건 뒤집은 축이 감정관 쪽이라는 게 기록상 명확해서."

한시윤이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동선이 틀렸습니다."

오세령이 멈췄다. "예?"

"기사 방향 말입니다. 사건을 뒤집은 건 잔디입니다. 잔디 절단면, 이식 망사, 반입 날짜. 사람 이름보다 물증 순서가 먼저 와야 기사가 삽니다."

오세령의 펜이 종이 위에서 멈춰 있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줄짜리 코멘트였는데 기사 구조를 통째로 건드린 거다.

'짧을수록 제목이 선다는 걸 이 사람도 아는 건가.'

오세령이 초안을 접었다. 접지 않았다. 다시 펼쳤다. 제목 줄 옆에 뭔가를 적었다.

그때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다. 리듬이 일정했다. 급하지 않은데 느리지도 않은 보폭.

남필구였다.

문 앞에서 안을 봤다. 화이트보드, 오세령, 한시윤, 윤태건. 시선이 오세령 손의 A4에서 멈췄다.

"오 기자, 그게 기사 초안입니까?"

오세령이 돌아봤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제목에 뭐가 들어갑니까."

직접적이었다. 남필구의 어조에 적대감은 없었다. 대신 계산이 있었다. 눈이 오세령의 A4를 읽고 있었다. 거꾸로, 빠르게.

오세령은 초안을 자연스럽게 뒤집었다.

"아직 확정 전입니다."

"제목에 이름을 넣을 생각입니까."

오세령이 남필구를 봤다. 남필구가 오세령을 봤다. 2초.

"한 감정관 이름이 나가면 국과수 초동 판단에 대한 질문이 같이 나갑니다. 그건 아시죠?"

'거기가 핵심이었군.'

오세령의 손가락이 펜 위에서 미끄러졌다. 남필구의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사실이었다. 개인 이름이 기사 제목에 올라가면 기관은 비교 대상이 된다. 한시윤이 맞췄다는 건 국과수 초동이 틀렸다는 말과 같은 무게를 갖는다.

남필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한시윤 옆을 지나갔다. 한시윤은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한 감정관, 사건 종결 보고서는 국과수 채널로 통합 발송하겠습니다. 감정 소견서는 기관 보고서에 첨부하는 형태로."

"네."

한마디였다. 반박도 동의도 아닌 접수. 남필구는 그 한마디의 온도를 읽으려 했지만 읽을 게 없었다.

윤태건이 팔짱을 풀었다. 창밖을 봤다. 다시 남필구를 봤다. 입을 열려다 닫았다.

'기사 막으려고 온 거구만.'

오세령은 초안을 가방에 넣었다. 녹음기 옆에. 지퍼는 이번에도 닫지 않았다.

"부장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참고. 수용이 아니라 참고. 남필구의 눈꺼풀이 한 번 내려갔다 올라왔다.

오세령이 문 쪽으로 걸었다. 지나가면서 한시윤의 책상 끝을 봤다. 보고서 옆에 발바닥 확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적갈색 흠이 선명했다.

문 앞에서 멈췄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동선이 틀렸다, 그 한 줄이면 되겠습니다."

문이 닫혔다.

남필구가 보고서 표지를 집었다. 수정 펜으로 상단에 뭔가를 적었다. '국과수 종합감정보고서(별장 변사 건)' 위에 '국과수 주관'이라는 세 글자를 추가했다.

한시윤은 봤다. 봤지만 말하지 않았다.

윤태건도 봤다.

남필구가 나갔다.

방 안에 세 사람이 남았다. 윤태건, 한시윤, 그리고 형사 한 명. 형사는 화이트보드만 보고 있었다.

윤태건이 의자에 앉았다. 등받이가 삐걱거렸다.

"한 감정관."

"네."

"이름 나가는 거,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한시윤이 처음으로 보고서에서 눈을 떴다.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 기자가 안 접을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안 접겠죠."

한시윤은 보고서를 닫았다.

"제목에 이름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동선은 이미 물증으로 닫혔습니다. 기사가 바꿀 수 있는 건 여론이고, 여론이 바꿀 수 없는 건 증거입니다."

윤태건이 한시윤을 봤다. 잠깐.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화이트보드 위의 동선도에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화살표 세 개. 잔디밭 경유, 침실 재배치, 잔디 교체. 그 옆에 윤태건이 아까 적은 글씨가 있었다. '사전 준비 확인됨.'

그 아래에 아무도 적지 않은 빈 칸이 하나 있었다. 거기엔 곧 이름이 들어갈 터였다. 한시윤의 이름이. 국과수 보고서에는 빠져 있고 기사 초안에는 들어가 있는 그 이름이.

저녁 해가 수사본부실 블라인드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다. 한시윤의 책상 위 발바닥 사진 위를 가로질렀다. 적갈색 흙이 빛을 받아 한 톤 더 붉어졌다.

복도 저 끝에서 오세령의 구두 소리가 멀어지고 있었다. 빠르지 않았다. 느리지도 않았다. 제목을 이미 정한 사람의 보폭이었다.

=====

#10

도표 위에 펜 끝이 멈춰 있었다.

한시윤은 두 사건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그 사이를 잇는 선 하나를 이미 그어 둔 상태였다. 대기실 형광등이 사진 표면에 반사돼 발목 흠 확대 사진의 입자 경계를 지웠다. 각도를 3센티 틀자 입자가 돌아왔다. 한시윤은 그 각도에서 멈췄다.

왼쪽 사진. 첫 번째 사건, 귤바퀴 산란 흔적. 검정파리 산란 패턴이 이도(耳道) 입구에서 바깥으로 퍼져 있었다. 자연사라면 성립하지 않는 방향이다. 시신이 눕혀진 뒤에 파리가 접근했다는 뜻이다.

오른쪽 사진. 별장 사건, 발목 복숭아뼈 아래 흠. 현장 토양과 입도 분포가 달랐다. 강변 저습지 특이종 유충 파편이 섬유 안쪽에 끼어 있었다. 별장 잔디 단면 사진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선명했다. 잔디 뿌리 단면의 토양층은 적갈색 점토질, 발목 흠은 흑회색 실트질.

한시윤이 펜을 내려놓았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윤태건이 문 옆에 기대어 서 있다가 고개를 돌렸다. 서민아는 맞은편 의자에서 보고서 초안 위에 손을 얹은 채 한시윤을 보고 있었다.

"사후 이동 흔적이 남았고, 곤충 단계가 현장 조건과 안 맞습니다."

한 줄이었다. 한시윤은 그 이상 늘리지 않았다.

서민아가 보고서 초안을 한 장 넘겼다. 부검 소견 요약 페이지.

"법의학 소견상으로도 같은 방향입니다. 첫 번째 시신의 사후 경직 이완 시점과 현장 온도 역산 결과가 12시간 이상 어긋나요. 별장 건도 간 온도 기준 사후 변화 속도와 실제 부패 정도 사이에 격차가 있었고."

"결론이 같다는 뜻입니까."

서민아가 펜을 세웠다.

"곤충 단계 불일치와 부패 시간축 불일치가 같은 원인을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시신이 다른 곳에서 옮겨졌다면 양쪽 다 설명됩니다."

윤태건이 팔짱을 풀었다. 대기실 벽시계가 9시 38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브리핑 시작까지 22분.

"한 감정관, 이거 밖에 나가면 먹힙니까?"

한시윤이 윤태건을 봤다.

"먹히고 안 먹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 그건 아는데." 윤태건이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한 번 쳤다. "기관이 공식 정정을 하려면 문장이 단순해야 합니다. 기자들이 한 줄로 뽑을 수 있어야 하고, 뒷선이 읽고 토 달 여지가 없어야 해요. 방금 그 한 줄이면 됩니까?"

한시윤은 도표를 접었다. 사진 네 장을 순서대로 겹쳤다. 귤바퀴 산란 흔적, 발목 흠 확대, 별장 잔디 단면, 곤충 단계 비교표.

"됩니다."

서민아가 보고서 초안을 달았다. 윤태건이 문을 열었다. 복도 끝에서 브리핑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마이크 테스트 소리가 새어 나왔다.

한시윤은 사진 네 장을 들고 일어섰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윤태건에게 건넸다.

"모니터에 띄울 파일 순서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윤태건이 USB를 받아 쥐었다. 무게가 없는 물건인데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 사람은 길게 준비를 안 한다. 짧게 끝내려고 오래 깎은 거다.'

---

브리핑실 안쪽 조명이 단상 위만 밝혔다. 나머지 공간은 반쯤 어두웠다. 기자석 세 줄, 카메라 두 대, 녹음기 네 개가 단상 아래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남필구가 단상 왼쪽에 서 있었다. 보고서 문안을 한 번 더 읽고 있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한시윤이 들어오는 걸 봤다. 시선이 0.5초 머물렀다가 보고서로 돌아갔다.

한시윤은 단상 오른쪽 끝에 섰다. 마이크와의 거리, 약 1미터. 모니터 화면에 첫 번째 사진이 떴다. 귤바퀴 산란 흔적 확대.

남필구가 먼저 말했다. 공식 발언이었다.

"금일 브리핑은 최근 두 건의 사건에 대한 감식 결과 정정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정. 그 단어를 직접 꺼냈다.'

한시윤은 남필구의 톤을 들었다. 평탄했다. 분노도 수치도 없었다. 조직이 공식적으로 물러서는 속도와 형식을 익히 아는 사람의 말투였다.

남필구가 경위 설명을 끝냈다. 사고사 판정, 급사 판정, 각각의 초기 감식 결론. 2분 채 걸리지 않았다.

"감식 보완 결과에 대해서는 한시윤 법곤충감정사가 설명하겠습니다."

호칭이 '한 박사'가 아니었다. '한시윤 법곤충감정사'. 이름과 직함을 함께 붙였다. 그렇게 붙이면 공식 문안에 그대로 남는다.

'이것도 계산이다. 내 이름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정정의 책임 축을 나한테 건네는 거다.'

한시윤은 그걸 알았고, 상관없었다.

단상 앞으로 한 걸음 나갔다. 마이크를 당기지 않았다. 목소리가 닿을 거리까지만 움직였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모니터에 귓바퀴 산란 흔적 사진이 확대됐다.

"귓바퀴 외측에 검정파리 1차 산란 흔적이 분포해 있습니다. 산란 방향이 이도 안쪽에서 바깥이 아니라, 바깥에서 안쪽으로 진입한 패턴입니다."

기자 한 명이 펜을 세웠다.

"자연 경로로 사망한 시신이라면 파리는 구강, 비강, 이도 순서로 접근합니다. 이 시신은 귓바퀴 외측에 먼저 산란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신이 특정 자세로 방치된 뒤 위치가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사진이 바뀌었다. 발목 흠 확대.

"두 번째 사건입니다. 발목 복숭아뼈 아래 부착 토양의 입도 분포가 현장 토양과 불일치합니다. 현장은 적갈색 점토질, 발목 부착 토양은 흑회색 실트질입니다. 부착 토양에서 강변 저습지 특이종 곤충 파편이 검출됐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터졌다. 한 번.

"두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사후 이동 흔적이 남았습니다. 곤충 단계가 안 맞습니다."

한시윤이 숨을 한 번 쉬었다. 짧았다.

"이건 현장 사망 사진이 아닙니다. 두 사건 모두, 다른 장소에서 사망한 뒤 현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침묵이 브리핑실을 눌렀다. 카메라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깔렸다.

한시윤이 마이크에서 반 걸음 물러섰다. 끝이었다.

"벌레는 거짓말을 못 합니다."

남필구가 보고서를 내려봤다. 손등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났다. 기자 쪽을 봤다가 다시 보고서를 봤다.

윤태건이 단상 아래에서 말했다. 마이크가 아니라 기자석을 향해.

"현장 동선 확인 결과 두 사건 모두 최초 발견 위치와 실제 사망 추정 위치가 다릅니다. 수사 방향을 사고사 및 급사에서 외부 개입 가능성으로 전환했습니다."

서민아가 옆에서 보고서 한 장을 들었다.

"국과수 법의학 소견도 동일한 방향입니다. 부패 시간축과 현장 온도 조건 사이에 유의미한 격차가 확인됐으며, 한시윤 감정사의 곤충 증거 분석 결과와 일치합니다."

남필구는 입을 열지 않았다. 열 필요가 없었다. 서민아가 '한시윤 감정사'라는 명칭을 국과수 소견에 직접 묶어버렸다. 그 문장이 보고서에 실리면, 정정 문안에서 한시윤 이름은 기관 결론 바로 옆에 붙는다.

남필구가 수정 문안 첫 줄에 펜을 대는 게 보였다. 한 글자를 지웠다. 다시 쓰진 않았다. 보고서를 접어서 안주머니에 넣었다.

'저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 물러서되, 물러선 자리에서 다음 판을 짠다.'

한시윤은 그걸 알았고, 역시 상관없었다.

---

브리핑실 문이 열리자 복도 형광등이 쏘아져 들어왔다.

기자 세 명이 먼저 나갔다. 그중 하나가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다. "정정 브리핑 끝났어, 기사 올려야 돼, 지금." 발소리가 빨랐다.

오세령은 나가지 않았다.

복도 벽에 등을 대고 서 있었다. 녹음기를 손에 쥔 채. 브리핑실 안을 보지 않고, 휴대전화 화면만 보고 있었다. 송고 화면이 열려 있었다. 제목 줄은 비어 있었다.

한시윤이 나왔다.

오세령이 고개를 들었다.

"한 감정관, 한 줄만 주시죠."

한시윤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브리핑에서 다 말했습니다."

"기사 제목에 이름 넣어도 됩니까?"

한시윤이 멈췄다. 오세령을 봤다. 1초. 2초.

"결과로 판단하면 됩니다."

오세령이 녹음기를 내렸다. 한시윤이 지나갔다. 오세령은 휴대전화 제목 줄에 엄지를 올렸다. 커서가 깜빡였다. '법곤충감정사 한시윤'까지 쳤다가 지웠다. 다시 쳤다. 이번에는 지우지 않았다.

윤태건이 뒤따라 나오며 오세령 옆을 지났다.

"기사 잘 쓰세요, 기자님."

오세령이 윤태건을 흘겨봤다.

"형사님은 기사 걱정 말고 현장이나 뛰세요."

윤태건이 웃었다. 짧았다.

복도 끝에서 서민아가 나왔다. 보고서를 가슴에 안고 있었다. 걸으면서 첫 페이지를 폈다. 결론 문단. '한시윤 법곤충감정사의 곤충 증거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사망 시각 및 이동 경로를 재산정함'이라는 문장 위에 밑줄이 쳐져 있었다. 서민아가 직접 친 밑줄이었다.

서민아가 한시윤 옆을 지나며 말했다.

"보고서 최종 문안에 들어갔어요. 한 감정관 이름."

한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서민아가 멈칫했다. 한시윤이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건 드물었다. 서민아는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갔다.

형사 둘이 브리핑실에서 나오며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다.

"야, 저 사람 이제 세 번째야. 세 번 다 뒤집었어."

"다음에 현장 나가면 저 사람 이름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감정관 말대로 현장 다시 봤더니 맞았다, 이걸 보고서에 어떻게 쓰냐."

"그냥 써. 팩트잖아."

한시윤은 그 대화를 등 뒤로 들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다.

'이름이 올라가는 건 도구다. 도구가 쓸 만해야 다음 현장에 부를 수 있다.'

---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윤태건이 먼저 들어와 있었다.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한시윤이 보지 못한 사진이었다.

산속 흙. 발굴 현장. 무명 시신의 상반신이 노출된 상태. 토양층 단면이 시신 옆으로 드러나 있었다.

한시윤은 사진을 집어 들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채로 봤다.

"이건."

"오늘 오후에 들어온 겁니다. 지방청에서 넘어왔어요."

한시윤의 시선이 사진 오른쪽 하단으로 갔다. 시신 옆 토양 노출면. 발굴 깊이는 60센티 안팎. 그 깊이라면 토양 곤충이 있어야 했다. 반날개류, 또는 거저리과. 매장 시신과 토양 사이에서 반드시 검출되는 종들.

없었다.

사진 속 토양 단면은 매끄러웠다. 곤충 활동 흔적이 없었다. 표면 갠리리도, 유충 이동 통로의 미세한 홈도, 번데기 잔해도.

한시윤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짚었다. 토양 단면 가운데. 곤충이 있어야 할 자리.

"윤 형사."

"예."

"이 토양 빈 겁니다."

윤태건이 한시윤의 손가락 끝을 봤다.

"빈 게 뭘 뜻합니까?"

한시윤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60센티 깊이 매장. 최소 3주 이상 경과. 토양 온도 15도 이상이면 반날개 성충이 48시간 안에 접근한다. 3주면 유충 세대가 두 번은 돈다. 그 흔적이 전부 없다.

'흙 자체가 바뀐 거다. 시신을 묻고 나서 토양을 교체했다.'

"이 사람은 여기 묻힌 게 아닙니다."

윤태건의 턱이 굳었다.

"묻힌 게 아니면 뭐니까?"

"묻힌 뒤에 흙이 바뀐 겁니다. 원래 토양을 걷어내고 다른 흙을 덮었습니다. 곤충 활동 흔적을 지우려고."

한시윤이 태블릿을 당겼다. 사진을 확대했다. 토양 단면의 빈 구간이 화면 전체를 채웠다. 입자가 균일했다. 자연 토양의 불균질한 층리 구조가 없었다. 체로 걸러낸 듯한 입도.

"이 흙은 자연 토양이 아닙니다."

확대 화면 안에서 곤충의 흔적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한시윤의 손가락이 그 빈 자리 위에 멈춰 있었다.

'누군가가 벌레까지 지울 줄 아는 사람이다.'

=====

#11

비닐 천막이 바람에 한 번 출렁였다. 물기 머금은 공기가 구덩이 안쪽까지 밀려 들었다.

한시윤은 무릎을 꿇은 채 흙을 갈랐다. 라텍스 장갑 너머로 입자감이 갈렸다. 표층은 부슬부슬했다. 수분이 빠진 지 이틀 안쪽. 손가락 두 마디만 밀어 넣으면 중간층이 나왔다. 여기는 달랐다. 차갑고 찢듯했다. 손끝이 미끄러졌다.

두 층의 습도 차이가 너무 컸다.

한시윤은 장갑 끝에 묻은 흙을 엄지와 검지로 비볐다. 표층 입자는 깨끗하게 부서졌다. 중간층은 뭉쳤다. 점토질이 섞인 본래 지반 그대로였다. 표층만 교란된 것이다. 최근에 파고 다시 덮었다면 이 정도 차이는 설명이 된다. 현장 인력이 "최근 암매장"을 전제로 움직이는 근거이기도 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한시윤은 흙손을 집어 중간층 경계면을 수평으로 긁었다. 흙손 끝이 돌 파편을 한 번 튕겼다. 짧은 쇠소리. 그 아래를 한 번 더 긁었다. 두 번 더. 산성 편마암 토양이었다. pH 4.5에서 5 사이. 이 토질과 이 습도 조건이라면 시신이 접촉한 흙 속에 먼저 달라붙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없었다.

중간층 전체를 가로로 세 구간, 세로로 두 구간, 여섯 지점을 손끝으로 훑었다. 흙손 끝에 걸리는 키티질 파편도, 유충 흔적도, 배설 잔해도 나오지 않았다. 여섯 지점 전부 비어 있었다.

'공백이 너무 고르다.'

"한 박사님."

감식반원이 구덩이 가장자리에서 내려다봤다. 장갑을 낀 손에 샘플 채취봉을 들고 있었다.

"최근에 묻힌 거면 아직 곤충이 덜 붙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매장 후 경과 기간이 짧으면—"

"덜 붙은 게 아니라 빠진 겁니다."

한시윤이 흙손을 내려놓았다. 고개를 들지 않았다.

"산성 토양은 분해 속도가 느립니다. 느린 만큼 초기 접근 곤충의 산란 흔적이 토양 경계면에 더 오래 남습니다. 여기 pH 조건이면 매장 48시간 안에 토양 접촉면을 따라 반응이 시작돼야 합니다."

한시윤은 채취봉을 받아 구덩이 바닥 중앙부의 흙을 떠서 증거 봉투에 넣었다. 봉투 표면에 '경계면-중앙' 네 글자를 적었다.

"지금 이 경계면은 반응이 시작된 적 자체가 없습니다."

감식반원이 입을 다물었다.

다른 감식반원이 천막 바깥에서 현장 사진판을 들고 들어왔다. 반쯤 들어오다가 구덩이 안쪽 분위기를 읽고 발을 멈췄다.

윤태건이 천막 입구에 서 있었다. 팔짱을 끼지 않았다. 양손을 주머니에 넣지도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한시윤의 목소리 톤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듣고 있었다. 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이미 결론이 섰다는 뜻이다. 별장 변사 이후로 그걸 배웠다.

"현장 정리 잠깐 세워."

윤태건이 감식반원을 향해 말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닫힌 공간에서 또렷하게 울렸다.

"시신 수습 진행 중인데—"

"세우라고 했다."

감식반원B가 사진판을 내렸다.

---

증거 분류 테이블은 구덩이에서 사면을 따라 7미터 위에 있었다. 접이식 알루미늄 테이블 위에 수습물이 순번대로 놓여 있었다. 증거 봉투 아홉 개, 태블릿 하나, 확대경, 핀셋 세 종류.

한시윤은 장갑을 갈았다. 왼손부터. 새 라텍스가 손목을 잡으며 짧게 탄성음을 냈다.

시신을 감싸고 있던 포장재 절편이 세 조각으로 나뉘어 각각 봉투에 들어가 있었다. 한시윤은 첫 번째 봉투를 열지 않고 투명 비닐 너머로 핀셋 끝을 대고 표면을 훑었다. 두 번째도 같은 방식. 세 번째 봉투에서 핀셋이 멈췄다.

포장재 겉면. 접힌 주름 사이. 검은 점 하나.

한시윤은 봉투를 열고 핀셋으로 그것을 집었다. 확대경 아래에 놓았다. 체장 2밀리미터. 딱정벌레 성충 사체. 다리가 여섯 개 온전했다. 앞가슴등판의 미세 움기 패턴이 살아 있었다. 건조 사체. 눌린 흔적 없음. 포장재 겉면에 자연 부착된 상태.

'겉면이다. 안쪽이 아니라.'

한시윤은 핀셋을 내려놓지 않은 채 나머지 두 봉투의 안쪽 면을 다시 확인했다. 포장재 내면, 시신과 직접 접촉하고 있었을 면에는 동일 종이 없었다.

"증거정리요원."

증거정리요원이 다가왔다.

"이 포장재, 수습 시 내면과 외면 구분 기록했습니까?"

"접힌 방향 기준으로 표시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겉면에만 남아 있습니다."

한시윤은 확대경을 비껴놓고 태블릿을 당겼다. 시신 수습 직후 촬영한 고해상도 사진을 열었다. 구덩이 안 시신의 배치 사진. 포장재의 접힘 방향. 토양 접촉면.

"이 딱정벌레는 산속 토양층 안에 서식하는 종이 아닙니다. 건조한 실내 저장 공간 표면에 붙는 종입니다."

손가락으로 태블릿 화면을 확대했다. 포장재 외면의 주름 방향을 짚었다.

"시신이 이 산에서 부패했다면, 토양 반응이 먼저 시신에 달라붙고, 포장재 안쪽으로 침투합니다. 지금은 안쪽이 비어 있고 겉면만 따로 말하고 있습니다."

윤태건이 테이블 옆에 섰다. 확대경 아래 딱정벌레 사체를 봤다. 체장 2밀리미터. 그에게는 그냥 검은 점이였다.

"결론이 뭘니까, 한 감정관."

"이 산에서 썩은 시신이면 흙이 먼저 맞아야 합니다. 지금은 포장재만 따로 말하고 있습니다."

윤태건은 한시윤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봤다. 딱정벌레가 아니었다. 테이블 속 포장재 접힘 방향이었다. 눈이 거기서 떨어지지 않았다.

"포장된 상태로 옮겨졌다는 겁니까."

한시윤은 고개를 한 번 끄덕이는 대신 증거 봉투를 달았다. 달는 속도가 대답이었다.

---

발굴선 외곽 사면. 경사가 완만해지는 지점에 수사 노트를 펼친 형사가 서 있었다. 옆에 또 다른 형사는 현장 스케치판을 안고 표식 깃발의 간격을 확인하고 있었다.

"실종 신고 접수 후 9일. 산 초입 CCTV에 차량 1대 확인. 시간대 맞고 차종 맞고. 실종 직후 살해하고 곧장 여기 묻은 거 아닙니까?"

형사 한명이 물었다. 무전기를 한 손에 들고, 반대 손으로 수사 노트를 짚으며 흐름을 정리하는 중이었다.

한시윤이 사면을 올라왔다. 장갑은 벗지 않은 상태였다. 오른손에 증거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아닙니다."

형사가 돌아봤다.

"곤충 반응 공백만으로도 여기서 부패한 시신이 아닙니다. 토양 경계면에 초기 접근 흔적이 전혀 없고, 포장재 겉면에만 이물 곤충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 형사가 스케치판을 내렸다.

"그게 확정입니까? 환경 조건이 달라서 그런 건 아닌지—"

"환경 조건이 다르다면 설명이 한쪽으로라도 기울어야 합니다. 지금은 양쪽 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토양은 이 시신을 모릅니다."

형사의 손이 스케치판 위에서 멈췄다.

한시윤은 증거 봉투를 들어 보였다. 안쪽의 딱정벌레 사체가 투명 비닐 너머로 보였다.

"이 산에서 썩은 시신이 아닙니다. 다른 장소에서 일정 기간 방치 또는 보관된 뒤 이동되었고, 최근 매장처럼 꾸민 겁니다."

형사가 수사 노트를 닫았다. 닫지 않으려 했으나 닫혔다. 반사적이었다.

"한 감정관, 그러면 CCTV 차량은—"

"운반입니다. 살해 차량이 아니라 운반 차량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바람이 멈춘 틈에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났다.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었다.

윤태건이 무전기를 꺼냈다.

"본부, 윤태건. 현장 1차 매장 확정 보고 보류합니다. 근거 변경. 법곤충감정 결과 재매장 가능성 우선. 보고 체계 전환합니다."

무전기 너머에서 짧은 정적이 흘렀다. 응답이 돌아왔다. 윤태건은 응답 내용에 반응하지 않고 무전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한시윤은 이미 사면을 내려가고 있었다.

---

구덩이로 돌아왔다. 오후 햇빛이 천막 비닐을 투과하면서 안쪽 공기가 데워지기 시작했다. 흙 냄새가 한 단계 올라왔다. 부패와는 다른, 미생물 분해 초기 단계의 신맛이 섞인 냄새.

한시윤은 구덩이 가장자리에 앉아 줄자를 꺼냈다. 구덩이의 깊이를 다시 잰다. 시신이 놓여 있던 바닥면에서 현재 지표면까지. 71센티미터. 줄자를 접었다. 구덩이 벽면의 토양 단면을 봤다. 삽날이 지나간 흔적이 세로 방향으로 남아 있었다. 흔적의 간격이 고른 편이었다. 급하게 판 사람의 삽질이 아니었다.

'정돈돼 있다. 매장이 아니라 배치다.'

현장기록요원이 구덩이 반대편에서 측정 자를 대고 기록지에 수치를 적고 있었다.

한시윤은 토양 단면 사진을 태블릿으로 촬영한 뒤 구덩이 벽면 하단부를 손끝으로 눌렀다. 부패 삼출액이 토양에 스며든 흔적이 있어야 할 위치였다.

침투 흔적이 없었다. 비정상적으로 없었다.

시신이 이 자리에서 부패한 것이라면 삼출액은 중력 방향으로 토양을 타고 최소 10센티미터 이상 침투한다. 이 구덩이 바닥의 침투 깊이는 2센티미터 안쪽이었다. 부패가 여기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일정 단계까지 진행된 시신이 놓인 뒤 표면 접촉만 이루어진 것이다.

"시신 부패 진행 단계와 이 토양의 반응이 맞지 않습니다."

현장기록요원이 기록지에서 고개를 들었다.

"다른 장소에서 부패가 일정 단계까지 진행된 뒤 이곳으로 옮겨 묻혔습니다. 이 구덩이는 최초 사망 장소가 아니고, 부패 진행 장소도 아닙니다."

한시윤은 장갑을 벗었다. 오른손부터. 라텍스가 손목에서 벗겨지며 째깍 소리를 냈다.

"재매장입니다."

현장기록요원이 측정 자를 내려놓았다. 뭔가 기록하려다 멈췄다. 기록할 항목이 기존 양식에 없었다.

윤태건이 천막 안으로 들어왔다. 구덩이 가장자리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한 감정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현장기록요원이 말했다. 측정 자를 다시 집어 구덩이 가장자리를 가리켰다.

"구덩이 가장자리에서 뿌리 절단 흔적을 기록하려고 했는데—"

한시윤이 고개를 들었다.

"거의 없습니다. 이 위치 반경 30센티미터 안에 나무뿌리가 한 줄기도 잘려 있지 않습니다. 구덩이 크기에 비해서 뿌리 절단이 비정상적으로 적습니다."

구덩이 크기는 가로 110센티미터, 세로 65센티미터. 산속 토양에서 이 크기로 판다면 잔뿌리 최소 서너 줄기는 삽에 걸린다. 걸려서 잘린다. 그 흔적이 벽면에 남는다.

남아 있지 않았다.

윤태건이 한시윤을 돌아봤다. 한시윤은 구덩이 벽면을 보고 있었다. 뿌리가 없는 벽면. 잘린 흔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잘릴 뿌리가 없는 자리.

윤태건의 입이 반쯤 열렸다가 닫혔다. 이 구덩이가 최근에 파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얼굴을 스쳤다. 한시윤은 그 얼굴을 봤다.

아직 말하지 않았다.

=====

#12

윤태건이 돌아왔다.

한시윤은 구덩이 가장자리에 무릎을 대고 있었다. 출자를 뿌리 단면에 걸친 자세 그대로, 시선만 윤태건 쪽으로 올렸다.

"뿌리 절단 흔적이 거의 없다는 건, 최근에 삽이 들어간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윤태건이 현장감식관A에게서 받아 든 사진 세 장을 손가락으로 넘겼다. 삽자국 확대 사진. 구덩이 벽면 횡단면. 그리고 뿌리 노출부 전체를 잡은 광각 한 장.

"근데 시신은 여기서 나왔잖습니까."

"나왔죠. 문제는 순서입니다."

한시윤이 출자를 거뒀다. 장갑 낀 손가락 끝이 구덩이 안쪽 벽면의 뿌리 세 가닥을 차례로 짚었다. 첫 번째 뿌리. 단면이 둥글게 아물어 있었다. 잘린 면 위에 새 조직이 2밀리쯤 덮인 상태.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이 뿌리들, 잘린 뒤 재생 조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절단 후 최소 몇 달 이상 지난 상태예요."

현장감식관이 고개를 숙여 손전등을 비췄다. 불빛 아래서 뿌리 단면의 옅은 백색 조직이 드러났다. 둥글게 말려 올라간 가장자리. 나무가 상처를 스스로 봉합하려 한 흔적이었다.

"최근에 급하게 판 구덩이라면 이런 재생은 안 나옵니다. 삽이 뿌리를 칠 때 찢기고 으깨지고 섬유가 흐트러지죠. 여기엔 그 흔적이 없어요."

윤태건이 사진을 한 장 더 넘겼다. 구덩이 바닥에서 올려다 본 벽면 전체 컷.

"그러면 이 구덩이가 원래 있었다?"

"오래전에 한 번 파였다가, 나중에 다시 손댄 자리입니다."

한시윤이 일어섰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지 않았다. 줄자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면서 현장 기록지를 들었다. 현장감식관이 적어 놓은 보고 제목이 보였다. '산림 내 최근 매장 추정 구덩이.'

"윤 형사."

"예."

"보고 제목 바꾸십시오. '재사용 구덩이 의심'으로."

윤태건이 기록지를 받아 들었다. 펜 뚜껑을 이로 물어 뺐다. '최근 매장'을 한 줄로 그었다. 그 위에 '재사용 구덩이 의심'이라고 적었다. 글씨가 비뚤었다. 다시 쓰지 않았다.

현장감식관이 줄자를 감으며 중얼거렸다. "삼자국 보고 최근이라 생각했는데."

한시윤이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미 경사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

국과수 임시 검안 텐트는 발굴 현장에서 150미터 아래, 임도 옆 평지에 쳐져 있었다. 군용 방수 천 두 겹 사이로 형광등 불빛이 고였다. 입구 지퍼를 열자 포르말린과 습한 흙 냄새가 섞여 나왔다.

서민아가 시신 조직 사진을 스테인리스 트레이 위에 펼쳐 놓고 있었다. 장갑을 낀 손이 사진 여섯 장을 격자로 배열하는 중이었다. 부패 단계 기록지가 옆에 놓여 있었고, 현미경 사진 네 장이 별도 클립에 묶여 있었다.

한시윤이 들어왔다. 서민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조직만 보면 최근 매장이네요."

한시윤이 텐트 안쪽 접이식 의자에 앉지 않고 트레이 맞은편에 섰다.

"어디 기준입니까."

"피하지방 분해 속도. 진피-표피 박리 정도. 현재 외기온 기준으로 역산하면, 매장 후 2주에서 3주."

서민아가 사진 세 번째 장을 손가락으로 밀었다. 피하조직 횡단면 확대. 지방 조직이 왁스화되기 직전 단계로, 세포벽 붕괴가 진행 중이되 아직 비누화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였다.

한시윤이 사진을 들어 형광등 아래로 가져갔다. 3초. 내려냈다.

"조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덩이 토양이 안 맞아요."

토양 샘플 트레이를 끌어왔다. 네 칸으로 나뉜 트레이에 각각 깊이별 토양이 담겨 있었다. 표층 10센티, 20센티, 30센티, 40센티.

"시신 접촉면 토양에 침윤 양상이 거의 없습니다. 체액이 토양에 스며든 기간이 짧다는 뜻인데, 조직 분해 2~3주면 침윤 범위가 최소 15센티는 퍼져야 합니다."

서민아의 손이 부패 단계 기록지 위에서 멈췄다.

"침윤이 짧다?"

"5센티 미만입니다. 그리고 곤충이 없어요."

한시윤이 현미경 사진 클립을 풀었다. 네 장 중 두 장을 골랐다.

"시신 표면에 산란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시기, 이 고도, 이 식생이면 금파리류가 최초 접근하는 데 6시간이면 됩니다. 2주 매장이면 최소 2령 이상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곤충이 접근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

서민아가 사진을 가져가 현미경 사진과 나란히 놓았다. 조직 부패 단계. 토양 침윤 범위. 곤충 공백. 세 개의 시간축이 트레이 위에서 겹쳐졌다.

"시신의 진행 단계하고 구덩이의 시간축을 따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

서민아가 기록지에 펜을 대지 않고 잠시 사진만 봤다. 검안보조가 트레이 뒤에서 새 장갑을 꺼내다가 동작을 멈추고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들었다.

"부패는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서 진행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서민아가 펜을 들었다. 부패 단계 기록지 하단 비고란에 한 줄을 적었다. '토양 침윤 불일치. 곤충 공백. 현장 외 부패 진행 가능성.' 펜을 내려놓았다.

"이번 건 한 박사 쪽이 맞아요."

한시윤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대신 토양 트레이를 밀어 원위치시키고 현미경 사진을 클립에 다시 끼웠다.

서민아의 시선이 한시윤의 손을 따라갔다. 인정은 이미 끝났다. 더 붙일 말이 없었다.

---

임시 브리핑 테이블은 검안 텐트 바깥, 임도변 경찰 차량 보닛 위였다. 화이트보드 대신 A3 용지 네 장을 마그네틱으로 차체 옆면에 붙였다. 바람이 한 장을 들쳤고 형사가 손바닥으로 눌렀다.

한시윤이 도식 한 장을 가운데에 펼쳤다. 시신 이동 추정선. 점선 화살표가 해안 방면에서 산림까지 이어져 있었다.

"시신은 이 자리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다른 장소에서 일정 기간 보관됐거나, 부패가 진행된 뒤에 옮겨졌습니다."

윤태건이 팔짱을 풀었다. "보관이요?"

"시신은 최근처럼 보이는데, 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민아가 받았다. "조직 부패가 2~3주 수준으로 진행됐는데 토양 침윤이 없다는 건, 부패가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매장 시점을 최근으로 보이게 만든 거예요. 수사 시간축을 속이는 데 이용된 겁니다."

형사가 A4 용지에서 손을 떼지 못한 채 물었다. "그러면 실종 직후에 죽인 게 아니라—"

"보관 후 재매장입니다." 한시윤이 잘랐다.

윤태건의 시선이 도식 위의 점선 화살표를 따라갔다. 해안. 내륙. 산림. 세 구간이 화살표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실종 시점하고 매장 시점이 다르면, 조사를 둘로 쪼개야 합니다."

"피해자가 실종된 시점. 시신이 보관된 장소. 이 두 축을 따로 추적해야 합니다."

윤태건이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펜을 눌렀다. 실종 시점, 보관 장소. 두 줄을 적고 밑줄을 그었다.

"실종 시점부터 다시 잡겠습니다. 과거 실종 신고 자료 먼저 뒤져야겠네."

한시윤이 도식을 접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었고, 형사가 용지를 다시 눌렀다.

---

경찰서 기록보관실은 지하 1층이었다. 형광등 두 개 중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불빛이 끊길 때마다 보관함 사이 통로에 그림자가 찻다가 빠졌다.

기록관리원이 열쇠 묶음에서 세 번째 열쇠를 골라 보관함을 열었다. 금속 서랍이 레일을 타고 빠져나왔다. 안쪽에서 종이와 먼지가 섞인 냄새가 올라왔다.

윤태건이 서랍 안의 파일 인덱스를 손가락으로 훑었다. 연도별 탭. 2015 2016, 2017. 탭 사이를 넘겼다.

"여기 피해 시기 전후 6개월치 실종 신고 자료 주십시오."

기록관리원이 인덱스를 확인했다. 2017년 하반기 탭을 당겼다. 파일이 세 개 나왔다.

세 개.

윤태건의 손가락이 멈췄다. 탭 두께를 봤다. 앞뒤 연도 같은 기간 탭에는 파일이 열두 개에서 열다섯 개가 꽂혀 있었다. 2017년 하반기만 세 개.

"이게 전부입니까."

"전부입니다."

"6개월에 세 건?"

기록관리원이 복사본 대장을 펼쳤다. 윤태건이 시선을 옮겼다. 대장에 기록된 열람·복사 이력. 2017년 하반기 해당 구간. 비어 있었다. 열람자 란이 공백이 아니라, 행 자체가 없었다.

‘행이 빠졌다.’

한시윤이 서랍 반대쪽에서 출입 기록부를 넘기고 있었다. 같은 기간. 기록보관실 출입자 명단. 8월, 9월, 10월. 출입 기록 세 페이지가 통째로 빠져 있었다.

서민아가 복사본 대장을 받아 들었다. 앞뒤 페이지의 일련번호를 짚었다. 287. 다음 장이 291이었다.

"288, 289, 290이 없어요."

윤태건이 기록관리원을 봤다. "이 구간 자료 누가 빼 갔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제가 부임한 건 재작년입니다. 인수인계 때 이 상태였습니다."

한시윤이 출입 기록부를 닫았다. 소리가 보관실 통로를 짧게 울렸다.

"누가 자료를 비웠습니다."

윤태건이 서랍을 밀어 넣지 않았다. 파일 세 개가 들어 있는 서랍이 레일 위에 반쯤 빠져나온 채 멈춰 있었다.

형광등이 다시 깜빡였다. 불빛이 끊긴 0.5초 동안 서랍의 금속 면이 어둠 속에서 사라졌다가 돌아왔다.

윤태건의 손이 서랍 손잡이 위에 얽혀 있었다. 밀지도 당기지도 않았다. 서랍 안, 있어야 할 파일이 없는 빈 공간을 보고 있었다.

=====

## #13

자료함 서랍이 반쯤 열린 채 멈춰 있었다.

윤태건의 손이 금속 손잡이를 쥐 상태로 굳어 있었다. 서랍 안쪽, 2017년 하반기 실종 신고 접수 철. 인덱스 탭은 7월부터 12월까지 여섯 칸인데 9월과 10월 사이가 비어 있었다. 종이가 빠진 게 아니라 탭 자체가 없었다. 누군가 인덱스째 들어냈다.

"자료분석원."

뒤쪽 책상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던 자료분석원A가 고개를 돌렸다.

"2017년 9월, 10월 실종 신고 접수 건. 전산에는 남아 있습니까?"

자료분석원A가 키보드를 두드렸다. 잠깐 멈칫. 다시 쳤다. 화면을 향해 눈이 좁아졌다.

"전산에도 없습니다. 접수 번호 자체가 건너뛰어져 있어요. 8월 말 마지막 번호가 2017-실종-0847이고, 다음이 바로 11월 초 2017-실종-0871입니다."

스물네 건.

윤태건이 서랍에서 손을 뺐다. 손가락 끝에 묻은 먼지를 바지에 문질렀다.

한시윤은 그 옆에 서 있었다. 테이블 위에 펼쳐 놓은 것들—사건 발생 연표, 이번 암매장 시신의 포장재 사진, 시신 표면 확대 사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연표 위 빨간 마커 선이 2017년 9월에서 끊겨 있었다.

"윤 형사."

"예."

"이번 피해자 사망 추정 시기가 2017년 가을입니다."

윤태건이 빈 서랍을 다시 봤다. 입술이 한 번 움직였다가 다물어졌다.

한시윤이 포장재 사진을 집었다. 시신을 감싸고 있던 농업용 멀칭 필름. 그 단면 확대 사진에서 절단면이 두 군데 찍혀 있었다. 하나는 거칠게 찢긴 자국, 하나는 칼날로 일직선 재단한 자국. 같은 필름 위에 두 시점의 손이 겹쳐 있었다.

"한 번에 싼 게 아닙니다. 처음 감쌌을 때와 다시 손질했을 때가 다릅니다."

"다시 손질?"

"필름 바깥쪽 절단면은 깨끗합니다. 안쪽 절단면은 불규칙하고요. 바깥을 나중에 덧댄 겁니다."

윤태건이 사진 두 장을 나란히 놓고 들여다봤다. 절단면의 각도 차이가 눈으로도 보였다. 안쪽은 급했고 바깥쪽은 정돈돼 있었다.

"시신을 옮기면서 다시 포장했다는 겁니까."

"옮긴 것만이 아닙니다."

한시윤이 연표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2017년 9월. 빈칸.

"신고 기록을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신을 다시 포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우연이라고 부르기엔 손이 너무 깔끔하다.'

윤태건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등받이가 철제 벽면에 부딪히며 짧게 울렸다.

"한 박사. 이번 사건 하나만 달아도 큼니다. 재매장, 사망 시각 조작, 신원 은폐까지 다 나왔어요. 이것만으로 영장 충분합니다."

한시윤은 대답 대신 시신 표면 확대 사진을 한 장 더 꺼냈다. 피부 조직 위에 남은 압흔. 포장재 주름이 피부에 찍힌 자국인데, 방향이 두 개였다. 세로 주름과 사선 주름이 한 구역 안에서 교차하고 있었다.

"같은 필름으로 같은 방향에서 감았으면 주름 방향이 하나여야 합니다."

윤태건의 시선이 사진 위에 고정됐다.

"두 번 풀렸다가 두 번 감겼습니다. 최소."

형광등 하나가 끝쪽에서 깜빡였다. 지직, 하는 소리가 기록보관실 천장에서 떨어졌다.

한시윤이 사진들을 순서대로 정렬했다. 포장재 절단면, 피부 압흔, 누락된 신고 목록. 세 장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였다.

"누군가 오래전부터 흔적을 정리해 왔습니다."

---

수사상황실 화이트보드에 사진이 여덟 장 붙어 있었다.

왼쪽 네 장은 포장재 절편 확대. 오른쪽 네 장은 시신 표면 채취 사진. 가운데 빈 공간에 한시윤이 곤충 표본 사진 두 장을 나란히 고정했다. 자석이 보드 표면에 닿을 때 딸깍, 소리가 났다.

서민아가 보드 앞에 서 있었다. 시신 표면 채취 사진 중 세 번째를 손가락 끝으로 가리켰다.

"피부 조직 채취분에서 검출된 미생물 군집 구성이 이상합니다. 혐기성 분해균 비율이 매장 깊이 대비 과도하게 높아요."

"밀폐 환경에서 1차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후 토양에 노출됐다는 뜻입니까."

서민아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대신 데이터 시트를 보드 옆에 붙였다. 숫자가 빼곡했다.

"매장지 토양 온도와 습도로는 이 균 비율이 나올 수 없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부패가 먼저 진행됐고, 이후에 옮겨졌다는 해석이 성립합니다."

윤태건이 팔짱을 풀며 보드 쪽으로 한 발 다가섰다.

한시윤이 곤충 표본 사진 두 장 사이에 손을 올렸다.

왼쪽 사진. 포장재 안쪽 접힘부에서 채취한 유충. 등줄가시파리 2령. 서식 조건—실내, 온도 20도 이상, 습도 높은 밀폐 공간.

오른쪽 사진. 시신 복부 표면에서 채취한 유충 잔해. 큰금파리 후기 3령. 서식 조건—야외, 직사광 노출, 개방된 토양 위.

한시윤의 손가락이 두 사진 사이 빈 공간을 짚었다.

"이 두 종은 한 사건 안에서 같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서민아가 시선을 표본 사진에서 한시윤 쪽으로 옮겼다. 눈이 좁아졌다가 다시 사진으로 돌아갔다.

"등줄가시파리는 밀폐된 실내에서 시신 초기에 접근합니다. 큰금파리 후기 3령은 야외 노출 후 최소 사흘 이상 경과해야 이 크기가 됩니다.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는 공존할 수 없는 조합입니다."

윤태건이 입을 열려다 닫았다. 집게손가락이 허벅지를 한 번 두드렸다.

"비정상 혼재 패턴입니다."

한시윤의 목소리는 올라가지 않았다. 보드 위 두 사진을 번갈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포장재 내부의 종과 시신 표면의 종이 각각 다른 환경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밀폐 실내, 하나는 개방 야외. 이 시신은 최소 두 개의 환경을 거쳤습니다."

서민아가 데이터 시트 위 한 줄을 손톱으로 눌렀다.

"미생물 데이터와 일치합니다. 혐기성 분해가 선행된 후 호기성 환경에 재노출된 시퀀스. 한 현장에서 자연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드 위 사진 여덟 장과 표본 사진 두 장이 형광등 아래서 같은 빛을 받고 있었다. 전부 한 시신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그런데 가리키는 방향이 서로 달랐다.

'하나가 아니다. 장소도, 시간도.'

윤태건이 보드 앞에서 반 발짝 물러섰다. 숨을 한 번 내쉬었다. 목 뒤를 손바닥으로 문질렀다.

한시윤은 보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

브리핑이 시작됐을 때 상황실 안에는 다섯 명이 앉아 있었다.

한시윤이 보드 앞에 섰다. 현장 사진 출력본 네 장이 보드 상단에 가로로 붙어 있었다. 매장지 전경, 시신 발굴 직후, 포장재 해체 과정, 시신 안면부 근접.

"이번 암매장 사건의 조작 구조를 정리합니다."

한시윤이 보드 위에 마커로 선을 그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른 장소에서 사망이 진행됐습니다. 밀폐된 실내. 이후 시신을 보관 또는 이동했고, 최종적으로 현재 매장지에 재매장했습니다."

마커가 세 구간을 끊었다. 사망-보관-이동-재매장.

형사가 체포 영장 초안을 들고 있었다. 형사E가 옆에서 볼펜을 돌리고 있었다.

"피의자 특징은요?"

윤태건이 물었다.

"매장지 토지 소유자와 피해자 간 접점, 포장재 유통 경로 역추적, 두 갈래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영장 초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형사가 영장 초안 두 번째 페이지를 펼쳤다. 윤태건이 받아서 훑었다. 고개가 한 번 끄덕여졌다.

"이번 건은 닫힙니다."

한시윤이 그렇게 말했다. 보드 위 선 세 개를 한 번 더 짚었다. 사망, 이동, 재매장. 구조가 깔끔했다. 의문이 남는 구석 없이 사건 하나가 완결되는 형태였다.

옆에 있던 다른 형사가 볼펜을 멈추고 영장 초안에 서명란을 확인했다.

"깔끔하네요."

짧은 침묵. 한시윤이 마커 뚜껑을 닫았다.

"다만."

형사 둘의 시선이 동시에 올라왔다.

"즉흥 은폐가 아닙니다."

한시윤이 포장재 사진을 다시 가리켰다. 절단면 두 개. 안쪽의 거친 자국과 바깥쪽의 정돈된 자국.

"급하게 처리한 사람은 필름을 한 번만 감습니다. 이 시신은 최소 두 번 풀렀다가 두 번 감겼습니다. 주름 방향이 교차하고, 절단 도구도 달라요. 처음엔 손으로 찢었고, 나중엔 칼로 잘랐습니다."

윤태건이 영장 초안을 내려놓았다.

"두 번째 손질 때는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까."

"여유가 있었고, 방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습관이다. 이 손은.'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 끝입니다. 피의자 특정되고, 구조 입증되고, 영장 나가면 됩니다."

한시윤이 마커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누락된 실종 신고 스물네 건과 이 포장 습관이 같은 시기에 겹칩니다."

옆이 있던 형사가 볼펜을 내려놓았다. 다른 형사가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다. 가죽이 삐걱거렸다.

윤태건이 한시윤을 봤다.

"현장 수사와 자료 누락 쪽은 따로 가야 합니다. 이번 사건 수사선이 자료 쪽으로 번지면 영장 심사에서 초점 흐려집니다."

"맞습니다. 분리해야 합니다."

한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시선은 보드 왼쪽 끝에 붙어 있는 사진—포장재 안쪽 접힘부 확대—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 건은 이번 건대로 닫으십시오. 자료 누락선은 제가 별도로 물겠습니다."

윤태건이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다.

---

상황실에서 형사들이 나간 뒤, 불이 절반만 켜져 있었다.

한시윤이 보드 앞에 서 있었다. 윤태건이 의자에 앉은 채 파일철을 넘기고 있었다. 닫히지 않은 파일철. 이번 사건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 미제 목록이었다.

보드 위에 사진이 아직 남아 있었다. 곤충 표본 사진 두 장. 등줄가시파리와 큰금파리. 한 시신에서 나올 수 없는 두 종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윤태건이 파일철을 덮었다. 표지가 테이블에 닿을 때 둔탁한 소리가 났다.

무전기가 충전 거치대 위에서 빨간 불을 깜빡이고 있었다. 아무도 집지 않았다.

"한 감정관."

윤태건이 보드를 봤다. 두 장의 사진을.

"이런 패턴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한시윤은 보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부정하지 않았다. 설명도 하지 않았다.

오른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테이블 위에 놓인 다음 사건 파일—2017년 11월, 실종 신고 접수 번호 0871번—위로 손끝이 내려앉았다.

파일 표지 위에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다. 손가락 자국 하나가 찍혔다.

상황실 형광등이 한 번 깜빡였다. 다시 켜졌을 때 한시윤의 손은 이미 파일을 열고 있었다.

=====

#14

수색대원 하나가 통제선 테이프를 잡은 채 말했다.

"아이도 이미 끝났을 겁니다."

농로 위에 성인 시신이 덮개 아래 누워 있었다. 시신에서 열두 걸음 거리, 풀밭 위에 아동 신발 한 짝과 음식 포장지 세 장이 흩어져 있었다. 수색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입을 여는 대신 헬멧 턱끈을 고쳐 잡았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한시윤은 그 말을 듣고도 시신 쪽으로 가지 않았다.

아동 신발 앞에 쪼그려 앉았다. 신발 바닥을 뒤집지 않고, 신발 주변 반경 삼십 센티 안의 지면만 봤다. 오후 햇살이 비스듬하게 농로를 때리고 있었다. 풀 사이사이에 마른 흙이 갈라져 있었고, 그 갈라진 틈 위로 작은 개미 몇 마리가 일렬로 움직이고 있었다. 줄이 짧았다. 군집이 아니라 정찰 수준이었다.

한시윤의 시선이 거기서 멈췄다.

음식 포장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세 장 중 두 장은 바닥에 납작하게 눌러 있었고, 한 장은 반쯤 접힌 채 풀줄기에 걸려 있었다. 바닥에 눌린 두 장 위로 개미가 줄을 서고 있었다. 줄기 하나에 걸린 포장지에는 아직 개미가 없었다.

"윤 형사."

뒤에서 현장 사진기를 들고 서 있던 윤태건이 한 발 다가왔다.

"이 신발하고 포장지, 통제선 안에서 같이 나왔습니까?"

"예. 시신 수습할 때 같은 수색선에서 같이 걸렸습니다."

한시윤은 일어서지 않았다. 핀셋을 꺼내 바닥에 눌린 포장지 모서리를 살짝 들었다. 포장지 아랫면에 개미가 여섯 마리 붙어 있었다. 몸을 뒤집어 빛을 피하려는 동작이 느렸다. 이미 먹이원으로 인식하고 정착한 개체들이었다.

'정찰이 아니다. 이걸 정주 단계다.'

포장지를 내려놓고, 아동 신발 옆 풀 위의 개미 줄을 다시 봤다. 줄은 세 마리. 더듬이를 흔들며 방향을 잡는 중이었다. 탐색 초기.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놓였다면, 이 차이는 나지 않는다.

---

비닐하우스 옆에 음식물 더미가 쌓여 있었다. 누군가 며칠에 걸쳐 버린 것이 분명한 양이었다. 비닐 봉지, 컵라면 용기, 젖은 종이 박스. 그 위로 개미 군집이 촘촘하게 형성돼 있었다. 한시윤은 채집병 두 개를 바닥에 놓고 핀셋으로 개미 세 마리를 집었다. 기록 패드에 종, 크기, 활동 반경을 적었다.

윤태건이 옆에 서서 기다렸다.

"이쪽 음식물 더미는 군집이 완성됐습니다. 먹이원 인식부터 정주까지 최소 삼일 이상."

"삼일."

"기온, 습도 감안하면 나흘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시윤이 몸을 돌렸다. 아동 신발이 놓였던 농로 쪽을 가리켰다.

"그런데 아이 물건 주변은 정찰 단계입니다. 군집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탐색 초기 개체만 서넛."

현장지원요원이 기록 패드를 들고 한시윤 뒤에서 받아 적고 있었다. 펜이 멈췄다.

"같은 현장, 같은 시간에 놓였다면 이 차이는 설명이 안 됩니다."

윤태건이 턱을 당겼다.

'아이 쪽이 더 늦다.'

"아이 쪽 시간은 더 짧습니다."

한시윤은 채집병 뚜껑을 닫았다. 손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다. 핀셋을 넣고, 채집병을 가방 안쪽 칸에 세웠다.

"음식 포장지 바닥면의 개미 정주 밀도와, 신발 주변 개미 활동 단계가 최소 이틀 이상 차이납니다. 같은 시간에 버려진 물건이 아닙니다."

윤태건이 성인 시신 쪽을 봤다.

"그러면 아이 물건은 나중에 놓인 거란 말입니까?"

"아니요. 아이가 나중까지 여기 있었던 겁니다."

---

성인 시신 곁으로 돌아왔다.

덮개를 걷지 않았다. 한시윤은 시신 바로 옆 흙 위에 놓인 채집 컵을 먼저 확인했다. 검시요원이 먼저 채집해 둔 것이었다. 컵 안에 파리 유충 네 마리가 들어 있었다. 한시윤이 컵을 기울여 빛 아래로 가져갔다. 유충의 체절을 세었다. 후기 2령에서 3령 초기 사이. 색은 유백색에서 크림색으로 넘어가는 단계.

"검시요원, 시신 주변 온도 기록 있습니까?"

"오전 수습 시점 기준 지표면 이십삼도였습니다."

한시윤이 유충 크기를 기록 패드에 적었다.

"이십삼도 기준 2령 후기에서 3령 초기까지 도달하려면 최소 사십팔 시간. 시신은 이틀 넘게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검시요원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시윤은 패드를 내려놓고 윤태건을 봤다.

"성인 시신의 곤충 단계는 노출 이틀 이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아이 물건 주변은 하루도 안 됐어요."

윤태건이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지 않았다.

"먼저 죽은 건 성인입니다."

한시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지 않았다.

"아이는 성인이 죽은 뒤에도 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훨씬 늦게까지. 그리고 아이 물건 주변 곤충 접근 단계로 보면, 아이가 그 자리에 물건을 남긴 건 하루도 채 안 됩니다."

검시요원의 손이 채집 컵을 잡은 채 굳었다.

"수사팀이 아동도 사망으로 잡고 수색 반경을 설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윤이 말을 끊지 않고 이었다.

"수색 반경이 틀렸습니다."

윤태건이 현장 지도를 펼쳤다. 빨간 원이 페비닐하우스를 중심으로 반경 오백 미터를 감싸고 있었다. 사망 추정 기반 수색 범위.

"아이는 살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반경은 시신 기준입니다. 아이 기준이 아닙니다."

뒤에서 수색대원의 무전기가 지직거렸다.

한시윤은 그 소리를 무시하고 윤태건의 지도 위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아직 버리면 안 됩니다."

---

윤태건이 무전기를 들었다.

"수색선 전원 일단 정지. 반복한다, 전원 정지."

무전 너머로 형사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무슨 상황입니까?"

"수색 반경 재설정. 기존 사망 추정 기반 범위 폐기. 아동 생존 가능성 기준으로 바꾼다."

잠깐 정적이 흘렀다. 형사가 다시 물었다.

"근거가 뭐니까?"

"한 감정관 현장 판단이다. 설명은 내가 한다. 일단 멈춰."

윤태건이 무전기를 내리고 한시윤을 봤다. 한시윤은 이미 비닐하우스 외곽을 돌고 있었다. 손전등을 켜고 바닥을 훑었다.

비닐하우스 안은 무너진 골조와 찢어진 비닐이 겹쳐져 있었다. 그 안에서 오래 방치된 냄새가 흘러나왔다. 한시윤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외곽을 따라 걸었다. 비닐하우스 뒤편, 배수로로 이어지는 경사면이 나왔다.

경사면 아래 콘크리트 배수로가 어둡게 입을 벌리고 있었다. 폭은 성인 어깨 너비. 높이는 무릎 위. 아이라면 들어갈 수 있는 크기.

한시윤이 손전등을 배수로 입구에 비췄다.

배수로 벽면에 이끼가 붙어 있었다. 오래된 이끼. 표면이 마른 채 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런데 입구에서 사십 센티 안쪽, 벽면 하단에 이끼가 굵혀 나간 자리가 있었다. 폭이 좁았다. 손가락 두세 개 너비. 굵힌 자리 아래 콘크리트가 하얗게 드러나 있었다.

수색대원이 뒤에서 다가왔다. 한시윤이 손을 들어 멈추게 했다.

'건드리면 안 된다.'

벽면을 따라 손전등을 천천히 내렸다. 배수로 바닥 가장자리에 물기가 조금 남아 있었다. 그 물기 위에 작은 벌레들이 흩어져 있었다. 한시윤이 몸을 낮췄다. 배수로 입구에 엎드리다시피 해서 손전등 각도를 바꿨다.

벌레들의 배치가 불규칙했다.

배수로 안쪽 벽면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입구 쪽은 끊어져 있었다. 안쪽은 온전했다. 끊어진 거미줄의 끝이 벽에서 떨어져 축 늘어져 있었다. 끊어진 단면이 깨끗하지 않았다. 물리적으로 밀려서 끊긴 형태.

"윤 형사."

윤태건이 한 걸음 앞으로 왔다.

"배수로 입구 거미줄이 끊어져 있습니다. 안쪽은 살아 있고, 입구만 끊겼어요."

"바람 아십니까?"

"바람이면 안쪽도 흔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시윤이 손전등을 바닥 가장자리로 내렸다.

"이 벌레들, 배수로 안에 정착해 있던 개체입니다. 습한 환경 선호종이에요. 원래라면 벽면 틈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바닥에 흩어진 벌레 중 두 마리가 등을 보이며 뒤집혀 있었다. 다리를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 개체들이 바닥으로 떨어진 건 뭔가가 벽면을 건드리면서 부착면을 흔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뒤집힌 채 아직 살아 있어요."

살아 있다.

"교란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오래 방치된 정적이 아닙니다. 여기를 뭔가가 지나갔어요."

윤태건의 턱이 굳었다.

한시윤이 엎드린 자세에서 고개만 돌렸다. 배수로 안쪽 어둠을 손전등으로 더 깊이 밀었다. 빛이 삼미터쯤 들어간 지점에서 바닥에 뭔가 작은 것이 놓여 있었다. 형체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빛 반사로 보아 비닐이거나 천이었다.

한시윤은 일어서며 윤태건을 봤다.

"배수로랑 인접 구조물 쪽으로 수색선 꺾으십시오."

윤태건이 무전기를 들었다.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시윤이 한 마디 더 했다.

"최근입니다."

윤태건이 버튼을 눌렀다. 배수로 안쪽 어둠 속에서 뒤집힌 벌레 한 마리가 느리게 다리를 접었다. 손전등 불빛이 콘크리트 벽을 타고 안으로 더 깊이 밀려 들어갔다.

=====

#15

배수로 입구 콘크리트 벽면에 손전등을 댔을 때, 빛이 닿은 면적은 손바닥 두 개 정도였다.

한시윤은 빛을 움직이지 않았다. 벽면 이음새를 따라 붙어 있는 것들의 윤곽이 먼저 잡혔다. 쉬파리과 유충 세 마리. 벽면 습기층 위에 올라앉아 있었는데, 자리를 잡고 먹이를 파고든 형태가 아니었다. 몸을 웅크린 채 표면에 걸쳐 있을 뿐이었다. 정착이 아니라 부착이다.

집게 끝으로 한 마리를 들었다. 채집병 입구에 대기 전에 체장부터 봤다. 7밀리. 2령 초반이다.

'정착 군집이면 3령 이상이 섞여야 한다. 알에서 부화한 뒤 이 온도에서 2령 초반까지는 길어야 이틀. 오래 있던 자리가 아니다.'

"한 감정관."

윤태건이 배수로 입구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쪽 손에 무전기, 다른 손에 형광 표시봉. 꽂지 않고 들고만 있었다.

"오래 있던 자리가 아닙니다."

한시윤이 채집병 뚜껑을 돌려 닫으며 말했다. 윤태건이 표시봉을 왼 손을 내렸다.

"얼마나 짧습니까?"

"이틀 이내. 유충 성장 단계가 정착 패턴에 못 미칩니다. 여기 오래 두려고 한 게 아니라, 옮기는 중간에 거친 자리입니다."

윤태건이 배수로 안쪽 어둠을 봤다가 고개를 돌렸다. 입구 왼쪽으로 콘크리트 옹벽이 꺾이고, 그 너머로 무너진 적재 구조물의 골조가 보였다. 오른쪽에는 비닐하우스 잔해 사이로 버려진 차량 한 대가 주차된 채 녹슬어 있었다.

"안쪽이 아니라 밖입니다. 연결 지점. 이 배수로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가 문제예요."

"수색대원." 윤태건이 무전기를 들었다.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빨라졌다. "배수로 내부 수색 중단. 출구 기준 반경 50미터, 인접 구조물 입구와 주차 차량 내부 우선 확인. 형광봉 배수로 입구에 하나 꽂고 이동."

무전 응답이 돌아오기 전에 윤태건은 이미 오른쪽 차량 방향으로 몸을 틀었다. 수색대원 한명이 형광 표시봉을 배수로 입구 바닥에 찔러 넣고 뒤따랐다. 다른 수색대원은 왼쪽 구조물 진입 경로를 잡았다.

한시윤은 손전등을 끄지 않은 채 차량 쪽으로 걸었다. 발밑에 자갈과 깨진 관개 파이프 조각이 섞여 있었다. 한 발짝마다 파이프 모서리가 부딪히는 짧은 소리가 났다.

똑. 똑.

차량까지 열두 걸음. 봉고 트럭이었다. 회색이었을 색이 녹 위에 겹쳐져 판별이 어려웠다. 뒷문은 반쯤 열린 상태로 고정되어 있었고, 문짝 하단 경첩이 빠져 있었다. 열려고 열린 게 아니라, 닫히지 못한 문이다.

한시윤이 뒷문 하단 프레임에 손전등을 비췄다.

"윤 형사."

윤태건이 한 발 뒤에서 멈췄다.

"문 손잡이 잡지 마십시오. 안쪽 시트 표면부터 봐야 합니다."

차량 내부는 좁았다. 적재 공간 바닥에 비닐 시트가 깔려 있었는데, 모서리 두 군데가 접혀 올라가 있었다. 한시윤이 뒷문 프레임을 넘지 않고 손전등만 안으로 넣었다. 빛이 비닐 표면을 훑었다.

시트 중앙부에 유충이 있었다. 다섯 마리.

한시윤은 빛의 각도를 바꾸지 않고 그 자리에서 체장을 눈으로 잴다. 4밀리 전후. 1령 말에서 2령 진입 직전.

'배수로 벽면은 2령 초반. 여기는 1령 말. 같은 종인데 단계가 다르다. 차량 쪽이 더 짧다.'

"시트 위에 유충 다섯. 배수로보다 성장 단계가 한 단계 낮습니다."

윤태건이 차량 옆에서 손전등을 들었다가 내렸다. 안을 직접 비추지 않았다. 기다리는 자세였다.

"뜻이 뭘니까."

"아이가 이 차에 오래 있지 않았습시다. 배수로보다 체류 시간이 짧아요. 순서가 배수로 먼저, 차량은 그 다음이고, 차량에는 잠깐 옮겨졌다가 다시 빠져나온 겁니다."

형사가 차량 앞쪽에서 운전석 문을 확인하고 있었다. 잠겨 있었다.

"감금 장소가 아니란 겁니까?"

한시윤이 채집 집계를 꺼내 비닐 시트 접힌 부분을 벌렸다. 접힘선 안쪽에 미세한 토양 입자가 묻어 있었다. 손전등 빛 아래서 붉은 점토질이 보였다. 배수로 벽면의 회색 퇴적토와 색이 달랐다.

"장기 감금이 아니라 급히 옮기다 실패한 겁니다."

윤태건의 턱이 움직였다. 씹듯이 한 번.

한시윤이 증거 봉투를 열어 시트 접힌 부분의 토양 입자를 채집했다. 봉투 겉면에 유성펜으로 위치와 시각을 적었다. 펜촉이 비닐 위를 긁는 소리가 차량 안에서 짧게 울렸다.

"옮기려다 실패했으면, 아이는 지금 이 반경 안에 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멀리 못 갔어요. 수색선 더 좁힙니다."

윤태건이 무전기를 잡았다. 이번엔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시윤을 봤다.

"어디."

"차량 뒤쪽, 구조물 후면. 사각지대."

---

윤태건이 먼저 움직였다. 구조 장갑을 이미 끼고 있었다. 차량 뒤를 돌아 인접 구조물 후면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랐지만, 뛰지는 않았다. 자갈을 밟는 소리가 일정했다. 훈련된 보폭이었다.

구조물 후면은 블록 벽과 비닐하우스 골조 잔해가 겹쳐진 틈이었다. 폭이 60센티쯤 되는 좁은 공간이 벽과 골조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다. 바닥에 잡초가 눌러 있었다. 최근에 눌린 형태. 뿌리가 꺾이지 않고 옆으로 뉘어져 있었다.

'무게가 작다. 성인이 아니다.'

"손전등 끄십시오."

한시윤이 뒤에서 말했다. 윤태건이 돌아봤다.

"뭐?"

"빛이 직접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래 어둠에 있었으면 갑자기 강한 빛에 경직됩니다. 소리도 낮추십시오."

윤태건이 손전등을 켰다. 수색대원이 절단기를 들고 접근하다 멈췄다. 또 다른 수색대원이 뒤에서 구급 담요를 꺼내 들었다.

한시윤이 앞으로 나섰다. 자신의 손전등을 바닥을 향해 비스듬히 꺾었다. 빛이 틈새 안을 직접 비추지 않고, 바닥에 반사된 약한 잔광만 안쪽으로 들어가게 했다.

잔광 안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작았다. 웅크린 형태. 블록 벽 모서리와 골조 파이프 사이의 가장 좁은 지점에 몸을 밀어 넣고 있었다. 무릎을 가슴에 붙인 채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귀를 막고 있었다.

숨소리가 들렸다. 빠르고 얇았다.

한시윤은 멈췄다. 한 발 물러섰다. 무릎을 꿇었다. 천천히.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났다. 마른 소리. 한시윤은 그 자세에서 손전등 각도를 한 번 더 낮췄다. 빛이 자신의 손등만 비추게 했다. 얼굴은 어둠 속이었다.

아이가 손가락 사이로 한쪽 눈을 열었다.

한시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5초. 10초. 아이의 숨소리 간격이 조금 길어졌다. 한시윤이 오른손을 천천히 들었다. 손바닥을 보여주듯 펴서 아이 시선 높이에 맞췄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가 귀에서 한쪽 손을 내렸다. 한시윤의 손을 보고 있었다. 한시윤이 그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천천히 뒤로 뺐다.

윤태건이 뒤에서 무전기 송신 버튼 위에 엄지를 올려놓고 누르지 않았다. 숨을 참고 있었다.

아이가 무릎에서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보였다. 흠이 묻어 있었다. 이마에서 턱까지, 한쪽은 마른 흠이고 다른 쪽은 습기에 번진 자국이었다. 눈은 부어 있었지만 열려 있었다.

한시윤이 한 마디만 했다. 낮게. 바닥에 무릎을 꿇은 자세 그대로.

"나왔어."

아이가 움직였다. 골조 파이프를 잡고 몸을 밀었다. 파이프가 흔들리면서 금속 울림이 짧게 퍼졌다. 한시윤은 손을 내밀지 않았다. 아이가 스스로 기어 나올 수 있는 폭이 되는지를 먼저 봤다. 됐다. 아이의 어깨가 틈을 빠져나왔다.

윤태건이 무전기 버튼을 눌렀다.

"확보. 생존. 구급 투입."

---

구급 담요가 아이 어깨 위에 올라간 건 32초 뒤였다. 수색대원H가 담요를 펼치는 동안 한시윤은 반보 뒤로 물러나 있었다. 근처의 구급대원이 임시 구급차에서 뛰어나와 산소 마스크와 체온계를 동시에 들고 왔다.

아이는 앉은 자세였다. 서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다른 구급대원이 왼쪽에서 팔을 잡아 구급차까지 이동시키려 했고, 아이가 몸을 움츠렸다. 접촉 거부.

"천천히." 한시윤이 구급대원 쪽을 보며 말했다.

구급대원이 손을 뗐다. 아이가 스스로 한 발, 또 한 발 구급차 뒤 개방된 공간까지 걸었다. 좌측 발을 끌었다. 맨발이었다. 발바닥에 자갈 자국이 찍혀 있었다.

구급차 뒤 조명 아래 있던 구급대원이 체온을 잰다. 35.8도. 저체온 경계. 산소 마스크를 아이 코 앞에 갖다 대자 아이가 고개를 돌렸다. 구급대원은 강요하지 않고 마스크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윤태건이 형사에게 몸을 돌렸다. 목소리를 줄이지 않았다. 줄일 필요가 없었다.

"차량 보존. 뒷문 프레임, 시트 전체 지문 채취. 운전석 잠금 해제하지 말고 견인 요청. 배수로 입구부터 차량까지 동선 전부 통제."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차량 쪽으로 돌아갔다.

한시윤은 구급차 옆에 서 있었다. 아이와 시선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한쪽 무릎을 다시 꿇었다. 주머니에서 생수병을 꺼냈다. 미개봉. 뚜껑을 열지 않은 채 아이 앞 바닥에 놓았다.

아이의 물병을 봤다. 3초. 손을 뻗어 집었다. 뚜껑을 스스로 돌려 열었다. 한 모금 마시고, 병을 무릎 위에 올렸다.

한시윤은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일어서며 장갑을 벗었다.

'살아 있다. 판독이 맞았다.'

그 생각을 끝까지 밀지 않았다. 뒤에 남은 것이 있었다.

---

한시윤이 다시 차량으로 돌아간 건 구급대원이 아이 활력 징후를 안정 확인한 직후였다. 형사가 차량 뒷문 프레임 지문 채취를 시작하고 있었다. 한시윤은 아까 봉투에 넣지 않았던 시트 아래쪽, 접힘선 반대편을 손전등으로 비췄다.

비닐 시트 하단, 적재 공간 바닥 프레임과 맞닿은 모서리.

유충이 두 마리 더 있었다. 아까 확인한 다섯 마리와 같은 위치대가 아니었다. 프레임 홈 안쪽에 끼어 있었다.

한시윤이 집게를 넣어 한 마리를 들어 올렸다. 채집병 입구에서 빛을 비췄다.

손이 떴다.

종이 달랐다.

시트 위 다섯 마리는 검정파리과였다. 프레임 흙의 이 두 마리는 쉬파리과인데, 체색이 다른 아종이었다. 한시윤이 채집병을 기울여 복부 마디를 확인했다. 기문 형태가 내륙 저온 서식종과 일치했다.

'이 시기, 이 지역 온도에서 이 종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검정파리과 유충은 이 현장 온도와 습도에서 자연 발생이 가능했다. 맞다. 그런데 프레임 안쪽의 쉬파리 아종은 해안성 저온대에서 산란하는 종이다. 이 내륙 현장에서 자연 유입될 확률은 거의 없다.

두 종이 같은 차량 안에 있다.

한시윤은 채집병 두 개를 나란히 들었다. 하나는 시트 위 검정파리. 하나는 프레임 쉬파리. 손전등 빛 아래서 둘을 번갈아 봤다.

'또 이 조합이다.'

윤태건이 차량 옆으로 왔다. 한시윤의 표정을 읽으려 했다. 읽히는 것은 없었다. 다만 채집병 두 개를 동시에 들고 있는 자세가 평소와 달랐다. 평소에는 하나를 닫고 다음을 연다. 지금은 둘 다 열린 채였다.

"뭐가 나왔습니까."

"비정상 혼재입니다."

윤태건이 그 단어를 씹었다. 전에 들은 적이 있었다. 한시윤이 이 표현을 쓸 때의 맥락을 기억하고 있었다. 한 번도 좋은 뜻이었던 적이 없다.

"이 차량, 아이를 옮긴 사람이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시신이나 사람을 처리한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 곳에서 작업한 흔적이 다른 현장으로 물어 나온 겁니다."

윤태건은 구급차 쪽을 돌아봤다. 담요를 두른 아이가 구급대원 옆에 앉아 있었다. 물병을 쥐 손이 보였다.

"단발이 아니란 소리입니까."

한시윤이 채집병 뚜껑을 닫았다. 하나, 그리고 다른 하나. 두 번의 딸깍 소리가 밤 공기 안에서 짧게 울렸다.

"이 사건 뒤에 더 있습니다."

윤태건의 턱이 굳었다. 무전기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졌다. 잠깐이었다. 이를 악물었다 풀었다.

한시윤은 채집병을 증거 봉투 안에 넣고 봉투 겉면에 다시 유성펜을 댔다. 쓰다가 멈췄다. 펜을 내려놓지 않은 채 구급차 쪽을 봤다.

아이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구급차 뒤 개방 공간의 조명이 아이 얼굴 절반을 비추고 있었다. 나머지 절반은 담요 그림자 안에 있었다. 흠이 묻은 이마. 부은 눈. 그 눈이 한시윤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의 입이 움직였다.

소리가 작았다. 구급대원이 못 들을 정도로.

"벌레 박사 아저씨."

한시윤의 펜이 봉투 위에서 멈춰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1초. 2초.

펜을 다시 움직여 기록을 마쳤다. 봉투를 밀봉하고 일어섰다.

표정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봉투를 주머니에 넣는 손이, 아까 틈새에서 아이를 기다릴 때와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깨질 것을 다루듯.

윤태건이 그것을 봤다. 말하지 않았다.

밤 공기가 차량 위로 내려앉았다. 배수로 쪽에서 벌레 소리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 구급차 조명이 현장을 작은 섬처럼 밝히고 있었고, 그 섬 밖은 전부 어둠이었다.

=====

#16

물이 아직 벽을 타고 흘렀다. 검은 물이었다. 그을음과 소화약제가 뒤섞여 바닥에 고인 웅덩이마다 기름 같은 막이 떠 있었고, 한시윤은 통제선 안쪽으로 들어서면서 장갑 끝을 이빨로 잡아당겨 조였다.

소방감식관이 먼저 와 있었다. 현장통제요원 둘이 잔해 사이에 테이프를 두르고 있었고, 그 너머 바닥에 방염포가 덮인 형체 하나가 보였다.

한시윤은 그쪽으로 곧장 가지 않았다.

손전등부터 켜다. 광원을 낮게, 바닥과 거의 수평으로 깔았다. 빛이 그을린 콘크리트 표면을 훑자 잔해 입자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상태로 시신까지의 거리를 재듯 천천히 걸었다. 세 걸음. 네 걸음. 다섯째 걸음에서 멈췄다.

방염포를 걷지 않았다. 대신 시신의 하반신 쪽, 무릎이 접혀 있는 부위의 아래쪽 가장자리만 손전등으로 비췄다.

"윤 형사."

뒤에서 잔해를 밟는 소리가 멈췄다. 윤태건이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며 다가왔다.

"접힌 안쪽 보니다."

한시윤은 핀셋을 꺼냈다. 방염포를 들추지 않고 접힌 무릎과 허벅지 사이의 틈새로만 손전등을 밀어 넣었다. 불빛이 좁은 간극을 파고들자 그을음이 묻지 않은 피부 한 줄이 드러났다. 오금 안쪽, 화염이 직접 닿지 못한 접힘선.

거기에 있었다.

산란 흔적. 알 덩어리가 피부 주름 사이에 줄지어 박혀 있었다. 백색에 가까운 작은 입자들이 0.5밀리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었고, 한시윤은 핀셋 끝으로 그 옆의 피부 표면을 가볍게 눌렀다. 알 덩어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건조한 접촉. 시간이 지난 산란이었다.

'이건 화재 후 접근이 아니다.'

불이 나면 열이 곤충을 쫓는다. 진화 뒤 온도가 내려가야 초기 접근군이 돌아온다. 그런데 이 산란은 접힌 안쪽에 있다. 화염이 닿지 않은 면에, 이미 건조가 진행된 상태로.

"한 감정관, 뭐가 보입니까."

윤태건이 어깨 너머로 비집고 들어왔다. 한시윤은 손전등 각도를 2도쯤 틀었다. 알 덩어리의 윤곽이 또렷해졌다.

"이 벌레는 불 다음에 온 게 아닙니다. 불 이전에 왔습니다."

".....화재 전이요?"

"이미 멈춘 몸을 먼저 찾은 흔적입니다."

윤태건이 입을 다물었다. 1초. 2초. 마스크를 다시 올리더니 뒤를 돌아봤다. 통제선 바깥에 서 있던 소방감식관 쪽을 한 번 훑고, 다시 한시윤을 봤다.

"통제선 유지합니까?"

"넓히세요. 건물 후면까지."

윤태건은 대구 없이 걸어갔다. 잔해를 밟는 발소리가 빨라졌다.

한시윤은 핀셋 끝에 알 덩어리 하나를 분리해 샘플 튜브에 넣었다. 뚜껑을 닫는 손가락 끝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다. 튜브를 빛에 비춰 들었다. 백색 알갱이. 크기 균일. 산란 후 최소 이십 시간 이상 경과한 상태.

금속이 식으면서 갈라지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툭, 터졌다.

---

임시 감식 구역은 건물에서 삼십 미터 떨어진 공터였다. 소방 호스가 아직 바닥에 풀려 있었고, 서민아는 그 옆에 접이식 테이블을 펴고 시신 위치 도면을 깔아놓고 있었다.

한시윤이 샘플 튜브를 내려놓자 서민아는 도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화재 영향으로 일반 부패 시계가 거의 날아갔어요. 피부 표면 온도 기록도 의미 없고, 시반 분포도 열에 교란돼서."

"압니다."

"그런데 샘플을 벌써 뽑은 거예요?"

한시윤은 튜브를 테이블 위에 세워 놓았다. 옆에 채집 카드를 꺼내 시신 도면 위의 접힘 부위에 포인트를 찍었다.

"접힌 안쪽은 외부보다 덜 탔습니다."

서민아가 처음으로 도면에서 고개를 들었다. 확대경을 집었다. 한시윤이 밀어 놓은 튜브를 빛 아래에 가져갔다.

침묵이 삼 초 이어졌다.

"이게 접힘 안쪽에 있었어요?"

"오금 주름 사이. 화염 직접 노출면이 아닌 곳."

서민아는 확대경을 내려놓지 않았다. 알 덩어리의 배열, 크기, 건조도를 훑었다. 입술이 얇게 눌렀다.

"산란 후 경과 시간을 보면—"

"최소 스무 시간. 현장 온도 보정하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각이 어젯밤 열한 시 사십 분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한시윤은 채집 카드 위에 숫자를 적었다. 화재 발생 시각에서 이십 시간을 역산한 시점.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멈추자 서민아가 그 숫자를 읽었다.

"그러면 이 시신은 화재보다 하루 가까이 먼저—"

"먼저 죽은 몸입니다."

서민아의 손이 확대경 위에서 떴다. 잠깐. 다시 내렸다.

'불이 모든 시간을 지운 게 아니다. 접힌 부위가 시간을 봉인한 거다.'

한시윤은 도면 위의 시신 자세를 다시 짚었다. 무릎이 접혀 있었다. 옆으로 누운 채. 화염은 위에서부터 먹었고, 접힌 안쪽은 불이 늦게 도달했다. 그 시간차가 곤충의 초기 산란을 보존한 것이다.

감식관 한 명이 멀리서 기침을 했다. 매캐한 공기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서민아가 체온 기록지를 뒤집었다. 화재 전 외기 온도, 건물 내부 추정 온도, 진화 후 잔존 열량. 숫자들을 훑더니 한시윤의 채집 카드 위에 자기 펜으로 두 번째 보정값을 적었다.

"산란 시점 보정하면 이십이 시간에서 이십여섯 시간 사이예요. 화재 전날 낮이나 이른 오후."

"그렇습니다."

"초기 산란군 중 동정은요?"

"현장 광원으로는 속까지 못 봅니다. 국과수 가져가서 현미경 확인 필요합니다. 다만."

한시윤이 튜브를 다시 들었다. 빛 아래에서 알 덩어리의 표면을 비스듬히 비췄다.

"알 크기와 배열 간격으로 보면 검정파리와 초기 접근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재 후 유입되는 고온 선호 종이 아닙니다."

서민아가 펜을 내려놓았다. 잠깐 한시윤의 손을 봤다. 튜브를 잡은 손가락이 안정적이었다. 떨림 없음. 그늘음만 묻어 있었다.

"이번 건 한 감정관 쪽이 맞는 것 같아요. 화재 사망으로 묶으면 시간축이 안 맞아요."

한시윤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튜브를 샘플 봉투에 넣고 봉인 테이프를 붙였다.

---

남필구는 초기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다.

현장 가장자리에 세워 놓은 접이식 의자 두 개, 그 위에 깔린 통제선 지도. 소방팀장이 옆에 서서 자기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고, 남필구는 시신 배치도를 보면서 보고서 첫 장의 '사인 추정란'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질식 후 화재 사망. 소방 감식도 같은 판단이고."

한시윤이 도착했다. 남필구는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한 감정관, 곤충 쪽 소견 있으면 참고란에 달아. 본 결론은 화재 사망으로 가니까."

"결론이 틀렸습니다."

남필구의 손가락이 보고서 위에서 멈췄다. 소방팀장이 고개를 돌렸다.

한시윤은 채집 카드를 남필구 앞에 내밀었다. 카드 위에 적힌 숫자 두 줄. 산란 추정 시점, 그리고 화재 발생 시각.

"시신 하반신 접힘 안쪽에서 초기 산란 흔적을 채집했습니다. 알 덩어리의 건조도와 경과 시간을 역산하면, 이 시신의 사망 시점은 화재 발생보다 최소 스무 시간 이상 앞섭니다."

남필구가 카드를 받아 들었다. 숫자를 읽었다. 읽고 나서 내려놓았다.

"곤충 자료만으로 사망 시각을 확정하기엔—"

"확정이 아니라 부정입니다. 현재 결론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소방팀장이 끼어들었다. "화재 현장에서 곤충 산란을 근거로 사망 시각을 다시 잡겠다는 겁니까? 열에 의한 변수가—"

"열이 닿지 않은 부위를 봤습니다."

한시윤은 소방팀장을 보지 않았다. 남필구를 보고 있었다.

"접힌 안쪽은 화염 직접 노출면이 아닙니다. 피부 표면의 알 덩어리는 열 교란을 받지 않았고, 산란 후 경과 시간은 명확합니다."

'쓸모없는 말을 늘릴 시간이 없다.'

"이 사람은 불이 나기 전에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불은 늦었습니다."

남필구가 보고서를 덮었다. 닫은 게 아니라 덮었다. 소방팀장은 뭔가 말하려다 한시윤의 얼굴을 봤다. 거기엔 설득하려는 표정이 없었다. 팩트를 읽어 준 사람의 무표정만 있었다.

"소방 감식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면 교차 검증을 해야지, 현장에서 바로—"

"교차 검증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신이 화장장으로 가면 끝입니다."

한시윤이 말을 잘랐다. 남필구의 손이 보고서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다.

"한 감정관."

"예."

".....참고 소견이 아니라 공식 이견으로 넣겠다는 거지?"

"이건 화재 사망이 아니라 사망 후 방화입니다."

소방팀장의 어깨가 굳었다. 남필구는 한시윤을 삼 초 동안 봤다. 보고서를 다시 펼쳤다. 사인 추정란 옆에 여백이 있었다. 거기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보고서를 접어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거부도 수용도 아닌 보류. 관료의 습관이었다.

---

건물 후면 잔해 더미 앞에 시신 번호표가 꽂혀 있었다. 1번. 현장정리반원 셋이 잔해 반출 카트를 끌고 와 멈춰 서 있었다.

윤태건이 그 앞을 막고 있었다.

"반출 잠깐 묶어. 감정관 확인 끝나고."

"형사님, 저희 반출 순서가—"

"순서 내가 바꿨어. 위에 얘기됐어."

반원이 카트 손잡이를 잡은 채 멈췄다. 윤태건은 돌아서며 한시윤을 봤다.

"시간 벌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한시윤은 잔해 더미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번호표 1번 옆, 시신이 있던 자리의 바닥을 손전등으로 비췄다. 이미 시신은 옮겨진 뒤였지만, 바닥에 체액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 흔적의 가장자리, 잔해가 겹쳐 있던 틈새를 핀셋으로 벌렸다.

유충 한 마리. 아직 살아 있었다. 크기 4밀리. 잔해 틈의 습기에서 버틴 것이다.

한시윤은 유충을 샘플 봉투에 넣었다. 봉투 위에 '바닥면 / 시신 접촉 구역 / 화재 잔해 하부'라고 적었다.

"윤 형사."

"예."

"현장 정리보다 시간 정정이 먼저입니다."

윤태건이 고개를 끄덕였다. 반출 카트 앞에 서 있던 반원 셋이 서로 눈을 맞추다 시선을 떨궜다.

한시윤은 샘플 봉투를 들어 올렸다. 봉투 안의 유충이 빛에 투과되어 내장 구조까지 비쳤다. 령 단계를 육안으로 확인했다. 2령. 이 온도에서 이 크기면 산란 후 최소 이십 시간.

화재 발생 시각, 어젯밤 열한 시 사십 분.

산란 추정 시점, 전날 낮 또는 이른 오후.

사망은 불보다 먼저였다.

한시윤은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장갑을 벗었다. 그늘음이 묻은 장갑을 접어 넣는 동안, 현장 동쪽으로 첫 번째 빛이 들었다. 아침이었다. 잔해의 검은 윤곽이 희뿌연 빛 아래 드러났고, 탄 냄새가 찬 공기에 실려 더 선명해졌다.

윤태건이 낮게 말했다.

"남 부장이 안 받으세요."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시윤은 건물 앞쪽, 임시 브리핑선이 세워진 방향으로 걸어갔다. 아침 빛이 통제선 테이프를 하얗게 만들고 있었다.

소방팀장이 보고서를 쥔 채 서 있었다. 남필구가 그 옆에 있었다. 감식관 둘이 뒤에 서 있었다. 누군가의 무전이 끊기고, 정적이 왔다.

한시윤이 멈췄다.

샘플 봉투 두 개를 꺼내 들었다. 하나는 접힘 안쪽의 알 덩어리. 하나는 바닥면의 2령 유충.

"공식 사망 추정 시각을 화재 발생 이전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남필구의 시선이 봉투 위에 고정됐다.

"시신 하반신 접힘 안쪽의 초기 산란 흔적과, 화재 잔해 하부에서 채집한 2령 유충의 발육 단계를 역산하면, 사망 시점은 화재보다 최소 스무 시간에서 스물여섯 시간 앞섭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한시윤의 목소리는 올라가지 않았다. 내려가지도 않았다.

"이 현장의 불은 사인이 아닙니다. 사망을 덮기 위한 수단입니다. 공식 시각이 정정되지 않으면, 수사는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아침 빛이 한시윤의 등 뒤로 번졌다. 통제선 테이프가 바람에 한 번 흔들렸다. 남필구의 손이 안주머니 속 보고서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

## #17

침상 프레임이 비틀려 있었다.

한시윤은 그 앞에 쪼그려 앉은 채 줄자를 바닥에 댔다. 침상 좌측 다리에서 시신이 놓여 있던 지점까지 1미터 40. 우측 다리에서 시신 지점까지 2미터 10. 비대칭이었다.

불에 탄 매트리스 잔해가 프레임 위에 아직 걸쳐 있었다. 스프링 노출 부위가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타다 남은 직물 파편이 불길 방향 그대로 우측으로 흘러 있었다. 바닥 콘크리트의 그늘림도 같은 방향이다. 불길은 좌에서 우로 훑었다.

그런데 곤충 사체는 달랐다.

한시윤이 표시핀 하나를 바닥에 꽂았다. 시신이 있던 위치의 좌측 30센티. 두 번째 핀을 45센티 떨어진 지점에 꽂았다. 세 번째, 네 번째.

검정파리 성충 사체 일곱 마리. 구더기 탈락 잔해 네 점. 전부 시신의 좌측에서 좌하단으로 이어지는 한 방향 라인 위에 몰려 있었다.

"윤 형사."

뒤에서 침상 배치도를 그리고 있던 윤태건이 고개를 들었다.

"이 바닥 사진 다시 찍어야 합니다. 침상 기준이 아니라 시신 기준 반경 2미터로."

"침상 기준으로 이미 다 끊었는데요."

"침상은 의미 없습니다."

윤태건의 손이 멈췄다. 현장기록원이 카메라를 들다 말고 한시윤 쪽을 봤다.

한시윤은 표시핀 네 개를 손가락으로 차례로 짚었다.

"파리 성충 사체가 여기서 여기까지 일렬입니다. 방향은 시신 좌측에서 좌하단. 불길 방향은 좌에서 우."

줄자를 핀 사이에 대고 각도를 읽었다. 약 35도.

"불길이 좌에서 우로 이동했으면, 가벼운 곤충 사체는 우측으로 밀려야 합니다. 열 대류가 만드는 기류 방향이 그렇습니다. 성충 날개가 특히 약하니까 바닥에서도 밀립니다."

윤태건이 핀 라인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불길 방향 그을림을 봤다. 반대였다.

"근데 왼쪽에 몰려 있다?"

"몸이 먼저 옮겨졌습니다."

한시윤이 일어섰다. 무릎에 붙은 재를 털지 않았다.

"시신이 이 자리에 장시간 있었으면 파리 활동 범위가 시신 중심 동심원으로 퍼집니다. 사체와 탈락 잔해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건, 몸이 특정 방향에서 이 지점으로 끌려오면서 이미 붙어 있던 충체가 마찰로 떨어진 겁니다."

'끌린 방향. 좌상단에서 좌하단. 문 쪽에서 이 자리까지.'

"이 사람은 침상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죽은 뒤 이 침상 옆으로 옮겨졌고, 그 다음에 불이 났습니다."

현장기록원의 카메라 셔터음이 울렸다. 한 번. 그리고 멈춤. 어디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렌즈가 바닥과 침상 사이를 오갔다.

윤태건이 배치도를 내려놓고 새 종이를 꺼냈다.

"침상 기준 말고, 시신 위치 기준으로 다시 그리겠습니다. 핀 좌표 불러주시시오."

한시윤이 핀 하나하나의 거리와 각도를 읽었다. 윤태건의 펜이 빠르게 움직였다. 현장기록원은 핀 번호 순서대로 접사 촬영으로 전환했다. 셔터음이 규칙적으로 찍혔다.

바닥의 그을림 냄새 사이로 아직 분해가 끝나지 않은 단백질 악취가 올라왔다. 콘크리트에 스며든 냄새는 불이 태우지 못한다.

---

창틀 파손 구역은 침상에서 직선으로 8미터였다.

한시윤이 도착했을 때 서민아가 이미 창틀 프레임 하단을 스왑으로 훑고 있었다. 감식보조원이 파편 봉투에 번호를 매기며 옆에 서 있었다.

창은 알루미늄 외여단이였다. 지금은 프레임 상단이 바깥으로 휘어져 있고, 유리는 전부 날아간 상태. 프레임 좌측 레일이 본체에서 빠져 있었다.

서민아가 스왑을 멈추고 말했다.

"열변형하고 기계적 마모가 겹쳐 있어요."

"분리됩니까?"

"됩니다."

서민아가 프레임 하단 레일을 집게로 가리켰다. 채집핀이 레일 홈 안에 꽂혀 있었다.

"이 홈, 보세요. 레일 내측 마모흔. 창을 반복적으로 밀어 열 때 생기는 금속 굽힘이에요. 직선형이고 방향이 일정합니다."

한시윤이 허리를 숙여 레일 홈에 눈높이를 맞췄다. 가는 줄이 레일 안쪽에 서너 겹 겹쳐 있었다. 일정한 간격. 일정한 깊이.

"열변형은요."

"프레임 상단. 위로 휘어진 부분. 알루미늄이 400도 이상에서 변형된 거고, 이건 화재열 방향하고 일치해요.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그럼 이 레일 마모는 화재 전 흔적입니까?"

"확정입니다. 열에 의한 금속 변형이 마모흔 위를 덮고 있어요. 순서가 마모 먼저, 열변형 나중."

한시윤이 프레임 좌측으로 시선을 옮겼다. 레일에서 빠진 부위. 이탈 방향이 바깥쪽이었다.

"이 프레임 이탈이 폭발 때문이라면 안쪽에서 바깥으로 밀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레일 이탈 부위에 변형이 없습니다."

서민아가 고개를 돌려 확인했다. 이탈 꺾임 부위가 깨끗했다. 열팽창으로 밀렸다면 뒤틀림이 있어야 한다. 없었다.

"열이 아니라 물리적 힘으로 빼낸 거예요, 이거."

한시윤이 일어섰다.

"창은 불이 아니라 사람이 열었습니다."

감식보조원이 봉투에 쓰던 펜을 멈췄다. 서민아가 스왑을 봉투에 넣으며 감정서 기록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빠르게.

한시윤은 창틀 바깥을 내다봤다. 후면 출입로 쪽으로 이어지는 콘크리트 경사면이 보였다. 창에서 지면까지 높이 약 1미터 20.

'시신 위치를 옮기고, 창을 열어 탈출 경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불을 질렀다. 순서가 있다.'

"서 박사."

"예."

"시신 발 부위 조직에서 끌림 마찰흔 확인 가능하니까?"

서민아가 잠깐 생각했다.

"화재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발뒤꿈치 각질층이 남아 있으면 방향성 굽힘은 볼 수 있어요."

"확인해주십시오."

서민아가 고개를 끄덕이고 보조원에게 시신 재검 요청 서식을 꺼내라고 했다.

한시윤은 창틀에서 물러나면서 손전등을 꺼냈다. 창 아래 벽면, 바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를 비췄다. 그을림 아래에 발자국 같은 것은 없었다. 대신 콘크리트 분진이 한 줄로 밀려 있었다. 무릎을 꿇은 자국은 아니다. 발을 디딘 뒤 미끄러지면서 밀린 분진.

누군가 여기서 창 밖으로 나갔다. 서두르면서.

---

후면 출입로 적치장에는 잔해가 파렛트 위에 분류되어 쌓여 있었다.

한시윤은 그 배열을 보는 순간 발을 멈췄다.

파렛트 네 개. 각각에 적힌 라벨. '가연물', '구조체 파편', '생활용품', '기타'. 분류 기준이 명확했다. 너무 명확했다.

현장책임자가 작업장갑을 끼고 다가왔다.

"정리해둔 겁니다. 수거반이 들어오면 바로 반출할 수 있도록."

윤태건이 한시윤보다 먼저 입을 열었다.

"화재 직후 패닉 상황에서 이렇게 분류까지 해놓은 겁니까?"

"현장 안전 확보되고 나서 정리한 겁니다. 절차대로요."

한시윤은 파렛트 사이를 걸었다. '가연물' 파렛트를 봤다. 위에서부터 직물류, 합판 조각, 플라스틱 용기 파편 순서. 아래로 갈수록 무거운 것.

"이 정렬 순서, 누가 잡았습니까?"

"제가 지시했습니다."

"위에서부터 가벼운 순서대로 쌓았습니다."

"그래야 반출할 때 편하니까."

한시윤이 '기타' 파렛트로 갔다. 여기에는 바닥재 파편, 전선 피복, 그리고 금속 조각 몇 점이 있었다. 한시윤이 금속 조각 하나를 집었다. 문 경첩 파편이었다.

"이 경첩, 어디서 수거한 겁니까?"

"내부 격벽 문이요. 무너지면서 떨어진—"

"이건 실패한 구조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현장책임자의 말이 끊겼다.

한시윤이 경첩을 내려놓지 않은 채 돌아봤다.

"패닉 속에서 잔해를 치울 때는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집니다. 크기순, 무게순 정렬은 안 합니다. 그건 습관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윤태건이 파렛트 쪽으로 한 발 더 다가섰다.

"그리고 격벽 문 경첩을 '기타'로 분류한 것도 이상합니다."

한시윤이 이어받았다.

"격벽 문이 닫혀 있었다면 화재 확산 방향이 달라집니다. 경첩이 떨어졌다는 건 문이 열려 있었거나, 강제로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건 화재 경로 판단의 핵심 증거물인데, 기타로 빠져 있습니다."

'증거를 없앤 게 아니다. 증거의 위치를 바꿨다. 더 교묘하다.'

현장책임자의 장갑 낀 손이 미세하게 쥐어졌다. 풀렸다. 다시 쥐어졌다.

"저는 시신 수습이 급해서 주변 잔해를 빨리 정리한 것뿐입니다."

"시신 수습 전에 잔해를 먼저 치운 겁니까, 아니면 시신 수습 후에 치운 겁니까?"

"...동시에요."

"동시에 하면서 분류까지 했다?"

현장책임자가 대답하지 않았다.

윤태건이 수첩을 꺼냈다. 현장책임자의 이름, 소속, 현장 도착 시간을 적기 시작했다. 대화가 아니라 기록이었다. 현장책임자의 눈이 수첩 위의 펜끝을 따라갔다.

한시윤은 파렛트에서 물러나며 폐기 지시 메모 한 장을 봤다. 파렛트 '가연물' 하단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화재 발생 이틀 후.

화재 발생 이틀 만에 가연물 반출 지시.

감식 완료 전이었다.

---

임시 사무동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다.

남필구가 먼저 와 있었다. 서류관리원에게 뭔가를 받아 넘기는 중이었다. 한시윤을 보더니 서류를 접지 않았다. 접으려다 만 것처럼 손이 어중간하게 멈춰 있었다.

한시윤이 먼저 말했다.

"초기 잔해 반출 승인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무슨 반출 승인서?"

"화재 발생 이틀 후 현장 가연물 반출 지시가 나갔습니다. 감식 완료 전입니다. 승인 라인이 있을 겁니다."

남필구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얼굴이었다. 턱 근육이 한 번 움직였다.

"한 감정관, 현장 반출은 안전 관리 소관이야. 감식과는 별개 라인이고—"

"별개 라인인데 승인 날짜가 통제선 해제 시점이랑 12시간 차이입니다."

남필구가 서류관리원을 봤다. 서류관리원이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 2초가 있었다.

한시윤이 가방에서 현장 로그북 사본을 꺼냈다. 통제선 해제 기록 페이지가 접혀 있었다.

"통제선 해제가 화재 발생 54시간 후. 반출 승인이 화재 발생 48시간 후. 반출 승인이 먼저입니다."

남필구가 로그북 사본을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지만 시선은 접힌 페이지 위에 머물렀다.

"……그건 행정 착오일 수도 있어."

"착오라면 정정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있습니까?"

남필구가 대답하지 않았다.

한시윤은 서류관리원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원본 승인서와 현장 로그북 원본, 봉인 상태로 확보해주시시오."

서류관리원이 남필구를 봤다. 남필구는 1초쯤 멈춰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지도, 짓지도 않은 채 한마디를 했다.

"……확인은 해보지."

한시윤은 더 말하지 않았다. 로그북 사본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남필구가 몸을 돌려 사무동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서류를 접는 소리가 들렸다. 접으려다 만 서류를 이제야 접는 소리.

윤태건이 뒤에서 나지막하게 말했다.

"팀장."

한시윤이 돌아보지 않았다.

"누가 서둘렀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왜 서둘렀는지는 이미 바닥에 있었습니다."

적치장 쪽에서 파렛트를 옮기는 지게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해가 건물 뒤로 넘어가면서 적치장 위로 그림자가 길어졌다. 파렛트 위 '가연물' 라벨이 그림자 안으로 잠겼다.

반출 승인서의 날짜는 통제선 해제보다 6시간 먼저였다. 누군가는 현장이 풀리기도 전에 핵심 잔존물을 치우려 서둘렀다.

문서는 아직 봉인되지 않았다.

=====

## #18

임시 분석 테이블 위에 샘플 봉투 일곱 개가 나란히 놓였다.

한시윤은 그중 네 번째 봉투를 집게로 벌려 놓고, 손전등 각도를 낮췄다. 녹아내린 환기 금속 조각에 붙은 잔해가 빛을 받자 표면의 결이 드러났다. 그을린 알루미늄 위에 유기물 잔여가 늘어붙어 있었다. 열에 의한 탄화가 아니었다. 늘어붙은 게 아니라, 눌러 있었다. 금속이 녹기 전에 이미 거기 있었다는 뜻이다.

집게 끝을 1밀리 단위로 옮겼다. 금속 틈 안쪽, 접힌 면의 그늘진 부분. 검정파리 유충 잔해 두 점. 그 바로 옆에 수서 깔따구 번데기 외피 한 점.

동작이 끊겼다.

수서 깔따구는 물가에서 산다. 건물 4층 환기구 안쪽에서 나올 이유가 없다. 화재 진압 방수로 유입됐다면 번데기가 아니라 유충이어야 하고, 번데기라 해도 외피가 이렇게 온전할 수 없다. 방수 압력은 최소 7기압이다. 이건 물에 실려 온 게 아니다.

"서 박사."

서민아가 옆 테이블에서 조직 절편 슬라이드를 내려놓고 돌아봤다.

"네 번째 봉투, 안쪽 틈. 직접 보십시오."

서민아는 장갑을 바꿔 끼고 다가왔다. 한시윤이 손전등을 잡아 주었고, 서민아는 자기 루페를 꺼내 들었다. 렌즈가 금속 틈 위에서 멈추기까지 4초. 서민아의 호흡이 한 박자 길어졌다.

"깔따구 번데기 외피가 왜 여기서 나오니까."

"그게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죠."

서민아는 루페를 내리지 않았다. 외피 표면의 미세한 균열 방향을 보고 있었다.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이었다. 물속에서 꺼내 말린 것이 아니라, 이미 건조 상태로 이 자리에 놓인 뒤 열을 받은 것이다. 순서가 그렇다.

"화재 이전 부착입니다. 방수 유입 아닙니다."

한시윤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대신 다섯 번째 봉투를 열었다. 잔해 밑에서 채집한 토양 혼합물. 여기서도 마찬가지였다. 내륙 산림 토양에서만 서식하는 반날개 유충 파편이 해안성 모래 입자와 뒤섞여 있었다.

'또.'

세 번째 봉투까지 확인했을 때 이미 알았다. 네 번째에서 확신했다. 다섯 번째는 확인 사살이다.

"서 박사, 피해자 기도 내 그을음 분포 다시 봤습니까."

"봤습니다. 하기도까지 그을음이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상기도 점막에만 미량 부착. 흡입 시간이 극히 짧거나—"

"흡입 자체가 없었거나."

서민아가 루페를 접었다.

"사후 노출이라면 점막 부착 패턴이 설명됩니다. 능동 호흡이 아니라 열기류에 의한 수동 침착."

감식관 한 명이 뒤에서 기침을 참았다. 그 소리가 텐트 안에서 작게 울렸다.

한시윤은 표본 카드를 한 장 꺼내 다섯 번째 봉투 옆에 세웠다. 카드 위에 세 줄을 적었다. 검정파리 2령—내륙. 수서 깔따구 번데기—수변. 반날개 유충—산림. 같은 환기구 안쪽 반경 10센티미터 안에서.

단일 환경에서는 절대 성립하지 않는 조합이다.

이건 화재 현장의 곤충이 아니다. 시신이 다른 곳에서 왔고, 시신에 붙어 온 것들이 현장에 남은 것이다. 불은 그 위에 덮였을 뿐이다.

"이전 사건 자료 가져올 수 있습니까?"

서민아가 시선을 들었다.

"어떤 사건요."

"전부 다."

---

사건자료 대조 구역은 텐트 하나를 더 펼쳐 만든 공간이었다. 접이식 테이블 두 개를 이어 붙이고, 그 위에 사진과 메모를 깔았다.

윤태건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가 테이블 위를 보고 컵을 내려놨다. 커피 위의 김이 찬 공기에 부딪혀 바로 사라졌다.

"한 감정관."

"네."

"이거 전부 다 꺼낸 겁니까."

한시윤은 대답 대신 비교 도식판을 테이블 가운데 놓았다. A4 크기 코팅지 세 장. 왼쪽부터 암매장 사건, 문해솔 차량 건, 그리고 오늘 화재 건. 각각의 현장에서 채집한 곤충 조합을 종 단위로 기록한 표가 세로로 나란히 서 있었다.

세 장의 표 사이에 빨간 선이 세 개 그어져 있었다. 한시윤이 직접 그은 것이다. 펜 자국이 종이 표면을 파고들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다.

윤태건이 빨간 선의 시작점과 끝점을 번갈아 봤다.

"또 같은 냄새냐."

"냄새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한시윤이 첫 번째 선을 짚었다. 암매장 사건의 토양 샘플에서 나온 해안성 쉬파리 잔해. 내륙 산지에서 나올 수 없는 종이 묻혀 있었다. 당시에도 비정상 혼재로 기록했다.

두 번째 선. 문해솔 차량에서 회수한 좌석 틈새 샘플. 여기서도 내륙 저온 서식 Calliphora 유충 파편과 하구 습지 토양이 동시에 검출됐다. 차량의 이동 경로와 맞지 않는 조합이었다.

세 번째 선. 오늘. 건물 4층 환기구에서 검정파리, 수서 깔따구, 반날개. 셋이 한 자리에.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뭐니까."

윤태건이 팔짱을 풀었다.

"현장이 전부 다르다. 산, 차, 건물. 사건 유형도 다르다. 암매장, 차량 유기, 방화."

"맞습니다."

"근데 벌레 조합이 같다?"

"조합이 같은 게 아닙니다."

한시윤이 도식판 아래쪽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설명이 아니라 각인이다. 이걸 한 번에 박아야 한다.'

"조합이 같은 게 아니라, 혼재 방식이 같습니다. 해안성과 내륙성이 반드시 섞이고, 저온 서식종과 상온 서식종이 반드시 공존합니다. 자연 환경에서는 불가능한 교차가, 세 사건 모두에서 동일한 구조로 반복됩니다."

기록분석원이 테이블 끝에서 키보드를 멈췄다. 타자 소리가 사라지자 텐트 안이 갑자기 넓어진 것처럼 조용해졌다.

윤태건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한 번. 그리고 다시 열었다.

"같은 놈이라는 뜻이냐."

"같은 놈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같은 절차입니다. 시신을 한 장소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옮기고, 보관하고, 다시 옮깁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환경의 곤충과 토양이 시신에 겹겹이 쌓입니다."

"이동과 보관이 먼저라는 거냐."

"이동과 보관이 먼저입니다."

윤태건이 커피를 집었다. 한 모금 마셨다. 이미 식어 있었지만 표정이 바뀌지 않았다. 차가운 커피에 반응할 여유가 없는 얼굴이었다.

---

브리핑 차폐막 안에 남필구가 먼저 와 있었다.

의자에 앉아 있지 않았다. 서 있었다. 보고서 초안을 들고 있었는데, 잡는 손의 검지 끝이 종이 모서리를 반복적으로 접었다 폄다 하고 있었다. 무의식이었다.

한시윤이 들어왔다. 뒤에 윤태건.

"부장님, 보고서 문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남필구가 종이를 내렸다.

"수정?"

"현행 초안은 '화재에 의한 사망'으로 1차 결론이 잡혀 있습니다. '사망 후 방화 및 현장 재배치 정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남필구의 검지가 멈췄다.

"한 감정관, 그건 사인 자체를 바꾸는 거야."

"사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불이 사인이 아닙니다. 불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남필구가 한시윤을 봤다. 그 시선에는 반박이 담겨 있었지만, 반박의 근거가 빠져 있었다. 지난 세 건. 한시윤이 뒤집은 건수가 쌓이고 있었고, 언론이 그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막았다가 또 뒤집히면 보고서를 두 번 쓰는 것은 남필구 자신이다.

침을 삼키는 소리가 났다. 남필구 본인의 것이었다.

"근거 자료 첨부 가능하나."

"샘플 배치도와 통합 비교표 준비돼 있습니다."

한시윤이 테이블 위에 세 장의 도식을 펼쳤다. 왼쪽부터 시간순. 암매장, 차량, 화재. 각 현장 곤충 종 목록과 빨간 교차선. 그 아래에 서민아의 소견서가 한 장 붙어 있었다. '상기도 점막 그을음 분포상 사후 노출 가능성 배제 불가.'

남필구는 도식을 내려다봤다. 30초. 종이를 넘기지 않았다. 첫 장만 봤다. 첫 장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첨부하지."

두 글자를 빼먹었다. '한 감정관 의견도'가 아니라 그냥 '첨부하지.' 주어를 뺐다는 것은 자기 판단이 아니라 남의 판단을 올린다는 부담을 문장에서 지웠다는 뜻이다.

한시윤은 그것을 읽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보고서 종결 문구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필구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지만 막지도 않았다.

"'본 사건은 화재 단독 재해가 아닌, 사망 후 방화에 의한 현장 재배치 사안으로 판단하며, 이전 복수 사건과의 현장 조작 방식 동일성에 대한 후속 분석을 권고한다.'"

윤태건이 뒤에서 숨을 내쉬었다. 크지 않았다. 하지만 차폐막 안의 공기가 뭉어서 그 소리가 벽처럼 울렸다.

남필구가 초안을 접었다. 주머니에 넣지 않고 테이블 구석에 놓았다. 어차피 그 초안은 폐기될 것이다.

"후속 분석 범위는."

"아직 확정하지 않겠습니다. 범위를 정하면 그 밖이 빠집니다."

남필구는 더 묻지 않았다. 돌아서며 차폐막을 밀어 열었다. 바깥의 찬 공기가 안으로 밀려들었고, 테이블 위 사진 한 장의 모서리가 살짝 들렸다가 내려앉았다.

---

통제선 밖.

화재 건물의 외벽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검게 서 있었다. 창틀이 녹아 늘어진 4층 부분만 유독 어두웠다. 가로등 빛이 닿지 않는 게 아니라, 그늘음이 빛을 먹고 있었다.

한시윤은 사진 패드를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서 있었다. 앉을 곳이 없었다. 봉인 상자가 발치에 놓여 있었고, 그 안에 오늘의 샘플 전부가 들어 있었다.

윤태건이 옆에 섰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빼고, 다시 넣었다.

"한 감정관."

"네."

"이 세 건. 같은 선이다."

한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진 패드를 넘겼다. 세 현장의 곤충 비교표가 화면에 떠 있었다. 빨간 선 세 개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다.

"또 같은 패턴입니다."

윤태건이 건물을 올려다봤다. 4층 창틀의 늘어진 금속이 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렸다. 끼익, 하는 마찰음이 간격 없이 이어졌다가 끊겼다.

"추적할 수 있냐."

"현장을 추적하는 게 아닙니다. 이동 경로를 추적해야 합니다. 시신이 거치는 장소, 보관되는 환경, 옮겨지는 루트. 그게 벌레에 다 찍혀 있습니다."

한시윤이 패드를 꺾다. 화면이 꺼지자 얼굴 위의 빛이 사라졌고, 눈만 가로등 역광에 걸렸다.

'세 번. 세 번이면 우연이 아니다. 한 번은 사고이고, 두 번은 의심이고, 세 번은 구조다.'

"윤 형사."

"네."

"이건 누군가 한 번 하고 만 일이 아닙니다. 저장하고, 옮기고, 배치하고, 덮는다. 순서가 있고 반복이 있습니다."

윤태건이 주머니에서 손을 뺐다. 주먹이 아니라 펼친 손이었다.

"개인의 돌발이 아니라는 거냐."

한시윤이 봉인 상자를 내려다봤다. 상자 표면에 오늘 날짜와 사건 번호가 적혀 있었다. 세 번째 사건 번호. 세 개의 번호가 서로 다른 관할, 서로 다른 유형, 서로 다른 계절에 발생했다. 하지만 상자 안의 벌레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건 개인이 아니라 공정입니다."

바람이 불었다. 건물 4층의 금속이 다시 울었다. 끼이익. 길게.

윤태건이 한시윤을 봤다. 한시윤은 건물을 보고 있었다. 건물이 아니라 건물 너머를 보고 있었다.

"다음 현장부터 같은 선으로 추적하겠습니다."

한시윤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대신 봉인 상자를 들어올렸다. 상자의 무게가 양손에 실렸다. 샘플 무게치고는 가벼웠지만, 그가 드는 방식은 가볍지 않았다.

공정이라면, 다음이 있다.

다음이 있다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신이 어딘가에서 옮겨지고 있다는 뜻이다.

=====

## #19

통제선 테이프가 선착장 난간에 감겨 있었다. 바람에 끝이 펄럭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한시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건물이 아니라 물가를 봤다.

별장은 고급스러웠다. 호수 쪽으로 내려가는 경사면에 자작나무 데크가 깔려 있고, 그 아래 선착장이 수면에 반쯤 잠긴 채 걸려 있었다. 판재 사이로 녹조가 끼어 있었다. 좋은 별장이었다. 관리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물에 닿는 부분은 아무리 돈을 써도 저렇게 된다는 뜻이었다.

윤태건이 뒤에서 따라붙었다. 양복 소매를 한 번 걷고 있었다.

"건물 안부터 보시죠. 시신은 와인 저장실에 있고—"

"선착장 CCTV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긴 전부 내부 동선만 찍혀요. 그것도 로비하고 주차장만."

한시윤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선착장 쪽으로 내려가는 데크 계단 앞에서 경비원 한 명이 서 있었다. 이름표가 없었다. 대신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출입 기록 보여주세요."

경비원이 윤태건을 봤다. 윤태건이 턱으로 끄덕였다. 그제야 태블릿이 돌아왔다.

한시윤은 화면을 스크롤하지 않았다. 첫 페이지에서 멈췄다. 차량 입차 시간 네 대, 전부 오후 2시에서 2시 40분 사이. 출차 기록은 없었다. 전원 아직 안에 있다는 뜻이었다.

"만찬 시작이 몇 시였습니까."

"저녁 7시입니다."

2시에 도착해서 7시에 밥을 먹었다. 다섯 시간. 별장에서 다섯 시간을 뭘 했는지가 기록에는 없다.

한시윤은 태블릿을 돌려주고 데크 계단을 내려갔다. 선착장 판재 위에 물이 고여 있었다. 오후 햇볕이 비스듬하게 내려와 젖은 나무 표면에 미세한 광택을 만들었다. 발을 딛지 않았다. 그 대신 허리를 숙여 판재 틈새를 들여다봤다.

판재 이음매 사이 흠에 뭔가 끼어 있었다. 검은 점. 하나가 아니라 여섯, 일곱. 미세 조류 위에 작은 잔해가 붙어 있었다. 살아 있는 건 아니었다. 이미 건조된 절지동물의 부속지 파편.

'수변 종이다. 이게 왜 선착장 판재 안쪽까지 눌러 있지.'

"한 감정관, 시신은 위에 있는데요."

"윤 형사."

"예."

"이 선착장에 무거운 걸 끌었습니다."

윤태건이 판재를 봤다. 아무것도 안 보였을 것이다. 한시윤이 가리킨 곳은 판재 세 번째 이음매였다. 흠이 다른 곳보다 깊게 벌어져 있었다. 나무가 오래돼서가 아니라, 하중이 집중됐기 때문이었다.

"차량 주차 도면 있습니까."

"아까 경비한테—"

"아니요. 선착장에서 주차장까지 직선 동선으로 뭐가 있는지."

윤태건이 전화기를 꺼냈다. 현장 지원 쪽에 뭔가 짧게 말했다. 한시윤은 이미 데크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복도가 넓었다. 벽에 풍경 사진이 걸려 있고, 바닥은 포셀린 타일이었다. 신발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한시윤은 복도 끝에서 왼쪽으로 꺾었다. 와인 저장실 문 앞에 국과수 감식 장비 박스 두 개가 놓여 있었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서민아가 나왔다.

장갑을 끼고 있었고, 왼손에 저온계를 들고 있었다. 한시윤을 보고 멈추지 않았다. 시선만 한 번 맞추고 안쪽으로 고개를 꺾었다.

"실내 온도 14도. 마지막으로 문을 연 시점 기준 습도 62퍼센트. 저장실 환기 시스템은 작동 중입니다."

한시윤이 안으로 들어갔다.

와인 랙이 양쪽 벽을 채우고 있었다. 천장 높이까지. 병들이 비스듬히 꽂혀 있었고, 가장 안쪽 랙 앞 바닥에 시신이 있었다. 이미 수습 단계가 아니라 감식 단계였다. 하얀 시트가 덮이지 않은 상태. 남성. 양복 차림. 넥타이가 풀려 있었고, 구두가 신겨진 채였다.

한시윤은 시신 옆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먼저 랙과 시신 사이 간격을 봤다. 60센티. 사람이 쓰러지면서 자연스럽게 놓일 거리가 아니었다. 밀려 들어간 것도 아니고, 배치된 것에 가까웠다.

"의복 봉투 열어봐도 됩니까."

서민아가 트레이 위에 놓인 투명 봉투를 건넸다. 시신에게서 벗기지 않은 것. 옷깃 부분만 잘라 분리한 시료였다.

한시윤은 봉투를 빛 쪽으로 기울였다. 저장실 조명이 LED 백색이었다. 괜찮았다. 색온도가 높아서 미세 구조가 잘 보였다.

옷깃 안쪽 솔기 라인.

거기에 산란 흔적이 있었다.

'14도에서는 이게 안 붙는다.'

검정파리와 산란은 최저 기준 외기온 16도 이상에서 시작된다. 이 저장실은 14도. 습도가 높아도 온도가 안 되면 암컷은 접근하지 않는다. 그런데 옷깃 안쪽에 산란 흔적이 있다. 초기 단계. 알이 부화하기 전 상태. 배열이 고른 것으로 보아 한 마리가 한 차례에 낳은 것이었다.

"서 박사."

"보고 있었습니다."

"이 옷깃은 저장실 시간이 아닙니다."

서민아가 저온계를 랙 위에 내려놓았다. 시신 쪽으로 한 발 다가와서 봉투를 받았다. 같은 각도로 기울이고, 같은 지점을 봤다.

"산란 흔적은 동의합니다. 온도 불일치도 맞고요. 그런데 저장실 문이 열린 적이 있다면—"

"열려도 14도에서 16도까지 올라가는 데 이 공간 크기면 환기 시스템 멈추고 최소 40분입니다. 그 사이에 파리가 들어와서 산란까지 끝내려면 외부 접근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여기 창문 없죠."

"없습니다."

서민아가 봉투를 트레이에 도로 놓았다. 조용했다. 저장실 환기 팬이 낮게 돌아가는 소리만 바닥을 깔았다.

한시윤은 시신의 구두를 봤다. 신발 보관 트레이에 올려진 게 아니라 아직 신겨져 있는 것. 오른발 구두 뒤축.

허리를 숙였다.

뒤축 고무 테두리와 가죽 접합면 사이에 미세한 녹색 막이 묻어 있었다. 눈으로 보이는 수준이 아니었다. 빛을 비스듬히 쬐어야 광택 차이로 겨우 구분되는 정도. 그 옆에 건조된 절지동물 잔해가 한 점. 아까 선착장 판재 틈에서 본 것과 같은 형태였다.

'같은 종이다.'

"구두 뒤축에 미세 조류와 수변 곤충 잔해가 있습니다."

서민아가 고개를 돌렸다.

"조류라면 여기 저장실 바닥에서는—"

"나올 수 없죠. 선착장 판재 틈에서만 묻는 겁니다."

침묵이 2초쯤 흘렀다. 서민아가 입을 열었다.

"한 박사. 시신이 저장실에 놓이기 전에 외부 수변 구역에 노출됐다는 거예요?"

"시신은 물가를 먼저 거쳤습니다."

서민아는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자기 기록 패드를 꺼내 뭔가를 적었다. 글씨가 작고 빨랐다. 한시윤은 그걸 보지 않았다. 이미 저장실을 나가고 있었다.

복도를 걸어 응접실 방향으로 갔다. 저녁 빛이 복도 끝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주황색이 바닥 타일 위로 길게 누웠다.

응접실 앞 복도에 윤태건이 서 있었다. 옆에 두 사람이 더 있었다. 양복. 한 명은 넥타이를 풀었고, 한 명은 아직 매고 있었다. 만찬 참석자였다.

"한 감정관, 여기 두 분이 만찬 동석자입니다."

한시윤은 두 사람을 보지 않고 윤태건에게 말했다.

"만찬 좌석표 확보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윤태건이 사진을 보여줬다. 핸드폰 화면. 테이블 배치도. 8인석 원탁. 이름이 적힌 카드가 각 자리에 놓여 있었다.

넥타이를 풀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는 7시부터 10시까지 같은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전원이요."

"화장실은요."

"—한두 번 다녀왔죠. 그건 당연히—"

"몇 시 몇 분에 누가 자리를 비웠는지 기억하십니까."

남자가 멈칫했다. 넥타이를 맨 남자가 끼어들었다.

"저희끼리 확인했습니다. 전원 10분 이상 자리를 비운 사람은 없었어요."

'저희끼리 확인했다.'

한시윤은 그 문장을 삼켰다. 얼굴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다.

"와인잔은 몇 개였습니까."

"여덟 개요. 인원수대로."

"사진 있습니까. 테이블 정리 전."

윤태건이 다른 사진을 넘겼다. 와인잔이 찍혀 있었다. 여덟 개. 전부 사용 흔적이 있었다. 립스틱 자국, 지문 흔적, 잔 안쪽 와인 잔여물. 고르게 더러웠다.

'너무 고르다.'

여덟 명이 세 시간 동안 마셨으면 잔마다 잔여량이 다르다. 많이 마신 사람, 적게 마신 사람. 그런데 사진 속 잔은 전부 비슷한 수위로 남아 있었다. 마신 게 아니라 부은 것이다.

"윤 형사."

"예."

"알리바이는 맞춘 게 아니라 짠 겁니다."

넥타이를 푼 남자의 눈이 한시윤을 향했다. 뭔가 말하려 했다. 한시윤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윤태건이 따라오면서 낮게 말했다.

"진술 흔들겠습니까?"

"진술 말고 차를 보십시오. 트렁크."

"트렁크요?"

"시신이 물가를 거쳐서 저장실로 옮겨졌으면 운반 수단이 있습니다. 이 경사면을 사람 힘으로 끌어 올리기에 거리가 됩니다. 선착장에서 건물까지 직선으로 80미터, 데크 계단 포함하면 고저차 7미터."

윤태건이 전화를 걸었다. 현장수색 지원 팀. 주차 구역 차량 전수 트렁크 확인 요청이었다.

밤이 내려오고 있었다.

주차 구역에 차 네 대가 서 있었다. 전부 검은색 또는 짙은 회색. 번호판이 가로등 아래서 겨우 읽혔다. 현장수색원 두 명이 장갑을 끼고 대기하고 있었다.

한시윤은 두 번째 차 앞에서 멈췄다. 트렁크 잠금이 풀렸다. 수색원이 매트를 들어 올렸다.

매트 안쪽. 직물 표면.

한시윤이 채집 브러시를 꺼냈다. 미세한 압력으로 매트 직물 위를 쓸었다. 브러시 끝에 뭔가 걸렸다.

작았다. 육안으로는 먼지처럼 보였다. 한시윤은 휴대용 루페를 눌러 들여다봤다.

수변성 깔따구 유충의 건조 잔해. 흉부 절편이 남아 있었다. 그 옆에 또 하나. 이건 달랐다. 내륙 저온 서식 Calliphora의 다리 마디.

동시에 있었다.

한시윤의 브러시가 공중에 걸렸다.

'또 이 조합이다.'

수변 종과 내륙 저온 종. 같은 매트 위에.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발생할 수 없는 두 종이 한 트렁크 안에 붙어 있다.

화재 현장 때도 그랬다. 저장, 이동, 재배치. 시신이 한 곳에서 죽고 다른 곳을 거쳐 또 다른 곳에 놓이는 패턴. 그때마다 서식 환경이 겹칠 수 없는 곤충 흔적이 하나의 표면에 흔재했다.

"한 감정관."

윤태건의 목소리가 뒤에서 왔다.

한시윤은 브러시 끝의 잔해를 증거 봉투에 털어 넣었다. 봉투 입구를 접고, 날짜와 차량 번호를 적었다.

"수변 곤충과 내륙 저장 곤충이 동시에 검출됐습니다."

윤태건이 트렁크 안을 봤다. 그에게는 빈 매트였을 것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직물 위에서 한시윤만 뭔가를 읽어냈다는 사실이 오히려 조용히 무거웠다.

"그게 뭘 뜻합니까."

"은밀한 급사가 아닙니다. 이건 운반이 들어간 타살이고, 만찬은 그걸 덮기 위해 짠 무대입니다."

한시윤은 증거 봉투를 주머니에 넣지 않았다. 왼손에 든 채로 주차장 가로등 아래 서 있었다. 봉투 안의 잔해가 빛에 비쳤다. 먼지보다 작고, 사건보다 무거운 파편.

'이 패턴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호수 위로 바람이 한 번 불었다. 선착장 쪽에서 물 냄새가 올라왔다. 한시윤은 봉투를 빛 쪽으로 한 번 더 기울였다.

=====

## #20

봉투 세 개를 테이블에 올렸다.

한시윤은 손가락 끝으로 첫 번째 봉투의 지퍼를 열었다. 안에서 옷깃 조각이 담긴 슬라이드가 나왔다. 셔츠 면직 위에 갈색 점이 세 개 박혀 있었다. 점이 아니었다. 산란 흔적이었다.

"이건 옷깃입니다."

응접실 조명이 노랗게 내려앉은 테이블 위로, 슬라이드 표면의 갈색 낱알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한시윤은 슬라이드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다. 손님 세 명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윤태건이 문 옆에서 있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야외 산란입니다. 실내에서는 절대 붙지 않는 종류예요. 금파리 1령 유충의 부착 잔해인데, 이견 시신이 야외에 노출된 상태에서만 옷감에 이전됩니다."

한시윤이 두 번째 봉투를 열었다. 사진 한 장. 구두 뒤축을 확대한 컷이었다. 가죽 솔기 사이에 녹색 막이 끼어 있었다.

"구두 뒤축입니다. 이 녹색 잔여물은 미세 조류, 민물 부착 규조류 혼합체입니다. 호수가 아니라 선착장 바닥에서 젖은 상태로 밟아야 이 패턴으로 끼어요."

게스트 한 명이 무릎 위에 올린 손을 바꿔 쥐었다. 관절이 하얘졌다.

한시윤은 세 번째 봉투를 열지 않고 테이블 위에 세워 놓았다.

"마지막은 차량 트렁크 채집입니다."

지퍼를 당겼다. 반투명 채집 용기 두 개가 나왔다. 하나에는 수변 갈따구 유충이, 다른 하나에는 내륙 저장 곤충 성체가 들어 있었다. 한시윤은 두 용기를 나란히 놓고 손을 땀다.

"수변 갈따구와 내륙 저장 화랑곡나방이 같은 트렁크 매트에서 나왔습니다. 이 두 종은 동일한 환경에서 자연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만찬 시간에 앉아 있었다는 말이 성립하려면, 트렁크에 이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

게스트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그 벌레가 원래 차에 있었을 수도—"

"없습니다."

한시윤이 잘랐다. 짧았다.

"갈따구 유충은 건조 환경에서 4시간 내 탈수사합니다. 트렁크에서 채집된 개체는 체액이 남아 있었어요. 만찬 시작 후 4시간 이내에 수변 환경 접촉물이 트렁크에 실렸다는 뜻입니다. 만찬은 6시간이었고, 세 분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고 진술했죠."

침묵이 내려앉았다. 응접실 벽난로 안에서 장작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탁.

게스트 한 명이 다리를 꼬았다. 풀었다. 다시 꼬았다.

윤태건이 문 옆에서 한 발 앞으로 나왔다. 그의 구두 바닥이 마루를 긁는 소리가 응접실 전체에 울렸다.

"진술 정정할 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윤태건이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펜 뚜껑을 엄지로 튕겼다. 딸깍.

"한 감정관. 결론 내려 주시죠."

한시윤은 세 개의 증거물을 차례로 짚었다. 옷깃. 구두. 트렁크.

"야외 산란 흔적은 시신과의 직접 접촉, 구두 미세 조류는 선착장 이동, 트렁크 흔재 곤충은 수변에서 내륙으로의 운반을 각각 증명합니다. 이 별장에서 일어난 사망은 자연사가 아닙니다. 급사도 아닙니다. 외부에서 사망한 뒤 이 별장으로 옮겨졌고, 옮긴 사람은 이 만찬에 참석한 차량 소유자입니다."

게스트 한 명이 일어서려 했다. 윤태건의 손이 어깨를 눌렀다. 앉히는 데 0.5초. 소파 스프링이 끼익 울었다.

"앉아 계십시오."

윤태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바닥을 쳤다. 또 다른 게스트의 시선이 창문으로 갔다. 밖에는 경찰 차량 두 대의 경광등이 돌고 있었다. 빨강. 파랑. 빨강.

"세 분 다 임의동행 대상입니다. 차량 키 내려놓으시고, 일어나지 마십시오."

한시윤은 테이블 위 증거물을 봉인 비닐로 다시 감싸기 시작했다. 손끝이 정확했다. 채집 용기 뚜껑을 닫고, 라벨 날짜를 확인하고, 봉투 지퍼를 원위치시켰다. 세 번. 같은 속도. 응접실 안에서 숨소리만 돌았다.

---

별장 외부 차고 앞은 어두웠다. 지붕 처마 밑에 달린 보안등 하나가 황색 원을 바닥에 만들고 있었고, 그 경계 밖은 검었다. 한시윤은 트렁크 매트를 봉인 상자에 넣는 현장수습원의 손을 지켜보다가, 주머니에서 사진 두 장을 꺼냈다.

화재 사건 현장 사진. 암매장 사건 현장 사진.

서민아가 차고 옆으로 걸어왔다. 장갑을 벗지 않은 채였다. 그녀는 한시윤이 사진 두 장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멈췄다.

"한 박사, 그건 이전 건 자료 아닙니까?"

"서 박사. 이것 좀 보십시오."

한시윤은 두 사진을 차고 벽에 기대 세웠다. 화재 현장 시신 사진 속 왼쪽 하단에 빨간 원이 그려져 있었다. 그 안에 곤충 채집 결과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수변 쉬파리 2령 + 내륙 거저리과 유충 흔재'. 암매장 사진에도 같은 위치에 빨간 원. '수변 갈따구 3령 + 건조지 화랑곡나방 성체'.

한시윤이 오늘 채집한 별장 트렁크 결과지를 두 사진 옆에 놓았다.

수변 + 내륙. 수변 + 건조. 수변 + 내륙.

"종은 같습니다. 현장도 다르고, 시기도 같습니다."

서민아가 세 장을 번갈아 봤다. 보안등 불빛 아래서 그녀의 눈이 좁아졌다.

"그런데 패턴이 같다는 겁니까?"

"같습니다. 수변 환경 접촉물과 내륙 저장 환경물이 한 시신 또는 한 운반 도구에서 동시 검출됩니다. 세 건 모두."

'화재는 화재로, 암매장은 실종으로, 별장은 자연사로 처리됐다. 사건 유형은 전부 달랐다. 그런데 곤충 시간축이 같은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서민아는 장갑 낀 손으로 암매장 사진을 집었다. 사진을 기울여 보안등 빛에 비추었다. 손글씨를 다시 읽었다. 내려놓았다.

"환경이 다른 현장에서 동일한 흔재 구성이 반복되면, 그건 현장 조건이 아니라 조작 조건이 같다는 뜻인데."

"그겁니다."

한시윤이 세 장을 겹쳤다. 순서대로. 화재, 암매장, 별장.

"시신을 수변에서 회수하고, 내륙 저장소를 거쳐, 최종 현장에 재배치하는 동선. 세 건 다 같은 습관이 찍혀 있습니다."

서민아가 한시윤을 봤다. 2초. 3초.

"개별 사건이 아니라는 거군요."

한시윤은 사진을 파일에 끼웠다. 파일 모서리가 바람에 떨렸다.

"같은 손이 만든 같은 공정입니다."

현장수습원이 봉인 상자를 차량에 싣는 소리가 들렸다. 쿵. 서민아는 장갑을 벗었다. 천천히, 손가락 하나씩.

---

진입로 통제선 앞에 윤태건이 서 있었다. 담배를 입에 물었다가 불을 붙이지 않고 빼서 주머니에 넣었다. 한시윤이 증거 상자를 양손에 들고 걸어왔다.

"끝난 겁니까?"

"별장 건은 끝났습니다."

한시윤은 상자를 차량 뒤편에 넣고 문을 닫았다. 잠금 고리가 찰칵 걸렸다.

윤태건이 뒷목을 문질렀다. "그런데 아까 응접실에서 한 감정관 표정이 좀."

"뭐가요."

"끝난 사람 표정이 아니었어요."

한시윤은 차량 옆면에 등을 기댔다. 차체 금속이 밤공기에 차가웠다. 그 한기가 등을 타고 올라왔다.

"윤 형사. 사건이 세 개였습니다."

"압니다."

"세 개가 같은 공정에서 나왔습니다."

윤태건이 돌아봤다.

"화재는 화재처럼, 매장은 실종처럼, 별장은 병사처럼 보이게 만들었는데, 시신을 옮기고 현장을 세팅하는 절차가 동일합니다. 누군가 살인만 하는 게 아니라, 사건의 형태를 만드는 표준 절차를 갖고 있어요."

'사건이 아니라 절차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분류하는 것이다. 화재로 분류, 실종으로 분류, 병사로 분류. 카탈로그처럼.'

"사건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윤태건이 손을 멈췄다. 뒷목에서 손이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잡은 건—"

"절차 중 하나를 부순 겁니다. 전체를 부순 게 아닙니다."

바람이 호수 쪽에서 올라왔다. 소나무 가지가 흔들리면서 진입로 가로등 빛이 두 사람의 발밑에서 출렁였다.

한시윤의 단말기가 울렸다.

짧은 진동. 두 번. 세 번째에 한시윤이 화면을 열었다.

---

특별 통신 차량 내부는 좁았다. 모니터 세 대가 벽면에 박혀 있었고, 케이블 묶음이 바닥을 지렁이처럼 기어다녔다. 한시윤과 윤태건이 올라타자 차량이 미세하게 기울었다.

운전석 뒤 접이식 좌석에 남자가 앉아 있었다. 키가 컸다. 앉아 있어도 천장에 머리가 가까웠다. 재난안전복 위에 조끼를 걸치고, 무릎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고 있었다.

장도혁이었다.

"한시윤 박사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장도혁은 인사를 생략했다. 태블릿을 들어 모니터 하나에 연결했다. 화면이 켜지는 데 2초. 그 사이에 장도혁은 이미 말을 시작했다.

"충북 제천 방면 국도에서 관광 버스 한 대가 교각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3시간 전입니다. 승객 41명, 현재 사망 확인 11명, 실종 추정 6명. 현장 접근로가 하나뿐인데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서 증거 유실 속도가 빠릅니다."

말이 빨랐다. 그런데 흐트러지지 않았다. 필요한 숫자를 순서대로 놓고 끊었다.

윤태건이 끼어들었다. "재난 현장이면 왜 법곤충 감정이—"

"사망자 한 명 상태가 이상합니다."

장도혁이 화면을 전환했다. 전복된 버스의 항공 촬영 사진이 떴다. 버스가 옆으로 누워 있었다. 지붕이 찢어져 있었고, 좌석이 밖으로 밀려나와 있었다.

"현장 초동 감식에서, 추락 충격과 맞지 않는 부패 진행을 보이는 시신이 한 구 발견됐습니다. 재난의학팀에서 자체 판단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시윤은 사진을 보고 있었다. 전복 버스의 하부 프레임이 드러나 있었다. 앞유리는 완전히 없었다. 좌석 잔해 사이로 구조대 형광 조끼가 점처럼 보였다.

장도혁이 화면을 다시 전환했다. 시신 근접 촬영 사진. 한시윤의 시선이 화면 오른쪽 하단에 가서 멈췄다.

집게가 공중에 걸린 것처럼, 손이 떴다.

화면 귀퉁이. 시신의 신발과 바닥 잔해 사이. 좌석 프레임 이음새에 끼어 있는 것.

갈색 각피 잔해. 그리고 그 옆에 푸른 기조의 유충 한 마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해안성 쉬파리였다. 제천 내륙 산간, 교각 아래 추락 현장에 해안성 종이 있을 이유는 없었다.

'저 조합.'

'수변 접촉물과 내륙 현장의 흔재. 또.'

"한 박사님?"

장도혁이 물었다.

한시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화면 속 각피 잔해의 곡면이 보안등 반사 때문에 반짝이고 있었다.

"저 표식, 전에 봤습니다."

윤태건이 한시윤의 얼굴을 봤다. 별장 차고 앞에서 봤던 그 표정이 다시 올라와 있었다. 끝난 사람의 얼굴이 아닌 것. 이제는 뭔지 알았다. 시작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한시윤이 장도혁을 봤다.

"출발합니다. 현장 닫지 마십시오. 다음이 바로 이어집니다."

장도혁이 고개를 한 번 끄덕였다. 태블릿을 접고 운전석 쪽을 두드렸다. 두 번.

엔진이 걸렸다.

모니터 위에서 전북 버스 사진이 차량 진동에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사진 귀퉁이, 해안성 쉬파리 유충의 푸른 몸이 화면 안에서 떨리고 있었다.

=====

## #21

구조대원 두 명이 장비를 철수하는 소리가 계곡 아래로 울렸다. 전복된 버스의 배 밑이 새벽 하늘을 향해 뒤집혀 있었고, 흙탕물이 아직 차체 밑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재난본부 직원이 현장 기록지에 펜을 굴리며 먼저 입을 열었다.

"급커브 과속, 노면 이탈 후 전복. 탑승자 전원 사망. 구조 종료됐으니까 도로공사 측이랑 복구 일정 맞추겠습니다."

한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버스 옆면도 보지 않았다. 시선이 향한 곳은 뒤집힌 차체의 좌측 후륜 휠하우스였다.

"저는 하부부터 보겠습니다."

재난본부 직원의 펜이 멈췄다.

"자문관님, 하부요? 구조대가 이미 전체 촬영—"

"촬영은 외관입니다. 휠하우스 안쪽 틈에 빛이 들어간 적 없습니다."

윤태건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구조대원 쪽을 향해 손을 들었다.

"잠깐만. 여기서부터 3미터 비워."

소방대원 하나가 호스를 끌다 멈췄다. 윤태건이 다시 말하지 않았다. 표정만으로 충분했다.

장도혁이 통신 차량 쪽에서 걸어왔다. 재킷 지퍼를 목까지 올린 채, 한시윤의 움직임을 보고 있었다.

"자문관님, 재난 현장은 다릅니다. 구조 종료 후엔 본부 판단이 우선입니다."

"압니다."

한시윤이 장갑을 꼈다. 라텍스가 손목에 붙는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서 짧게 탄성을 냈다.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장도혁은 손목시계를 봤다. 입술을 한 번 다물었다가 풀었다.

"이십 분."

"충분합니다."

한시윤은 휴대 조명을 켜고 뒤집힌 버스 하부로 다가갔다. 흙탕물이 장화 앞코를 덮었다. 차체 아래로 내려가는 경사에 무릎을 꿇자 진흙이 무릎 패드 위로 차올랐다.

"물 뿌리지 마십시오."

소방대원이 호스 밸브를 잠갔다. 이미 반쯤 열린 상태였다. 잔수가 바닥에 떨어지며 금속 하부판에 부딪혀 퍼졌다.

한시윤은 그 물줄기의 방향을 먼저 확인했다. 흘러간 곳을 눈으로 따라갔다. 아직 닿지 않은 구역을 머릿속에서 분리했다. 그리고 조명을 좌측 후륜 휠하우스 안쪽 가장자리에 밀어 넣었다.

'먼저 붙은 것부터 본다.'

빛이 금속 곡면을 타고 안쪽으로 기어들었다. 타이어가 빠진 림 안쪽, 펜더 라이너와 차체 프레임 사이 좁은 틈. 구조대 장비가 절대 닿지 않는 곳이었다.

한시윤의 손이 떴다.

이물충이 있었다. 두 겹.

바깥층은 예상대로였다. 산악 도로 노면의 풍화 화강암 입자. 거칠고 각진 편. 추락 시 튀어 오른 흙이 타이어 회전과 함께 안쪽에 박히는 패턴. 사고 현장과 일치하는 색, 일치하는 입도.

한시윤은 소형 스크레이퍼를 꺼냈다. 날 끝을 바깥층 가장자리에 걸었다. 0.5밀리 단위로 밀었다.

바깥층이 얇게 갈라졌다.

아래층의 색이 달랐다.

회색이 아니라 적갈색. 입자가 곱고, 표면에 미세한 기름기가 얹혀 있었다. 풍화 화강암과는 구조 자체가 다른 토양. 한시윤은 스크레이퍼 날 위에 올라온 입자를 조명 아래로 가져갔다.

손가락 끝으로 비비지 않았다. 대신 코를 가져갔다.

짚내.

아주 열었지만 있었다. 산악 도로 해발 480미터 지점에서 나올 수 없는 냄새.

핀셋으로 아래층 가장자리를 집었다. 건조 입자 몇 알이 면봉 위에 올라왔다. 그 사이에 뭔가 섞여 있었다.

딱정벌레 잔해.

한시윤은 확대등을 갈아 끼웠다. 배율을 높였다. 금속 틈 안쪽에 잘게 부서진 껍질 파편이 세 점 보였다. 앞가슴등판 조각 하나, 딱지날개 파편 둘. 크기로 보면 체장 4밀리 이하 소형종. 색은 흑갈색에 가까운 암녹색.

'이건 Dermestidae가 아니다. 각도하고 크기가 안 맞아.'

면봉을 바꿨다. 파편 하나를 증거 봉투에 넣고, 라벨에 채집 좌표를 적었다. 좌측 후륜 휠하우스 내측 틈, 하층. 시각 04시 38분.

소금기와 함께 나온 곤충 잔해. 산악 도로 단독 노출로는 설명되지 않는 조합이었다.

한시윤은 봉투를 밀봉하고 주머니에 넣었다. 일어서지 않았다. 다음 틈으로 조명을 옮겼다. 우측 후륜. 같은 위치, 같은 깊이. 바깥층을 걷어내자 적갈색 토양이 또 나왔다. 여기엔 소금기가 더 진했다.

'두 바퀴 다. 편측이 아니라 양쪽이면 스플래시가 아니다. 주행 중 장시간 노출이다.'

장도혁이 통제선 바깥에서 서 있었다.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시선은 한시윤의 손 위치를 따라가고 있었다.

시간이 십사 분째였다.

한시윤이 마침내 일어섰다. 무릎의 진흙을 털지 않았다. 그대로 안치 구역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시신 일곱 구가 임시 방수포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태그가 묶여 있었고 체온 기록지가 각 시신 옆에 클립으로 고정돼 있었다. 새벽 공기가 계곡을 타고 올라왔다. 체감 온도가 한 단계 더 내려간 구간이었다.

한시윤은 1번 시신부터 걸었다. 걸음이 느렸다. 각 시신의 노출 부위를 보는 시간은 짧았지만, 멈추는 위치가 달랐다. 얼굴이 아니라 손목, 발목, 목선의 접힌 피부 아래.

3번 시신에서 한시윤의 걸음이 끊겼다.

목 옆 접힘부에 구더기가 있었다. 1령. 크기로 보면 부화 후 6시간에서 10시간 사이.

'추락이 어젯밤 9시. 발견이 11시 40분. 지금이 새벽 4시 40분. 사망 후 최대 7시간 40분.'

현장 온도 기준 1령 유충이 이 크기에 도달하려면 최소 12시간이 필요했다.

한시윤은 4번 시신으로 갔다. 비슷한 위치. 여기는 유충이 없었다. 5번도 없었다. 6번에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접근 부위가 달랐다. 안와부가 아니라 겨드랑이 안쪽. 산란 부위 선호도가 종마다 다르지만, 같은 현장에서 같은 시간에 노출된 시신이라면 접근 패턴이 유사해야 했다.

균일하지 않았다.

한시윤은 채집 튜브를 열었다. 3번 시신의 1령 유충 두 마리를 옮겼다. 핀셋 끝에 유충이 꿈틀거렸다. 투명에 가까운 체벽 사이로 소화관이 비쳤다.

"한 감정관."

윤태건이 뒤에 서 있었다.

"이게 단순 사고 아니란 겁니까."

한시윤은 튜브를 닫았다. 라벨을 붙였다.

"아직 결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표정이 결론이잖아."

한시윤은 윤태건을 봤다. 잠깐이었다.

"같은 버스 안에서 같은 시각에 죽었다면, 곤충 접근 단계는 시신마다 거의 같아야 합니다. 온도, 습도, 노출 면적이 동일하니까."

"다른 겁니까."

"3번과 6번은 진행 단계가 다릅니다. 나머지는 접근 흔적 자체가 없거나 극미량이고."

윤태건이 침을 삼켰다. 목젓이 움직이는 게 새벽빛에 보였다.

"이 현장 이전 시간이 있습니다."

윤태건이 말을 끊지 않았다. 한시윤도 더 말하지 않았다.

재난본부 직원이 안치 구역 쪽으로 오고 있었다. 걸음이 빨랐다.

"자문관님, 시신 이송 차량 대기 중입니다. 유가족도 대기소에 나와 있고요. 혼선이 길어지면—"

"형사선에서 보존 요청합니다."

윤태건이 등을 돌리며 말했다. 재난본부 직원의 눈이 좁아졌다.

"보존이요? 구조 종료된 재난 현장인데—"

"시신 접근 흔적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감식이 끝날 때까지 이송 보류해 주십시오."

재난본부 직원은 윤태건을 보다가 한시윤을 봤다. 한시윤은 시신 앞에 쪼그려 앉아 튜브 라벨을 적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지 않았다.

"...삼십 분 이상은 못 줍니다."

윤태건은 고개만 끄덕였다.

한시윤은 다시 버스 하부로 갔다. 장도혁이 통제선 앞에 아직 서 있었다. 팔짱이 풀려 있었다. 한 손이 무전기 위에 올라가 있었다.

"장 조사관."

"예."

"차량 하부 물 닿지 않게 보존 가능합니까?"

장도혁은 대답 대신 무전기를 눌렀다.

"현장 3구역 살수 전면 중단. 차량 하부 접근 통제. 본부 확인될 때까지 유지."

무전 끝에 응답이 돌아왔다. 장도혁은 한시윤을 봤다.

"추가 검체 채취는 지금 하십시오. 날이 밝으면 본부 판단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시윤은 고개를 숙여 답했다. 다시 무릎을 꿇었다. 진흙이 같은 자리에 다시 차올랐다.

좌측 후륜 틈을 한 번 더 열었다. 이번엔 스크레이퍼 대신 핀셋만 썼다. 금속 프레임 접합부, 용접 비드 사이. 리벳 머리와 프레임 가장자리 사이에 0.3밀리 정도의 간극이 있었다. 조명을 기울였다.

거기에 끼어 있었다.

딱지날개 한 쪽. 부서지지 않은 완형. 길이 3.2밀리. 색은 청동색에 가까운 녹색. 표면에 점각열이 규칙적으로 나 있었다. 다리 잔해는 없었고, 날개만 단독으로 금속 틈에 압착돼 있었다.

해안성 반날개과.

한시윤의 손이 한 번 떨렸다. 핀셋이 미세하게 흔들렸다가 곧 멈췄다.

'이건 산에서 붙은 게 아니다.'

이 종은 해안 표착물과 해조류 부패층에 서식한다. 내륙 산악 도로 해발 480미터 지점에서 채집된 기록은 없다. 어디에도.

한시윤은 날개를 증거 봉투에 넣었다. 핀셋 끝에서 봉투 안으로 미끄러지는 동안, 얇은 각질이 비닐 표면에 닿으며 거의 들리지 않는 마찰음을 냈다.

라벨을 적었다. 좌측 후륜 프레임 접합부 리벳 간극, 하층. 시각 04시 57분.

"이건 산에서 붙은 게 아닙니다."

윤태건이 옆에 서 있었다. 언제 와 있었는지 모른다.

"웬니까."

"해안성 종입니다. 이 차량은 추락 전에 다른 환경을 탔습니다."

윤태건의 턱이 한 번 움직였다. 말을 만들다가 멈춘 동작이었다.

한시윤은 봉투를 밀봉했다. 투명 비닐 안에서 청동빛 딱지날개가 조명을 받아 미세하게 빛났다. 점각열이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었고, 가장자리에 소금 결정 하나가 아직 붙어 있었다.

그것이 이 산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은, 봉투를 든 한시윤의 손보다 더 조용하게 현장 위에 놓여 있었다.

=====

## #22

검체표 열일곱 장을 시신 태그 번호순으로 깔았다가 한시윤은 전부 건너뛴다. 번호순이 아니었다. 시간순이어야 했다.

화이트보드 위에 가로축을 그었다. 왼쪽 끝에 추락 추정 시각 '15:42'를 적고, 오른쪽 끝에 구조대 최초 도착 시각 '16:31'을 적었다. 49분. 이 안에 탑승객 전원의 사망이 들어가야 공식 발표가 성립한다.

한시윤은 첫 번째 검체표를 집었다. 시신 5번. 채집 부위: 좌측 경부 열창 내벽. 녹색 금파리 1령 유충. 체장 2.1밀리. 천막 안 온도계를 확인했다. 외부 기온 19도. 시신 수습 시점 체표 온도 기록지를 꺼내 숫자를 대조했다. 연필 끝이 가로축 위를 미끄러지다가 '15:42' 근처에 멈췄다. 이걸 맞았다. 추락 직후 사망과 곤충 접근 시간이 겹친다.

시신 5번. 채집 부위: 우측 대퇴부 개방 골절면. 같은 녹색 금파리 1령. 그런데 체장이 3.8밀리. 같은 종, 같은 령이면 온도가 동일할 때 체장 차이는 시간 차이다. 한시윤은 사육 데이터 시트를 펼쳤다. 19도 기준 1령 유충 성장률 시간당 약 0.18밀리. 1.7밀리 차이. 9시간 이상.

연필이 가로축 왼쪽으로 밀려났다. '15:42'보다 최소 아홉 시간 전. 새벽 6시대.

세 번째 검체표. 시신 9번. 채집 부위: 복부 열창. 여기엔 금파리가 아니라 검정파리 1령이 있었다. 검정파리는 금파리보다 도달이 늦다. 늦게 오는 종이 먼저 죽은 시신에 붙는다는 건 그 시신이 더 오래 노출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한시윤은 이 검체표를 가로축 바깥에 놓았다. 49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한 박사."

윤태건이 천막 입구에서 커피를 들고 서 있었다. 한시윤은 돌아보지 않았다. 네 번째 검체표를 집어 들고 있었다.

"같은 버스인데 시간이 다릅니다."

"뭐가요?"

"시신마다 곤충 접근 시간이 다릅니다. 전부 같은 시각에 추락했으면 유충 성장 단계가 동일해야 합니다. 5번은 맞고, 3번은 아홉 시간 앞서고, 9번은 가로축 밖입니다."

윤태건이 커피를 내려놓았다. 화이트보드를 봤다.

"구조 과정에서 시신 위치가 바뀐 거 아닙니까? 끌어내면서 오염됐을 수도—"

"채집 위치가 체내입니다." 한시윤이 검체표를 뒤집어 보여줬다. 채집 부위란에 '열창 내벽'이라고 적혀 있었다. "표면 오염이면 체표에서 나옵니다. 이걸 상처 안쪽에서 나왔어요. 구조대가 상처 속에 유충을 밀어 넣지는 않습니다."

윤태건의 커피잔에서 김이 올라오다가 바람에 꺾였다.

천막 밖에서 재난본부 직원이 들어왔다. 클립보드를 끼고 있었다. 공식 발표 초안이 안쪽에 보였다.

"한 박사님, 검체 정리 완료되면 본부 쪽에 사본 넘겨주셔야 합니다. 발표 시한이—"

"넘기기 전에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한시윤이 화이트보드를 가리켰다. 가로축 위에 점이 다섯 개 찍혀 있었다. 세 개는 '15:42' 근처에 몰려 있었고, 두 개는 왼쪽으로 크게 벗어나 있었다.

"이 두 시신은 추락 시점에 이미 사망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원 동시 사망으로 묶으시면 안 됩니다."

재난본부 직원의 펜 끝이 클립보드 위에서 멈췄다. "구조 혼선 과정에서 수습 순서가 뒤바뀌면 시간차가 생길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수습 순서는 시신 밖의 문제입니다. 유충 성장은 시신 안의 시간입니다. 상처 내벽 온도, 습도, 폐쇄 정도까지 변수에 넣어도 9시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재난본부 직원이 클립보드를 한 번 내려다봤다. 올려다봤다. 아무 말 없이 천막을 나갔다.

'공문이 먼저 나가면 시간표는 굳는다. 굳으면 못 뒤집어.'

한시윤이 윤태건을 봤다. "발표 전에 시신 다시 봐야 합니다."

---

안치 구역은 천막 세 동 너머에 있었다. 형광등이 낮게 깔리고, 바닥에 임시 냉각 패드가 줄지어 놓여 있었다.

냄새가 달랐다. 분석 천막은 약품 냄새였고, 여기는 조직이 천천히 풀리는 냄새였다. 달콤하고 무거운 냄새. 숨을 얇게 쉬어도 혀 안쪽까지 밀고 들어왔다.

서민아가 먼저 와 있었다. 시신 번 앞에 무릎을 꿇고 태블릿에 사진을 찍고 있었다. 녹음기가 옆에 놓여 있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다.

"서 박사."

"봤습니다. 3.번이랑 9번."

서민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태블릿 화면을 넘겼다. 시신 3.번 우측 대퇴부 개방 골절면의 확대 사진이 떴다.

"골절면 가장자리 출혈 반응이 약합니다. 추락 충격이면 골막하 출혈이 광범위해야 하는데, 여기는 국소적이네요."

"사후 골절이란 겁니까?"

"사후 단독은 아닙니다. 생활 반응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서민아가 태블릿을 한시윤 쪽으로 돌렸다. 골절 단면의 색 차이가 선명했다. 가장자리는 붉고, 안쪽은 희었다.

"출혈이 이 정도면 심장이 뛰고 있긴 했는데 혈압이 극도로 낮았다는 뜻입니다. 이미 대량 실혈 상태에서 이차 손상을 입은 거예요."

한시윤이 검체 사진을 꺼냈다. 같은 부위, 같은 골절면 안쪽에서 채집한 녹색 금파리 1령 사진.

"이 유충 체장으로 역산하면 최초 접근 시점이 추락 아홉 시간 전입니다. 그때 이미 개방 상처가 있었고, 파리가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서민아가 녹음기 쪽을 한 번 봤다. 돌아가고 있었다.

"외상은 같아 보여도 시간축은 안 맞습니다."

둘 다 잠깐 멈췄다.

한시윤이 먼저 말했다.

"조직 시간축하고 곤충 시간축이 같은 방향이면—"

"한쪽이 틀릴 확률은 있어도 둘이 같이 틀릴 확률은 거의 없죠."

그게 전부였다.

서민아가 시신 9번 쪽으로 이동했다. 한시윤이 뒤따랐다. 9번의 복부 열창을 열고, 서민아가 조직 변색 범위를 측정하는 동안 한시윤은 열창 내벽의 유충 탈피각 잔해를 핀셋으로 집어 봉투에 넣었다.

탈피각이 두 개. 1령에서 2령으로의 전환 흔적. 19도 기준 최소 24시간. 추락보다 하루 이상 전에 이 상처는 벌어져 있었다.

핀셋 끝이 봉투 입구에 닿는 소리가 텐트 천에 부딪혀 돌아왔다.

"9번은 3.번보다 더 앞섭니다. 최소 하루."

서민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직 자가분해 진행도가 그걸 뒷받침했다.

---

분석 천막으로 돌아왔을 때 재난본부 직원이 다시 와 있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 한 명 더 서 있었다. 직급이 높아 보였다.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클립보드가 아니라 출력물 뭉치를 들고 있었다. 공식 발표 초안. 상단에 '탑승객 17명 전원 사고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 박사님, 발표 시한이 오후 6시입니다. 감식 결과 미확정 상태로는 배포를 미룰 명분이 없습니다."

한시윤은 출력물을 받지 않았다.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사망 추정 시각표 보십시오. 15번 시신까지 검체 분석이 끝났습니다. 이 중 네 구의 사망 시점이 추락보다 앞서 있습니다."

'네 구. 늘었다.'

윤태건이 천막 안에서 걸어 나왔다. 사망 추정 시각표 사본을 이미 들고 있었다.

넥타이를 맨 직원이 시각표를 봤다. 점 네 개가 가로축 왼쪽으로 벗어나 있었다. 하나는 9시간, 하나는 24시간 이상, 나머지 둘은 6시간에서 12시간 사이.

"이건 검체 오염이나 현장 교란 가능성을 배제한 겁니까?"

"채집 부위가 전부 상처 내벽입니다. 외부 교란으로 상처 안쪽에 유충이 삽입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과수 쪽 조직 시간축도 동일한 방향입니다."

"동일한 방향이라는 게—"

"추락 전에 이미 죽은 시신이 섞여 있습니다."

천막 안이 조용해졌다. 형광등 안정기가 지잉 소리를 냈다. 바람에 천막 모서리가 펄럭였다.

넥타이를 맨 직원이 출력물을 반으로 접었다. 펴지도 않았다.

"이 내용이 발표에 반영되면 사건 분류가 바뀝니다."

"바뀌어야 맞습니다."

윤태건이 끼어들었다.

"배포 전에 사건 성격 재검토 요청 올리겠습니다. 관할 강력계 명의로. 발표는 검토 완료 시까지 보류해 주십시오."

장도혁이 천막 입구에서 한 발 들어왔다. 언제 온 건지 모르겠다.

"현장 접근 허가 24시간 연장 넣겠습니다. 본부장 직결 라인으로."

넥타이를 맨 직원이 장도혁을 봤다. 장도혁을 봤다가 윤태건을 봤다가 한시윤을 봤다.

출력물을 클립보드에 끼웠다. 배포하지 않았다.

"검토 완료되면 즉시 통보해 주십시오."

천막을 나갔다. 발소리가 자갈 위에서 짧게 끊겼다.

윤태건이 숨을 내쉬었다.

"6시 넘기면 다른 라인에서 밀어붙일 겁니다."

한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화이트보드 앞에서 나머지 검체표 두 장을 집어 들었다. 16번과 17번. 아직 대조가 안 끝났다.

---

저녁이 되자 천막 안에 그림자가 길어졌다. 형광등 하나가 깜박이다 안정됐다.

서민아가 부검 1차 소견서를 들고 들어왔다. A4 일급 장. 시신별 외상 분포와 조직 상태가 정리되어 있었다. 한시윤의 채집 기록표 옆에 나란히 놓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대조했다. 서민아가 왼쪽 열을 읽고, 한시윤이 오른쪽 열을 읽었다.

시신 3번.

부검 소견: 대퇴부 개방 골절, 골막하 출혈 국소적, 조직 자가분해 초기. 곤충 데이터: 녹색 금파리 1령, 체장 3.8mm, 추정 선행 시간 9시간 이상.

시신 9번.

부검 소견: 복부 열상, 장간막 부분 노출, 조직 변색 진행 중기. 곤충 데이터: 검정파리 1령 + 탈피각 2매, 추정 선행 시간 24시간 이상.

시신 12번.

부검 소견: 두부 열상, 경막외 출혈 불균일, 조직 건조 진행. 곤충 데이터: 녹색 금파리 2령, 체장 6.2mm, 추정 선행 시간 12시간 이상.

시신 16번.

부검 소견: 경부 좌상, 설골 미세 골절 의심, 출혈 반응 불명확. 곤충 데이터: 금파리 1령, 체장 3.1mm, 추정 선행 시간 6시간 이상.

네 줄 모두 같은 방향이었다. 추락보다 앞섰다.

서민아가 적색 펜을 꺼냈다. 캡을 열었다. 소리가 작았다. 뚜껑 안쪽 공기가 빠지는 소리.

사망 추정 시각표 위에 시신 3.번의 공식 시각 '15:42~16:00'을 가로로 그었다. 그 위에 적었다. '06:00 이전 추정.'

9번. 가로줄. '전일 15:00 이전 추정.'

12번. 가로줄. '03:00 이전 추정.'

16번. 가로줄. '09:00 이전 추정.'

적색 잉크가 흰 종이 위에서 마르지 않은 채 형광등 빛을 받았다. 잉크 표면이 미세하게 반짝이다가 스며들었다.

서민아의 펜 끝이 16번 시각 옆에서 멈춰 있었다. 캡을 닫지 않았다.

한시윤은 그 손을 봤다. 펜을 쥔 손가락 끝에 라텍스 장갑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다. 오래 끼고 있었다는 뜻이다.

천막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천이 부풀었다가 내려앉았다.

사망 시각표 위의 적색 숫자 네 줄이, 검은 공식 시각 위를 덮고 있었다.

=====

## #23

노트북 화면이 둘로 나뉘어 있었다.

왼쪽에 버스 탑승자 명단 서른일곱 명. 오른쪽에 최근 6개월간 보험 증액 이력. 한시윤은 커서를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일 필요가 없었다. 겹치는 이름이 눈에 들어오는 데 3초면 충분했다.

서른일곱 명 중 여덟 명.

여덟 명 전원, 사고 발생 45일 이내에 사망보험금이 두 배 이상 증액돼 있었다.

한시윤은 형광등이 없는 검토실 안에서 모니터 빛만 받고 있었다. 보험사 자료 검토실은 창문이 없었다. 환기구 하나, 출입문 하나, 벽면 캐비닛 넷. 바닥에 깔린 타일이 약간 들떠서 의자를 뒤로 빼면 덜컹거렸다. 문 바깥에서 복도 정수기가 간헐적으로 압축 소리를 냈다.

윤태건이 문을 열었다. 서류 봉투 두 개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한시윤 옆 의자를 당겨 앉았다. 의자 다리가 타일 이음새에 걸려 짧게 끌렸다.

"명단 확보했습니다. 국과수 쪽에서 시신 신원 대조도 나왔고, 보험사 쪽 지급 예정표는 김세라 팀장이 직접 가져온 겁니다."

한시윤은 봉투를 열지 않았다. 모니터를 가리켰다.

"윤 형사, 여기 보십시오."

화면에 여덟 개 이름이 노란 표식으로 잡혀 있었다. 한시윤이 각 이름 옆에 병기한 숫자는 증액 일자와 증액 배율이었다. 1.8배, 2.3배, 2.1배, 3.0배. 윤태건은 숫자를 훑다가 입을 다물었다.

"전원 사고 한 달 반 안에 올린 겁니까?"

"45일. 가장 이른 건 39일 전, 가장 늦은 건 12일 전입니다."

윤태건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숨을 한 번 뱉었다.

문이 다시 열렸다. 김세라가 들어왔다. A4 크기의 투명 파일을 가슴 앞에 안고 있었고, 뒤따르는 보험 실무자가 노트북 하나를 추가로 들고 왔다. 김세라는 자리에 앉지 않았다. 서서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고 한시윤을 봤다.

"한 박사, 요청하신 지급 예정표 원본입니다. 다만 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한시윤이 고개를 들었다.

"우린 지급 기준만 봅니다. 사인 판정이나 사건성 여부는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톤이 평평했다. 경계도 적의도 아니었다. 업무 경계선을 물리적으로 표시하는 방식이었다. 한시윤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파일을 집어 펼쳤다.

지급 예정표에는 사망자별 보험금 산출 기준, 증액 시점, 증액 승인자 코드가 적혀 있었다. 한시윤은 승인자 코드를 먼저 봤다. 여덟 건 중 다섯 건의 승인자 코드가 동일했다.

'같은 손이다.'

"김세라 팀장."

"예."

"저는 감정을 묻는 게 아닙니다. 구조를 묻겠습니다."

김세라가 미세하게 눈을 좁혔다.

"이 여덟 명의 증액 건, 왜 동일 승인자 코드입니까. 그리고 왜 이 시점에 집중됐습니까."

김세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실무자가 뒤에서 노트북 화면을 열다가 손을 멈추고 김세라를 봤다. 김세라는 그쪽을 보지 않았다.

"승인 코드는 지점장급 결재 라인입니다. 집중 시점은……통계적 우연일 수도 있고."

"특정 승객만 증액됐습니다."

한시윤이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손가락 끝이 여덟 번째 이름 위에 멈춰 있었다.

"서른일곱 명 중 여덟 명. 21.6퍼센트가 동일 시기에 동일 승인자 라인으로 증액됐고, 나머지 스물아홉 명은 최근 1년간 변동 이력이 전혀 없습니다. 통계적 우연이라면 분포가 이렇게 뭉치지 않습니다."

김세라의 입술이 한 번 닫혔다가 열렸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뒤에 서 있던 실무자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환기구 소음 사이로 짧게 끼어들었다.

윤태건이 봉투를 열어 국과수 대조표를 꺼냈다. 한시윤은 그것을 받아 모니터 옆에 세웠다.

---

재난 현장 분석 공간은 천막이 아니라 인근 마을회관 1층을 징발한 것이었다. 바닥에 비닐 시트가 깔려 있었고, 접이식 테이블 네 개가 ㄷ자로 배치돼 있었다. 시신 사진이 번호순으로 벽에 고정돼 있었고, 그 아래 곤충 채집표가 클립으로 매달려 있었다.

서민아가 테이블 끝에서 조직 시간축표를 정리하고 있었다. 한시윤이 들어왔을 때 서민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펜 끝이 시간축 위 특정 구간을 반복해서 짚고 있었다.

"한 박사."

"서 박사."

"7번, 11번, 15번. 세 구체에서 다시 혼재 패턴 나왔습니다."

한시윤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서민아 옆으로 갔다. 조직 시간축표 위에 세 시신의 부패 진행도가 색깔별로 찍혀 있었다. 7번의 근육 조직 분해 속도가 현장 노출 환경과 맞지 않았다. 12번은 피부 변색 패턴이 이중으로 겹쳐 있었다. 15번은 장기 부패 속도만 따로 빨랐다.

"해안성 쉬파리 2령과 내륙 저온 Calliphora 1령. 이 세 시신 모두에서 동시 채집됐습니다."

서민아가 펜을 내려놓았다.

"조직 시간축으로도 맞지 않아요. 이 세 시신은 최소 36시간 이상 현장 이외의 환경에 노출된 적 있습니다. 온도가 다른 곳이에요."

한시윤이 가방에서 보험 계약 복사본을 꺼냈다. 접이식 테이블 위에 펼쳤다. 7번, 11번, 15번.

세 번호 모두 여덟 명 안에 들어 있었다.

서민아는 계약서를 보고, 시간축표를 보고, 다시 계약서를 봤다. 시선이 왕복하는 동안 손이 테이블 모서리를 잡았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회수 구조입니다."

한시윤의 목소리는 올라가지 않았다. 내려가지도 않았다. 숫자를 읽는 톤이었다.

"선별된 대상을 먼저 죽이고, 대형 사고로 묶어서 처리한 겁니다. 보험금은 사고사 기준으로 지급되니까."

감식관 하나가 벽에 기대어 서 있다가 팔짱을 풀었다. 풀고 나서 다시 껴다.

장도혁이 입구 쪽에 서 있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를 타이밍이었다. 한시윤은 봤고, 장도혁도 봤다. 둘 다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한시윤이 사진 세 장을 떼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다. 발목 부위만 확대한 사진이었다. 세 시신 모두 동일 위치에 토양 부착 흔적이 있었고, 그 위에 유충 잔해가 묻어 있었다.

"운반 루트가 같다는 겁니다. 최소 해안을 한 번 경유했고, 보관 온도는 현장보다 낮았습니다."

서민아가 시간축표 위에 세 시신의 추정 사망 시각을 다시 찍었다. 공식 발표보다 모두 앞으로 밀려 있었다. 최소 이틀. 최대 사흘 반.

"이 시간차를 버스 추락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장도혁이 한 발짝 앞으로 왔다. 목소리가 낮았다.

"한 박사. 이 결론이 나가면 공식 구조 판단이 흔들립니다."

한시윤이 장도혁을 봤다.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바로잡히는 겁니다."

장도혁은 입을 다물었다. 3초. 그리고 뒤돌아서 입구 쪽 통제선 관리 인력에게 손짓했다.

"이 공간 자료 반출 건, 내가 확인한 걸로 올려."

묵인이었다. 한시윤은 사진을 다시 챙겼다.

---

오후 네 시. 보험사 전산 접근 구역. 한시윤과 윤태건이 김세라의 안내로 들어갔다. 보안카드 두 번, 유리문 하나, 복도 끝 전산실이였다. 서버 소음이 바닥까지 미세하게 진동했다. 에어컨이 아니라 서버 냉각 팬이 공기를 차갑게 만들고 있었다.

김세라가 단말기 앞에 앉았다. 실무자가 옆에서 접속 권한을 입력했다.

"한 박사가 요청한 여덟 건의 원본 계약 파일, 전산에서 불러오겠습니다."

화면이 떴다. 파일 목록이 로딩됐다.

여덟 건 중 세 건의 파일 상태가 달랐다. 나머지 다섯 건은 '정상'으로 표시돼 있었고, 세 건은 '삭제 후 복구' 상태였다. 복구 일시가 파일명 옆에 찍혀 있었다. 삭제 시도 시각은 오늘 새벽 세 시 이십칠분.

윤태건이 화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서버 소음 위로 짧게 갈렸다.

"새벽 세 시?"

김세라가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았다. 화면을 보고 있었다. 눈이 한 번도 깜빡이지 않았다.

'내부다.'

한시윤은 김세라의 얼굴이 아니라 화면 하단의 접속 로그를 봤다. 삭제 시도 계정은 김세라의 것이 아니었다. 권한 등급이 한 단계 위였다.

"김 팀장."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늦춘 쪽이 아니라 먼저 지운 쪽을 보십시오."

김세라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떴다. 1센티미터. 다시 내려놓았다.

윤태건이 뒤를 돌아봤다. 복도 쪽에 경비원 하나가 서 있었다. 경비원은 유리문 안쪽을 보지 않고 있었다. 일부러 안 보는 자세였다.

"로그 전체 캡처합니다."

윤태건이 휴대전화를 꺼냈다. 김세라가 막지 않았다. 실무자가 한 발 뒤로 물러났다.

한시윤이 접속 로그를 한 줄씩 읽었다. 삭제 시도는 세 건이었고, 세 건 모두 보험 증액 대상 중 시간축이 가장 크게 어긋난 시신에 해당하는 계약이었다.

'같은 세 명이다. 시신도, 보험도, 삭제 시도도.'

"김 팀장, 이 삭제 계정의 접속 위치 뽑을 수 있습니까?"

김세라가 실무자를 봤다. 실무자가 키보드를 쳤다. 접속 IP가 떴다. 보험사 본사가 아니었다. 외부 VPN이었고, 경유지가 세 개였다.

"본사 내부가 아닙니다."

김세라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평평함을 잃었다. 잃었다가 바로 돌아왔다. 0.5초.

"한 박사, 이건 저한테도 처음 보이는 겁니다."

한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화면을 보고 있었다.

윤태건이 캡처를 마치고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으며 한시윤 쪽을 봤다. 한시윤은 윤태건을 보지 않고 말했다.

"윤 형사. 복구 요청서 정식으로 올리십시오. 삭제된 원본 파일 세 건, 서버 백업에서 뽑아야 합니다."

김세라가 일어났다. 의자를 밀지 않고 일어나서 서서 한시윤을 봤다.

"복구는 내부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김 팀장이 여는 게 빠를 겁니다."

".....내가 왜요."

"삭제 계정이 김 팀장 권한보다 윗선이라는 건 김 팀장도 지금 봤습니다. 이 계정이 지운 건 자료만이 아닙니다. 김 팀장의 입지도 같이 지워지고 있는 겁니다."

김세라의 시선이 화면에서 한시윤에게로 옮겨갔다. 오래 봤다. 윤태건은 둘 사이에서 숨을 참고 있었다.

"자료는 주죠."

김세라가 말했다. 감정이 아니었다. 손익이었다.

"복구 요청, 내 이름으로 올리겠습니다. 대신 수사 결과에서 보험사 내부 조력 여부가 나오면, 이 자리에서 제가 자발 협조한 이력 기록해 주십시오."

한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

---

밤. 서울 도심 고층 사무실. 통화가 끝난 휴대전화가 책상 위에 놓였다.

비서가 문 앞에서 서 있었다. 삭제 보고서를 양손으로 들고.

"삭제 시도 세 건 모두 복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보험사 내부 조사팀장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열었고, 경찰 쪽에서 접속 로그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대답이 바로 오지 않았다. 책상 뒤에 앉은 사람은 모니터 위에 띄워진 계약 파일 목록을 보고 있었다. 목록 옆에 한시윤의 이름이 메모로 적혀 있었다.

"감정사 한 명한테 로그를 내줬다?"

"자료 검토실 접근은 보험사 자체 안내였고, 전산 접근은——"

"물류 라인 점검 일정 당겨."

비서의 말이 잘렸다. 비서가 입을 다물었다.

"보안 담당한테 전해. 파일이 아니라 사람 동선을 정리하라고."

보안 담당자에게 전달될 문장은 그것뿐이었다. 이름을 부르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숫자를 지우듯 말했다.

비서가 나갔다. 문이 닫혔다.

모니터 불빛이 얼굴 반쪽만 비추고 있었다. 계약 파일 목록 위로 삭제 로그 시각이 선명했다. 03:27. 그 아래 복구 요청 접수 시각이 새로 찍혀 있었다. 16:41.

열세 시간 차이. 지웠는데 돌아온 것이다.

---

검토실 안. 시간은 자정을 향해 기울고 있었다. 한시윤은 혼자 남아 있었다. 모니터 두 대가 나란히 켜져 있었고, 왼쪽에는 시신 세 구의 곤충 채집표가, 오른쪽에는 복구된 파일 세 건의 접속 로그가 떠 있었다.

삭제 로그의 타임스탬프가 화면 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03:27. 같은 시각에 세 건이 동시에 지워졌다.

한시윤은 로그 아래 경유지 IP 세 줄을 천천히 읽었다. 펜을 들어 노트에 옮겼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빈 검토실에서 지나치게 선명했다. 환기구가 멈추어 있었다. 정수기 소리도 끊겨 있었다.

화면이 한 번 깜빡였다. 로그 목록이 갱신된 것이었다. 삭제 시도 뒤에 새로운 줄이 추가돼 있었다.

접속 시도. 오늘. 23:52. 지금으로부터 8분 전.

같은 외부 VPN. 같은 경유 경로.

누군가가 다시 들어오고 있었다.

=====

## #24

한시윤은 버스 하부에 엮드렸다.

새벽 보관 구역의 형광등은 셋 중 하나가 나가 있었고, 나머지 둘이 만드는 그림자가 차체 밑으로 비스듬히 깔렸다.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대자 냉기가 올라왔다. 장갑 낀 손이 타이어 홈을 더듬었다.

타이어가 아니라 기록이었다.

앞 차축 좌측 휠하우스 안쪽. 전복 충격으로 찌그러진 철판 사이에 흠이 눌러 붙어 있었다. 한시윤은 손전등 각도를 낮춰 표면을 비볐다. 눌린 흠의 단면이 드러났다. 두 층. 아래쪽은 입자가 곱고 색이 짙었다. 위쪽은 거칠고 붉은 기운이 섞여 있었다.

집게로 아래층 표면을 긁었다. 입자 사이에서 미세한 백색 결정이 손전등 빛에 반짝였다. 염분. 한시윤의 손이 멈췄다.

'해안성 토양이 아래에 있다.'

위층을 긁었다. 산화철이 섞인 점토질. 산악 도로의 절개지에서 흔히 떨어지는 종류였다. 풍화 정도로 보면 추락 현장 인근 토양과 유사했다.

문제는 순서였다.

아래가 해안이고 위가 산이면, 해안 쪽 흠이 먼저 붙었다는 뜻이다. 산에서 해안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해안 근처를 지난 뒤 산으로 올라간 것이다.

"윤 형사."

뒤에서 웅크리고 서 있던 윤태건이 고개를 숙였다. 콘크리트에 엎드린 한시윤의 등만 보였다.

"예."

"이 버스 운행 노선, 해안 도로 경유합니까?"

"아닙니다. 내륙 고속도로 타고 바로 산 쪽 국도로 빠지는 루트입니다."

한시윤이 차체 밑에서 빠져나왔다. 무릎의 먼지를 털지 않고 트레이를 꺼냈다. 아래층 샘플과 위층 샘플을 분리해서 담았다. 라벨에 채취 위치와 층위 번호를 적는 동안 집게 끝이 흔들리지 않았다.

"붙은 순서가 다릅니다."

윤태건이 트레이를 들여다봤다. 흙 두 덩이. 맨눈에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아래쪽에 염분 결정이 있습니다. 해안 인접 지역에서 묻은 흙이 먼저 타이어에 눌렸고, 그 위에 산악 도로 토양이 덮였습니다."

"해안 쪽을 먼저 스쳤습니다."

윤태건의 입이 닫혔다. 2초. 그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노선에 없는 길을 탔다는 겁니까."

"노선에 없는 길을 탄 게 아니라, 노선 밖 어딘가를 거쳤습니다. 순서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한시윤은 버스 뒤쪽으로 돌아갔다. 후방 차축 우측 타이어. 홈이 더 깊은 트레드 사이에 같은 이층 구조가 반복되는지 확인해야 했다. 손전등을 물고 엎드렸다. 고무 사이에 낀 자갈 하나를 집게로 뽑았다.

둥근 자갈이 아니었다. 모서리가 살아 있는 쇠설성 파편. 파쇄된 콘크리트 또는 포장재 잔해. 도로 위의 자갈이 아니라 구조물 바닥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이었다.

'이 버스는 비포장 구조물 위에 섰다.'

"윤 형사. 이동 경로 수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윤태건은 수첩을 접지 않았다. 펜을 돌리다 멈추더니 한시윤을 봤다. 3초 정도. 그리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운전 실수 사고로는 안 묶이겠네요."

한시윤은 대답 대신 쇠설 파편을 세 번째 트레이에 담았다.

감식관 한 명이 버스 외판 사진을 찍다가 셔터를 내리지 못하고 한시윤 쪽을 봤다. 아무 말도 안 했다. 침만 삼켰다.

---

아침이 되자 한시윤은 버스 안에 들어갔다.

좌석은 전복 충격으로 절반이 틀어져 있었다. 고정 볼트가 뽑힌 자리에 녹물이 번졌고, 시트 커버는 일부가 찢어진 채 말려 있었다. 한시윤이 본 것은 시트가 아니었다. 시트 아래였다.

채집 브러시를 꺼냈다. 앞쪽 셋째 줄 좌석. 시트와 바닥 사이 5센티미터 틈. 브러시 끝으로 먼지층을 천천히 밀었다. 먼지 아래에 작은 각피 잔해 두 점이 드러났다.

한시윤의 손이 떴다.

'추락 현장 주변 종이 아니다.'

각피의 크기와 형태. 구기목 계열 소형 곤충의 약충 탈피각이었다. 이 종은 야외 활동성이 낮다. 정차 상태에서 문이 열려 있을 때, 또는 환기구를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행 중 시속 60킬로 이상에서는 차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버스가 멈춰 있었다는 뜻이다. 충분한 시간 동안.

다섯째 줄. 같은 브러시 작업. 이번에는 각피가 없었다. 대신 미세한 날개 파편 하나. 가장자리 맥상 패턴을 보니 파리목이었다. 크기로 보면 소형 초파리과. 이것도 야외 이동성은 있지만 주행 차량 내부까지 능동적으로 침입하는 종은 아니었다.

"정상 운행만 한 차가 아닙니다."

뒤에서 서민아의 목소리가 왔다.

"몇 시간 정도로 봅니까?"

한시윤이 각피를 채집병에 넣으며 대답했다.

"약충 탈피각이 남을 정도면 정차 시간이 최소 수 시간입니다. 이 종은 유입 후 안착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30분 정차로는 각피가 안 남습니다."

서민아가 좌석 사진을 들고 위치를 대조했다. 셋째 줄과 다섯째 줄 사이. 그녀의 시선이 잠깐 멈췄다.

"셋째 줄에서 다섯째 줄 사이 좌석은 시신 네 구가 발견된 위치와 겹칩니다."

한시윤이 고개를 돌렸다.

"사망 추정 시각은요."

"네 구 모두 공식 추정은 추락 시점 전후 30분 이내. 그런데."

서민아가 사진 뒤에 적힌 메모를 읽었다.

"사후 경직 진행도를 보면 네 구 중 두 구는 다른 두 구보다 경직이 앞서 있었습니다. 차이가 작아서 보고서에는 개인차로 처리됐는데."

"정차 시간과 맞물릴 수 있겠습니까."

"시간축을 다시 잡으면 가능합니다. 정차 중 외부 개입이 있었다면 두 구의 사망 시점이 추락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한시윤은 채집병 뚜껑을 닫았다. 라벨에 좌석 번호를 적고, 아래에 '정차 추정 시간대 연관'이라고 썼다.

'누가 탔는지가 아니다. 이 버스가 언제, 어디서 멈춰 있었는지다.'

브러시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허리를 펼 때 등뼈가 울렸다.

---

오후.

재난 현장 외곽에 설치된 임시 천막 아래에 지도가 펼쳐졌다. A1 크기 지형도 위에 통행 기록 출력물이 놓였고, 한시윤이 가져온 샘플 트레이 세 개가 지도 옆에 줄지어 섰다.

장도혁이 먼저 움직였다.

말이 아니었다. 그는 지도 위에 마커펜으로 통제선 범위를 그렸다. 빨간 선. 그 바깥쪽에 파란 점 세 개를 찍었다.

"통제선 밖 접근 가능한 적재 구역 세 곳입니다. 하나는 폐쇄된 수산물 창고. 하나는 임시 자재 야적장. 하나는 폐업한 물류 터미널."

윤태건이 파란 점을 봤다.

"세 곳 다 해안 쪽입니까?"

"수산물 창고와 물류 터미널은 해안 1킬로 이내. 야적장은 3킬로."

한시윤이 트레이를 지도 위로 밀었다. 첫 번째 트레이—아래층 해안 토양. 두 번째—위층 산악 토양. 세 번째—쇄설 파편.

"이 파편은 포장재 잔해입니다. 도로가 아니라 구조물 바닥. 세 곳 중 콘크리트 바닥이 파손된 곳이 있으면 그곳이 첫 번째 후보입니다."

장도혁이 펜을 내려놓았다. 한시윤을 봤다. 1초.

"수산물 창고 바닥이 작년 태풍 때 갈라졌습니다. 보수 안 된 상태로 폐쇄됐습니다."

한시윤이 지도 위 수산물 창고 위치에 손가락을 짚었다. 해안에서 700미터. 추락 현장까지 산악 도로로 38킬로.

"여기서 붙은 흙이 아래에 깔리고 산악 토양이 위에 덮이려면 이 창고를 거친 뒤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윤태건이 수첩을 펼쳤다.

"CCTV는요."

장도혁이 대답했다.

"창고 자체에는 없습니다. 근데 진입로 200미터 전에 수협 위판장 외부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살아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장도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기를 들었다. 천막을 나갔다.

윤태건이 마커펜을 집었다. 수산물 창고에서 추락 현장까지 예상 이동 경로를 굵게 그었다.

"해안 창고에서 시신 일부를 싣거나 뭔가를 한 뒤 산으로 올린 거라면, 이건 운전 실수 사고가 아닙니다."

한시윤이 마커 선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사고가 아니라 공정입니다."

재난본부 직원 하나가 천막 입구에서 서류를 들고 서 있었다. 들어오지 못했다. 안의 공기가 무거웠다.

---

밤.

한시윤은 재난본부 상황실 밖 주차장에 세워진 윤태건의 차 보닛에 기대어 서 있었다. 커피는 식었다. 컵을 내려놓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윤태건은 차 안에서 통화 중이었다. 문이 열려 있어서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예, 수협 위판장 외부 카메라 영상, 보존 기간 확인 중입니다. 네."

전화가 끊겼다. 윤태건이 내릴 때 장도혁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헤드라이트가 두 사람을 훑고 지나갔다. 엔진이 꺼졌다.

장도혁이 내렸다. 손에 USB 하나와 휴대전화가 있었다.

그의 걸음이 빨랐다. 평소보다.

"확보했습니다."

윤태건이 반쯤 일어선 자세로 굳었다.

"수협 카메라요?"

"아닙니다. 수협 카메라는 각도가 안 됩니다. 대신 창고 진입로 건너편에 경비업체 야간 감시 카메라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폐업 후에도 녹화가 돌고 있었습니다."

한시윤이 컵을 보닛 위에 내려놓았다. 커피가 흔들렸다.

장도혁이 휴대전화 화면을 컸다. USB 영상의 캡처 한 장.

화면 속에 버스가 있었다.

야간 적외선 화질. 거칠었다. 그러나 차체 옆면의 운수업체 로고가 읽혔다. 추락한 버스와 같은 업체.

촬영 시각 타임스탬프—추락 발생 7시간 전.

버스는 폐쇄 창고 앞에 서 있었다. 정차 상태. 전조등 꺼짐. 차 옆에 사람 그림자가 두 개.

한시윤이 화면을 가까이 당겼다. 장도혁의 손이 살짝 밀렸다.

그림자 하나는 버스 짐칸 쪽에 서 있었다. 다른 하나는 창고 안에서 나오는 중이었다. 뭔가를 들고 있는 것 같았지만 화질이 거기까지는 잡지 못했다.

"한 박사."

장도혁이 말했다.

호칭이 바뀌어 있었다. 한시윤은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다.

"한 박사 말대로 통제선 바꿉니다. 창고 반경 전체 추가 봉쇄 요청 올리겠습니다."

윤태건이 화면을 다시 봤다. 타임스탬프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7시간 전이면 새벽 2시. 이 시간에 정상 운행 중인 버스가 해안 폐쇄 창고 앞에 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화면 속 버스는 꺼진 전조등 아래에서 그림자 둘 사이에 멈춰 서 있었다. 7시간 뒤 그 버스는 산악 도로에서 전복되었고, 안에서 열아홉 명이 나왔다. 열아홉 명 중 일부는 추락보다 먼저 죽어 있었다.

장도혁의 휴대전화 화면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한시윤이 화면을 한 번 터치했다.

정차한 버스. 꺼진 불. 두 개의 그림자.

그것이 이 사건의 중간 경유지였다.

=====

## #25

증거 보드 위에 사진이 일곱 장이었다.

한시윤은 왼쪽 끝부터 순서대로 붙였다. 해안성 쉬파리 2령 유충 확대 사진, 내륙 저온 Calliphora 1령 확대 사진, 시신 7번 발목 토양 채집본, 시신 3번 옷깃 섬유 위 총란 배열 사진. 네 장까지가 곤충이었다. 다섯 번째부터 결이 달랐다. 보험 계약 증액 내역 캡처, CCTV 정차 캡처, 차량 이동선 지도.

자석이 보드에 붙을 때마다 딱, 딱, 소리가 천막 안에서 짧게 울렸다.

감식관 두 명이 뒤에서 서 있었다. 윤태건이 천막 입구 쪽 접이식 의자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있었는데, 보드 위 사진이 네 장을 넘기자 의자를 끌고 앞으로 왔다.

"한 박사."

한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섯 번째 사진—보험 계약 증액 내역—을 시신 7번 사진 바로 옆에 붙였다. 간격을 좁혔다. 의도적으로.

"시신 7번, 발목 토양에서 해안성 종이 나왔습니다. 이 현장은 내륙 산간입니다."

윤태건이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췄다. 한시윤이 아직 말을 끝내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시신 3번, 옷깃 총란 배열은 사후 36시간 이상 해안 온도대 노출 뒤 저온으로 이동한 패턴입니다. 시신 9번도 동일합니다."

한시윤의 손가락이 보드 위를 천천히 가로질렀다. 곤충 사진 네 장에서 출발해 보험 내역을 거쳐 CCTV 캡처에서 멈췄다.

"같은 버스 안에 다른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감식관 하나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났다. 짧았다. 억지로 삼킨 것 같았다.

장도혁이 천막 뒤쪽에서 걸어 나왔다. 손에 A4 두 장을 들고 있었다. 프린트 잉크가 덜 마른 상태로, 종이 끝이 살짝 말려 있었다.

"중간 경유지 CCTV. 추락 지점 기준 87킬로 전방, 국도변 주유소. 버스가 22분간 정차한 기록입니다."

장도혁이 종이를 보드 아래쪽에 붙였다. 자석 하나가 부족해서 테이프로 오른쪽 모서리를 눌렀다.

"22분."

한시윤이 그 숫자를 반복했다. 숫자를 되뇌는 게 아니라 무게를 재는 방식이었다.

'승객 40명을 태운 버스가 국도변 주유소에서 22분. 주유에 7분이면 넉넉하다. 나머지 15분.'

"장 조사관, 정차 중 버스 외부 출입 영상은?"

"해상도가 낮습니다. 다만 적재함 쪽에서 움직임이 두 차례 잡혔습니다."

한시윤이 CCTV 캡처를 들여다봤다. 화소가 거칠었다. 적재함 옆에 서 있는 인물의 윤곽이 뭉개져 있었지만, 적재함 문이 열려 있는 것은 구분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캡처에서는 문이 닫혀 있었다.

"적재함에 뭐가 있었습니까?"

"공식 기록상 승객 수화물만 올라가 있습니다."

한시윤은 캡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적재함 문 아래쪽 경첩 부근에 뭔가 흘러내린 자국이 있었다. 액체인지 먼지인지 이 화질로는 판별이 안 됐다.

"원본 확보 가능합니까?"

"요청 넣었습니다. 주유소 본사 서버라 내일 오전 이후에."

한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캡처를 내려놓고 보드 전체를 한 번 훑었다. 왼쪽 끝 해안성 쉬파리 사진에서 시작해 오른쪽 끝 차량 이동선 지도까지. 직선이었다.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한 줄로 꿰어지는 순간, 그것은 사고 조사가 아니라 공정도가 되었다.

서민아가 천막 안으로 들어온 것은 그때였다. 흰 장갑을 벗으면서 들어왔다. 오른손 장갑이 먼저, 왼손은 벗다 만 채로 보드를 봤다.

"시신 3번, 7번, 9번 선사망 확인 들어갑니다."

서민아가 보드 앞에 섰다. 한시윤과 어깨 간격이 한 뼘 정도였다.

"7번과 12번, 조직 자가분해 진행도가 추락 충격에 의한 사후 변화와 맞지 않습니다. 사고 시점 기준 최소 48시간 이전에 심정지가 선행된 상태."

"15번은?"

"15번은 더 깊습니다. 72시간 이상. 간 조직 효소 변성 패턴으로 봐도 그렇고, 한 박사 쪽 곤충 시간측과 교차 검증하면 오차가 4시간 이내입니다."

한시윤이 보드에서 시신 15번 사진을 가리켰다. 서민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 사람은 버스에 타기 전에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윤태건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소리가 났다. 접이식 의자 다리가 바닥 방수포를 긁는 소리.

"한 감정관, 이거 브리핑에 가져갑니까?"

"가져갑니다."

"재난본부가 받겠습니까?"

"받든 안 받든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

브리핑 공간은 천막에서 120미터 떨어진 컨테이너 두 동을 연결한 구조였다. 형광등 네 개 중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바닥에 깔린 합판이 발을 디딜 때마다 눌렸다.

재난본부 직원 셋이 이미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공식 발표 초안이 놓여 있었다. 한시윤은 그 초안의 첫 줄을 읽었다. '운전기사 과실에 의한 차량 이탈 전복 사고.'

'13글자로 40명을 정리하겠다는 거다.'

한시윤은 보드를 세웠다. 가져온 건 보드가 아니라 사진 일곱 장과 서민아의 확인서, 장도혁의 CCTV 캡처를 합친 바인더 한 권이었다. 보드 대신 벽에 사진을 직접 붙였다. 테이프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반짝였다.

"시작하겠습니다."

재난본부 쪽에서 누군가 팔짱을 껴다.

"한 박사, 발표 초안은 이미 검토 완료됐습니다. 추가 소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시신 7번, 12번, 15번은 추락 이전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말이 끊겼다. 팔짱을 낀 사람의 팔이 미세하게 풀렸다.

한시윤이 시신 15번 사진을 가리켰다. 발목 확대.

"15번 시신 발목에서 해안성 쉬파리 2령 유충이 채집됐습니다. 이 현장 반경 40킬로 이내에는 해안성 서식 환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충의 발달 단계를 현장 야간 온도 기준으로 역산하면, 최초 산란 시점은 추락 72시간 이전입니다."

형광등이 한 번 깜빡였다.

"국과수 법의학 확인 결과, 시신 15번 간 조직 효소 변성은 심정지 후 72시간 이상 경과에 해당하며, 곤충 시간측과의 오차는 4시간 이내입니다."

서민아가 옆에서 바인더를 열었다. 확인서 페이지가 보였다.

재난본부 직원 중 한 명이 볼펜을 돌리고 있었다. 볼펜이 멈췄다.

"운전기사 과실로는 이 시간축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윤태건이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수사선 전환 요청합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장도혁이 CCTV 캡처를 꺼냈다.

"추락 지점 87킬로 전방 주유소에서 버스가 22분간 정차했습니다. 정차 중 적재함 개폐가 두 차례 확인됐습니다. 현장 이전 및 시신 적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난본부 쪽이 조용했다. 발표 초안 위에 누군가의 손이 올라가 있었는데, 그 손이 종이 끝을 쥐지 못하고 표면을 쓸고만 있었다.

한시윤이 말했다.

"재난이 아니라 조작 공정입니다."

아무도 초안을 들지 않았다.

---

김세라는 컨테이너 뒤편, 발전기 소음이 대화를 덮어주는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류봉투 하나. 갈색. 끈으로 묶여 있었다. 끈매듭이 한 번만 감긴 상태. 급하게 묶은 것인지, 풀기 쉽게 묶은 것인지 구분이 안 됐다.

한시윤이 봉투를 받았다. 열기 전에 무게를 잰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3초. A4 열다섯 장 내외.

"지금 구조표, 수익자 목록, 수정 계약서. 삭제 복구 파일은 USB에."

김세라의 목소리는 발전기 소음 아래 깔렸다. 한시윤은 봉투를 열었다.

지금 구조표가 맨 위였다. 시신 15번의 본명이 보험 계약자란에 있었다. 수익자란은 개인이 아니었다. 법인명. 한시윤이 읽었다. 읽고 다음 장을 넘겼다.

시신 7번. 수익자란, 같은 법인명.

시신 12번. 같은 법인명.

세 구의 시신, 세 건의 보험 계약, 한 곳의 수익자.

"증액 시점은?"

"세 건 모두 사고 11일 전입니다."

한시윤이 USB를 봉투에서 꺼냈다. 검은색 플라스틱. 라벨 없음. 용량 표기도 없었다.

"삭제된 건 뭘니까?"

"수정 전 원본 계약서입니다. 최초 계약에는 해당 법인이 수익자로 지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수정 이력이 시스템에서 삭제됐는데, 복구했습니다."

'11일 전에 수익자를 바꾸고, 11일 뒤에 버스가 떨어졌다.'

"김세라 팀장."

"네."

"왜 주셨습니까?"

김세라가 한시윤을 봤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다.

"보험금만 노린 게 아닙니다. 이 설계 구조는 우리 회사 안에서 나올 수 없는 형태예요. 밖에서 짠 겁니다."

한시윤은 그 말의 의미를 쫓았다.

"밖에서 짰다는 건, 설계를 넘긴 쪽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까."

"한 박사. 자료는 쫓습니다. 해석은 당신 몫이에요."

김세라가 돌아섰다. 발전기 쪽으로 세 걸음 가다가 멈췄다.

"그리고 이건 협력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안 올라가야 합니다."

한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김세라가 사라진 뒤 봉투를 다시 닫았다. 끈매듭을 두 번 감았다.

---

같은 시각, 서울.

건물 26층 사무실 조명은 절반만 켜져 있었다. 복도 쪽은 어둡고 창 쪽만 밝았다. 비서가 문 앞에 섰다. 노크 두 번. 안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문이 열렸다. 자동 잠금이 해제된 것이다.

비서가 문건 하나를 탁자 위에 놓았다. A4 세 장. 표지에 아무 글씨도 없었다.

탁자 반대편에 앉아 있던 사람의 손이 문건을 가져갔다. 첫 장을 넘겼다. 두 번째 장에서 멈췄다.

보안 담당자가 비서 뒤에 서 있었다.

"현장 분석 천막에서 보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브리핑에서 공식 결론이 보류됐습니다."

문건을 든 손이 두 번째 장 위에 머물렀다. 손가락 끝이 종이 표면을 한 번 두드렸다.

"처리 목록은?"

"4단계까지 완료됐습니다. 5단계 자료 소거는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

비서도 보안 담당자도 대답하지 않았다.

문건이 탁자 위에 다시 내려놓아졌다. 소리 없이. 종이 끝이 탁자 모서리와 정확히 맞닿아 있었다.

저장 장치 하나가 비서 손에서 보안 담당자 손으로 건너갔다. 검은색. 라벨 없음.

"주유소 CCTV 원본, 내일 오전 전에 소거할 수 있습니까?"

"서버 접근권은 확보됐습니다."

"확보된 것과 끝낸 것은 다르니까."

보안 담당자가 고개를 숙였다.

조명이 꺼졌다. 창 쪽도. 26층 사무실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복도 쪽 비상등만 문 아래 틈으로 가느다란 선을 그었다.

---

천막으로 돌아왔을 때, 윤태건은 이미 떠나 있었다. 수사선 전환 요청서를 들고 본부로 올라간 것이다. 서민아도 국과수 차량 쪽으로 돌아갔다.

한시윤 혼자였다.

접이식 탁자 위에 중간 경유지 자료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장도혁이 정리하고 간 A4 두 장과, 주유소 본사에 요청한 원본 확보 진행 메모.

한시윤은 의자에 앉지 않았다. 서서 자료를 넘겼다.

두 번째 장 하단. 장도혁이 출력한 주유소 CCTV 캡처 확대본. 적재함 문이 닫힌 두 번째 캡처.

적재함 문 아래쪽 경첩 부근.

한시윤의 손이 떴다.

거기에 작은 표식이 있었다. 캡처 화질이 거칠어서 처음에는 못 봤다. 하지만 이번에 휴대 조명을 비스듬히 비추자 인쇄 잉크 위에 묻은 것이 아니라 원래 영상 안에 찍혀 있는 것이 드러났다. 적재함 경첩 볼트 머리에 흰색 도료가 한 점 찍혀 있었다. 직경 2밀리 이하.

흰 점 하나.

한시윤은 조명을 내리지 않았다. 흰 점을 보고 있었다.

'이거.'

3년 전. 자신의 재킷에 붙어 있던 비정상 흔재 패턴을 국과수에 의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틀 뒤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본 자료. 그 자료에 찍혀 있던 것과 같은 위치, 같은 크기, 같은 방식의 표식.

볼트 머리 위 흰 점. 처리 완료를 뜻하는 표식. 시신이 옮겨진 뒤, 적재함이 세척된 뒤, 마지막으로 확인한 사람이 남기는 점.

한시윤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이 표식,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천막이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없었다.

휴대 조명이 캡처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한시윤의 손이 떨린 것이 아니었다. 손은 정지해 있었다. 조명을 쥔 엄지 끝만, 딱 한 번, 놀리듯 움직였다.

천막 밖에서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저주파 진동이 바닥 방수포를 타고 올라와 탁자 다리를 울렸다. 캡처 위의 흰 점이 그 진동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시윤은 조명을 끄지 않았다.

=====

## #26

잠정 결론 보고서가 배포되는 합동 회의실. 오전.

스크린에 '버스 추락 사고 잠정 결론 보고 — 시신 수습 및 현장 정리 경과'라는 제목이 떠 있었다. 프로젝터 팬 소리가 회의실 천장 아래 고르게 깔렸다.

회의 진행자가 레이저 포인터를 스크린 왼쪽 상단에 고정했다.

"초기 현장 혼란이 심했습니다. 수습 인력 교대, 유가족 진입 통제 지연, 도로 차단 시차까지 겹치면서 시신 회수 순번에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현재 배포된 보고서를 기준으로 정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동시에 났다. 열두 명 남짓한 참석자들이 일제히 첫 페이지를 펼쳤다. 한시윤은 펼치지 않았다. 표지 오른쪽 하단, 작성 일자 옆에 찍힌 감수자 직인을 보고 있었다.

남필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혼란한 초기 현장 상황을 감안하면 현 보고서의 정리 체계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시신 수습 순번과 현장 사진 대조가 1차로 완료됐고, 추가 이견이 없다면 이 버전을 확정 기초로 올려도 무방할 겁니다."

말투가 보고가 아니라 의결이었다. 감식관 두 명이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칫했다. 끄덕이면 동기가 되기 때문이었다.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렸다.

들어온 남자는 코트를 벗지 않았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셔츠 위에 핀 배지가 로펌 소속임을 먼저 알렸다. 뒤따르는 수행원이 의자를 빼기 전에 그가 먼저 앉았다.

최문식.

"계속하십시오."

한 마디였다. 그런데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다. 진행자의 레이저 포인터 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법적 책임 소재와 유가족 대응 프레임은 현재 보고서 기준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추정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혼란만 가중됩니다. 그 점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해주시길."

점잖았다. 목소리에 힘을 실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 그래서 더 무거웠다.

한시윤은 그제야 보고서를 펼쳤다.

네 번째 페이지. 시간 정리표. 시신별 회수 시각, 촬영 시각, 감식 접수 시각이 열(column) 세 개로 나뉘어 있었다. 그 옆에 부속 서류로 첨부된 곤충 단계 표기. 유충 분류, 령(齡) 수, 채집 시각.

한시윤의 손가락이 7번 시신 줄에서 멈췄다.

12번 줄로 내려갔다.

다시 7번.

'7번과 12번. 보고서상 같은 시간대에 처리됐다. 회수 시각 차이 14분.'

그런데 유충 령 수가 두 단계 벌어져 있었다. 7번은 1령 초기, 12번은 2령 후기. 같은 환경, 같은 시간대라면 이 간극은 나올 수 없다.

14분이 아니라 최소 이틀.

한시윤은 시간 정리표 위에 손가락을 올려 둔 채 곤충 단계 표기 페이지를 펼쳤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인쇄 잉크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출력한 지 오래된 원본이 아니었다. 최근에 다시 뽑은 사본.

'사본이면 원본은 어디 있지.'

"질문 있으십니까."

진행자가 한시윤 쪽을 봤다. 시선이 잠깐이었다. 빨리 넘어가고 싶다는 뜻이었다.

한시윤은 질문하지 않았다. 대신 시신 배치 사진 사본을 꺼내 보고서 옆에 나란히 놓았다. 사진 속 3번 시신의 팔 위치와 주변에 흩어진 좌석 파편. 사진 촬영 시각은 오전 6시 12분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음 사진. 같은 7번 시신. 촬영 시각 오전 7시 41분.

팔 위치가 달랐다. 왼팔이 몸통 옆에서 머리 위로 올라가 있었다. 파편 위치도 바뀌어 있었다. 시신 오른쪽에 있던 좌석 등받이 조각이 왼쪽으로 옮겨져 있었다.

사후 경직 상태에서 팔이 자연적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파편은 더더욱.

한시윤이 두 사진을 나란히 세워 올렸다. 테이블 위에 기대듯 놓았을 뿐인데, 주변 감식관 세 명의 시선이 동시에 쫓혔다.

"사진이 기록이 아니라 정리된 장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프로젝터 팬 소리만 들렸다.

남필구의 손가락이 보고서 모서리를 누르고 있었다. 힘이 들어가 손톱 끝이 하얗게졌다.

최문식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레이저 포인터를 쥔 진행자만 포인터를 내려놓았다.

---

회의실 측면 자료 테이블.

서민아가 부패 진행 메모를 펼쳤다. 목소리가 낮았다.

"7번과 12번 시신의 부패 진행도를 비교했습니다. 보고서상 두 시신 모두 사고 당일 동일 환경에서 수습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조직 자가분해 속도가 다릅니다. 12번의 간 조직 자가분해가 7번보다 36시간에서 48시간가량 선행해 있습니다."

감식관 하나가 메모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시신 회수 순번호와 보고서 기재 시각을 비교하려는 동작이었다.

장도혁이 끼어들었다.

"시신 이동 동선 기록도 맞지 않습니다. 12번 시신은 추락 지점 북측 사면에서 회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진—"

그가 확대 인화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배경에 찍힌 가드레일 번호가 남측이었다.

"촬영 위치가 보고서 기재 회수 지점과 반대쪽입니다. 사진 찍은 다음에 시신을 옮긴 건지, 보고서를 쓸 때 위치를 바꾼 건지."

딱딱. 장도혁이 사진 두 장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소리.

한시윤은 그 사진들을 받지 않았다. 대신 채집 표본 봉투를 하나 집어 들었다. 봉투 겉면에 적힌 채집 시각과 위치 표기를 읽었다. 그리고 같은 시신의 다른 사진을 옆에 놓았다.

"이 사진에서 시신 주변 파편 배치가 바뀐 건 아까 말씀드렸고, 한 가지 더."

사진 오른쪽 하단. 아스팔트 위에 묻은 체액 자국. 첫 번째 사진에서는 시신 아래에서 오른쪽으로 흘렀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흐름 방향이 왼쪽이었다.

경사면이 바뀌지 않는 한 체액은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보고서가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군요."

서민아가 말했다. 성량이 평소와 같았다. 감정 과장이 없었다. 그래서 그 문장이 더 단단하게 박혔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재난본부 직원 하나가 물컵을 들었다가 마시지 않고 내려놨다.

한시윤은 사진들을 다시 순서대로 정리했다. 천천히. 한 장씩 모서리를 맞춰가며. 그 느린 동작이 회의실 안의 침묵을 더 무겁게 눌렀다.

---

복도.

회의실 문이 닫히고 30초쯤 지나서, 최문식이 한시윤 옆에 섰다. 걸어온 소리가 없었다. 구두 바닥이 카펫을 밟는 소리는 나지 않는 종류였다.

"한 선생."

한시윤이 멈췄다.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이런저런 정황을 발견하셨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최문식이 한시윤 옆으로 한 걸음 돌아와 섰다. 눈높이를 맞추려는 게 아니라, 상대의 표정을 읽으려는 위치였다.

"유가족이 마흔여덟 명입니다. 보고서가 바뀌면 보상 절차, 책임 소재, 수사 범위가 전부 뒤집힙니다. 초기 혼선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을 추정으로 확대하는 건, 혼란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혼란을 만드는 겁니다."

말투에 위협이 없었다. 설득이었다. 설득의 형태를 한 봉쇄.

'유가족을 방패로 쓰는군.'

윤태건이 뒤에서 걸어왔다. 발소리가 거칠었다.

"뭐니까 지금. 보고서 사진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냥 덮자는 겁니까?"

"조작이라는 단어는 확정된 사실에만 붙이는 겁니다, 형사님. 가능성과 사실을 혼동하시면 곤란합니다."

최문식이 윤태건을 봤다. 눈이 웃고 있었다. 입은 웃지 않았다.

한시윤이 돌아섰다.

"최 대표님."

첫 번째 직접 호칭이었다. 최문식의 시선이 한시윤에게로 돌아왔다.

"사진 원본과 보관 기록 열람을 요청합니다. 사본이 아닌 원본. 촬영 시각 메타데이터가 살아 있는 파일과, 현장 사진 보관함 출입 기록."

"그건 재난본부 소관이지, 제가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시면 재난본부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최문식이 미세하게 고개를 기울였다. 동의도 거부도 아닌, 측량하는 각도.

"한 선생, 저는 누구의 적도 아닙니다. 다만 절차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걸어가고 있었다.

윤태건이 뒤따라오며 낮게 말했다.

"저 사람 뭐니까? 로펌인데 왜 재난 사고 회의에 앉아 있습니까?"

"유가족 측 법률 대리인이겠죠. 아니면 다른 쪽."

"다른 쪽?"

한시윤은 대답 대신 폰을 꺼냈다. 장도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사진 원본 보관함 접근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지금."

답이 2분 뒤에 왔다.

"출입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보관실 출입에 재난본부장 직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어제까지는 없던 조건입니다."

한시윤은 폰 화면을 꺾다.

'회의가 끝나고 바로... 절차가 바뀐 게 아니라, 절차를 바꾼 거다.'

"윤 형사."

"예."

"보관실 갑시다."

"직인 없어요?"

"직인은 형사가 필요 없습니다. 수사 협조 요청서면 됩니다."

윤태건이 반 박자 멈췄다가 따라왔다. 표정이 복잡했지만 발은 빨랐다.

---

재난본부 기록보관실 앞.

복도 끝에 보관실 문이 있었다. 철제 문. 출입기록 단말기 옆에 경비원이 한 명 서 있었다. 단말기 화면에 초록불이 켜져 있었다.

윤태건이 수사 협조 요청서를 내밀었다. 경비원이 서류를 보고, 단말기를 보고, 다시 서류를 봤다.

"잠시만요."

전화를 걸었다. 30초. 끊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문이 열렸다. 안쪽은 형광등 두 줄이 켜져 있었고, 보관함이 벽면을 따라 나란히 서 있었다. 금속 선반 위에 번호가 붙은 박스들. 봉인 스티커가 겉면에 붙어 있었다.

한시윤이 3번 시신 사진 원본 보관 박스 앞에 섰다. 봉인 스티커. 이상 없음. 날짜도 맞았다.

박스를 열었다.

비어 있었다.

봉인 스티커는 온전했다. 접착면에 뜯긴 흔적도, 다시 붙인 자국도 없었다. 그런데 안에 사진이 없었다.

윤태건이 7번 박스를 열었다. 마찬가지로였다. 봉인 정상. 내용물 없음.

"씨—"

윤태건이 말을 삼켰다. 이를 한 번 깨물었다.

한시윤은 박스 안쪽 바닥을 손가락 끝으로 훑었다. 미세한 종이 섬유 잔여물. 사진이 들어 있었던 흔적. 최근에 꺼냈다.

"경비원."

한시윤이 돌아섰다.

"오늘 이 보관실에 출입한 인원 기록 보여주세요."

경비원이 단말기를 조작했다.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오전 10시 14분. 보관 점검. 출입자명은 '내부 인력'로만 표기되어 있었다. 소속과 이름이 없었다.

회의가 끝난 시각이 10시 8분이었다. 6분 뒤.

"회의 끝나고 잠깐 보관 점검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경비원의 눈이 흔들렸다.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다. 자기가 무엇에 동원됐는지 모르는 눈이었다.

한시윤은 빈 박스를 내려다봤다.

'6분. 회의에서 내가 사진을 꺼내든 순간, 누군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내 문제 제기를 예상한 게 아니라, 내가 뭘 찾을지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봉인 스티커 위로 형광등 빛이 떨어졌다. 스티커는 깨끗했다. 너무 깨끗했다. 원래 현장 보관 박스의 봉인 스티커에는 수습 과정의 먼지와 지문이 묻는다. 이건 교체된 스티커였다.

한시윤은 박스 뚜껑을 닫지 않았다.

윤태건이 옆에 서서 빈 박스를 보고 있었다. 주먹이 쥐어져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시윤은 단말기 화면을 한 번 더 봤다.

'내부 인력'. 이름 없음. 소속 없음.

회의가 끝나자마자, 누군가는 사진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

=====

## #27

한시윤은 테이블 위에 시신별 채집 기록을 펼쳤다. 일곱 장. 원본 사진이 빠진 자리에 남은 것은 채집 시각, 총종 분류, 성장 단계 수치뿐이었다. 기록지 모서리가 말려 있었다. 습기를 먹었다 마른 종이 특유의 뻣뻣함. 한시윤은 말린 모서리를 손바닥으로 눌러 폈다. 종이가 테이블에 닿을 때 미세하게 바스락거렸다.

자료분석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였다. 아무도 고치지 않았다. 천장 패널 사이로 환기구가 낮게 웅웅거렸고, 그 소리가 방 전체에 깔려 있었다.

"남은 기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시윤은 첫 번째 기록지의 총종란을 짚었다. 검정파리 2령, 채집 시각 14시 07분. 기록 옆에 붙은 성장 단계 메모는 감식관의 필체였다. 획이 눌린 걸 보면 현장에서 급히 적었다.

잉크가 번진 부분이 한 군데. 종이 섬유 사이로 파란 잉크가 퍼져 글자 하나가 반쯤 뭉개져 있었지만 읽는 데 지장은 없었다. 습기가 높았다는 뜻이다.

서민아가 반대편 의자를 당겨 앉았다. 금속 다리가 바닥 타일을 긁는 소리가 짧게 났다. 가운 소매를 접고, 기록지를 자기 앞으로 가져가지 않았다. 대신 목을 기울여 한시윤 쪽 기록을 읽었다.

"부패 반응 기준으로 다시 뽑을게요. 시신 1번부터."

그녀는 별도로 가져온 부패 단계 기록표를 꺼냈다. 표 맨 위에 '조직 변색도'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일곱 줄이 시신 번호순으로 나열되어 있었다. 표의 오른쪽 여백에 서민아 본인이 연필로 적어 넣은 보정값이 작게 붙어 있었다. 숫자 옆에 온도 기호. 소수점 한 자리까지.

한시윤은 기다리지 않았다. 채집 기록의 총 단계와 서민아의 부패 반응 기록을 나란히 놓고, 시신 1번의 수치를 먼저 읽었다. 검정파리 2령 후기. 채집 시점 온도 19도. 이 온도에서 2령 후기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58시간.

한시윤은 손가락 끝으로 기록지의 온도 칸을 한 번 두드렸다. 습관이었다. 숫자를 머릿속에 넣을 때 반드시 한 번 짚었다.

"1번 시신 실제 사망 추정 시각, 발표보다 이틀 이상 앞섭니다."

서민아가 자기 기록표의 1번 줄을 짚었다. "부패 반응도 맞아요. 조직 변색 3단계면 48시간 이상이에요. 공식 사망 추정 시각하고 안 맞습니다."

윤태건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다. 보고서 기재 사망 시각을 왼쪽 옆에 적고, 한시윤이 불러주는 실제 추정 시각을 오른쪽 옆에 적었다. 매직 뚜껑을 입으로 물고 빼는 소리가 기록이 바뀔 때마다 났다. 뚜껑이 이에 걸려 삐걱거릴 때 윤태건은 왼손으로 보드를 잡아 흔들림을 멈추고 오른손으로 글씨를 이었다. 보드 다리가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발끝을 괴고 있었다.

셋째 줄까지는 숫자가 크게 어긋났다. 사흘, 이틀. 원래 예상한 오차 범위 안이었다. 한시윤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서민아가 2번, 3번 시신의 부패 단계를 읽어줄 때도 손은 이미 4번 기록지를 만지고 있었다.

넷째 줄에서 흐름이 바뀌었다.

한시윤의 집게가 공중에 걸렸다. 4번 시신 기록지 위, 종이 표면에서 약 2센티미터. 동작이 끊겼다.

"3번. 공식 사망 시각 22시 14분. 총 단계로 역산하면 22시 03분."

윤태건이 적었다. 매직 끝이 보드 표면에 눌리는 소리. 잉크가 살짝 번졌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11분 차이?"

한시윤은 대답하지 않고 5번 기록지를 넘겼다. 쉬파리 1령 초기. 온도 보정을 머릿속에서 돌렸다.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다. 눈만 기록지 위를 훑었다. 시선이 채집 시각에서 온도란으로, 온도란에서 성장 단계란으로 옮겨가는 궤적이 일정했다. 매번 같은 순서.

"5번은 공식 시각과 거의 일치합니다. 넘어갑니다."

7번. 검정파리 3령 탈피 직전. 이 단계의 유충은 체표면에 미세한 주름이 잡히기 시작하며, 움직임이 둔화된다. 한시윤은 채집 시각과 온도를 넣고, 역산했다. 19도에서 3령 탈피 직전까지의 소요 시간은 대략 84시간. 거기서 채집 시각을 빼면 사망 추정 시점이 나온다.

"6번. 공식 사망 시각 01시 30분. 실제 추정 01시 19분."

'11분.'

한시윤은 기록지를 내려놓았다. 천천히. 손가락 끝이 기록지에서 떨어지는 속도가 평소보다 느렸다. 화이트보드를 봤다. 윤태건이 적어 놓은 두 줄의 시간 차이가 같은 폭이었다.

"3번하고 7번. 둘 다 11분."

윤태건이 매직 뚜껑을 다시 물었다가 뺐었다. 플라스틱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줍지 않았다.

감식관 한 명이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입을 열지 않았지만 시선이 화이트보드의 오른쪽 열에 고정되어 있었다. 목 뒤의 힘줄이 약간 당겨져 있는 게 보였다. 침을 삼킨 건지 목울대가 한 번 움직였다.

한시윤은 시신 번호 카드를 꺼내 보드 아래 일렬로 붙였다. 1번부터 7번. 종이 카드에 번호가 매직으로 크게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 색펜으로 처리 순번을 적었다. 현장 수습 순서와 시신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1번 시신이 세 번째로 수습되었고, 3번 시신이 두 번째였다.

"3번은 수습 순번 2번째. 7번은 수습 순번 4번째."

서민아가 고개를 들었다. "작수 순번이요?"

"아닙니다. 2번째와 4번째. 격번."

한시윤은 색펜을 바꿔 잡았다. 빨간색. 뚜껑을 돌려 열 때 손끝에 잉크 냄새가 묻었다. 수습 순번 2번째와 4번째에 원을 쳤다. 원을 그릴 때 펜 끝이 보드 표면을 긁는 소리가 두 번 났다. 둥근 궤적이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숫자를 에워싸기에는 충분했다.

장도혁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그때였다. 문이 열리면서 복도의 찬 공기가 잠깐 밀려왔다. 손에 현장 발표문 사본을 들고 있었다. 종이가 세 장. 모서리가 접혀 있었다. 급하게 복사한 흔적으로 한쪽 면의 인쇄가 살짝 기울어져 있었다.

"현장 수습 발표 시각 찾았습니다. 발표 시각과 실제 이동 시각 사이에 빈칸이 있어요."

한시윤이 발표문을 받아 보드 옆에 붙였다. 테이프를 찢는 소리. 발표 시각, 이동 시각, 사이의 공백. 그 공백이 수습 순번 2번째와 4번째에서만 유독 넓었다. 다른 순번의 빈칸은 3분에서 5분 사이. 2번째와 4번째는 14분, 16분.

'편차가 아니다. 편차는 흩어진다. 이견 모인다.'

"한 박사, 이견 현장별 편차 아닙니까? 재난 현장이면 이 정도 오차는—"

한시윤이 윤태건을 봤다. 시선이 정면이었다. "편차라면 왜 같은 쪽으로 남습니까."

방이 조용해졌다. 형광등이 다시 깜빡였다. 한 번. 불빛이 돌아왔을 때 벽에 붙은 발표문 사본의 그림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편차는 3분일 수도, 20분일 수도 있습니다. 흩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11분이 두 번 나왔습니다. 같은 쪽으로 반복되면 우연이 아닙니다."

서민아가 자기 기록표를 한 번 더 들여다봤다. 손톱 끝이 6번 시신의 부패 단계 칸을 눌렀다. 종이가 살짝 움푹 들어갔다. "부패 반응 쪽에서도 같은 결론이에요. 6번 시신의 조직 변색 속도를 온도 보정하면 공식 시각보다 정확히 10분에서 12분 앞서요."

한시윤은 화이트보드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 바닥에 떨어진 매직 뚜껑을 발끝이 스쳤지만 줍지 않았다.

"이번 단계에서 확인된 건 두 가지입니다. 곤충 성장 단계와 공식 시각 사이에 11분 시차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차가 특정 수습 순번에서만 반복된다는 것."

윤태건이 입을 열었다. "그래서 뭡니까. 누가 시각을 조작했다는 겁니까?"

"조작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하나. 같은 실행자의 반복 습관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윤태건의 손이 매직을 쥔 채 보드 앞에서 멈춰 있었다. 뭔가를 더 적으려다가 적지 않았다.

전산기록실은 자료분석실에서 복도 하나를 건너면 나왔다. 이름만 기록실이지 실제로는 캐비닛 열두 개와 접이식 테이블 하나가 전부인 방이었다. 캐비닛 문 하나가 제대로 닫히지 않아 틈이 벌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종이 뭉치의 옆면이 보였다. 형광등은 여기도 하나가 나가 있었다. 남은 하나가 방 전체를 겨우 비추고 있어서 테이블 위만 밝고 캐비닛 쪽은 어두웠다.

윤태건이 과거 재난 사건 장부 두 권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표지에 먼지가 묻어 있었다. 윤태건의 손가락 자국이 먼지 위에 찍혀 있었다. 사건 번호가 삼 년 전과 오 년 전이었다.

"비슷한 유형 재난 장부. 전산기록 직원한테 요청해서 뽑았습니다."

전산기록 직원이 캐비닛 앞에서 파일을 정리하다가 잠깐 이쪽을 봤다. 시선이 마주치자 다시 파일로 돌아갔다.

한시윤은 장부를 펼치지 않았다. 먼저 현재 사건의 시간축 기록을 투명 필름 위에 옮겨 적었다. 수습 순번, 공식 사망 시각, 실제 추정 시각. 세 줄. 매직 잉크가 필름 위에서 번들거렸다. 잉크가 마르는 데 몇 초가 걸렸고, 한시윤은 필름을 들어 올려 불빛에 비추며 잉크가 번지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글씨 위에 미세한 광택.

그 다음 과거 장부를 열었다. 삼 년 전 사건. 표지 안쪽에 '처리 완료'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빨간 잉크가 바랜 것이 시간이 꽤 지났음을 보여줬다. 사망 시각 정리표가 셋째 페이지에 있었다. 한시윤은 같은 방식으로 순번과 시각을 읽었다. 손가락이 종이 위를 짚어 가며 한 줄씩 내려갔다.

수습 순번 2번째. 공식 사망 시각과 현장 채집 기준 역산 시각의 차이.

'12분.'

다음 줄.

'10분.'

그 다음.

'11분.'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다. 장부를 넘겼다. 오 년 전 사건. 표지가 더 바래 있었다. 종이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한 페이지는 모서리가 찢겨 나가 있었다. 사망 시각 정리표는 넷째 페이지.

'11분. 13분. 11분.'

한시윤은 투명 필름을 과거 장부 위에 겹쳤다. 현재 사건의 시간축과 삼 년 전 사건의 시간축이 포개졌다. 빨간 잉크와 검은 인쇄체가 줄을 맞춰 나란히 보였다. 한시윤은 필름 위치를 밀리미터 단위로 조정했다. 수습 순번 열이 정확히 겹치도록. 손가락 두 개로 필름 양쪽을 눌렀다.

윤태건이 옆에서 들여다봤다. 입을 열지 않았다. 코끝이 필름 가까이 갔다가 물러났다.

11분 안팎의 시차가 세 사건 모두에서 같은 구간에 찍혀 있었다. 수습 순번 2번째, 4번째, 때로 6번째. 격번으로, 같은 쪽으로.

"이번 사건만이 아닙니다."

서민아가 필름 위의 숫자를 읽었다. 입술이 움직이며 숫자를 소리 없이 세고 있었다. 잠깐 멈추고, 다시 읽었다. 오 년 전 장부의 수습 순번 4번째를 짚었을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가 의식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건 문서 정리든 시신 배열이든, 인간의 반복에서만 나오는 오차예요. 기계가 찍는 시간은 이런 식으로 같은 쪽에 모이지 않습니다. 자동 기록이면 밀리초 단위로 정확하거나, 아예 랜덤하게 흩어져요. 11분이라는 쪽이 반복된다는 건 사람 손이라는 뜻이에요."

한시윤이 필름을 들어 올렸다. 형광등 불빛에 두 층의 숫자가 겹쳐 비쳤다. 빨간 잉크가 검은 인쇄체 위에 그림자처럼 올라탔다.

"편차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윤태건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입술을 한 번 다물었다 열었다. 형사의 손이 허리춤 수첩을 만졌다가 떨어졌다.

불이 꺼졌다. 자료분석실에 남은 것은 테이블 위의 스탠드 조명 하나와 한시윤뿐이었다. 스탠드 조명의 각도는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쓸 때 기울여 놓은 그대로였고, 빛이 테이블 왼쪽 절반만 비추고 있었다. 오른쪽은 어두웠다.

화이트보드의 숫자는 그대로였다. 아무도 지우지 않았다. 빨간 원이 두 개, 시간축의 빈칸이 세 개. 그 옆에 투명 필름이 과거 장부 위에 포개진 채 놓여 있었다. 장부의 표지가 스탠드 불빛 바깥에 걸쳐 있어서 반은 보이고 반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한시윤은 의자를 당기지 않았다. 서서 필름을 들었다. 세 번째로 겹쳤다. 이번에는 삼 년 전 장부 위가 아니라, 오 년 전 장부 위에.

삼 년 전 사건의 수습 순번 2번째. 시차 11분.

오 년 전 사건의 수습 순번 2번째. 시차 11분.

현재 사건의 수습 순번 2번째. 시차 11분.

세 줄의 숫자가 정확히 포개졌다. 필름 위의 빨간 잉크, 장부의 검은 인쇄체, 그 아래 또 다른 장부의 바랜 잉크. 세 층이 하나의 선 위에 놓였다.

한시윤은 필름을 내려놓았다. 메모 카드 한 장을 꺼냈다. 주머니에 넣어 둔 카드. 모서리가 약간 구겨져 있었다. 펜을 꺼내 한 줄만 적었다. 글씨가 작았다. 카드 상단, 왼쪽 정렬.

같은 방식으로 정리한 사람이 있다.

카드를 장부 사이에 끼웠다. 이름은 적지 않았다. 아직이었다.

스탠드 불빛이 필름 위의 숫자 두 줄을 비추고 있었다. 11과 11. 사건은 달랐고, 해는 달랐고, 시신은 달랐다. 장소도, 재난의 종류도, 수습 인원도 달랐다.

폭만 같았다.

=====

## #28

냉기 구역 출입문 앞에 사람이 서 있었다.

창고 관리 직원이었다. 이름은 몰랐다. 중요하지도 않았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출입 허가서 확인됐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장도혁이 허가서를 들어 보았다. 직원의 시선이 종이 위를 훑었다. 두 번. 세 번째는 장도혁의 얼굴로 돌아왔다.

"분류 완료된 구역입니다. 추가 출입 사유가—"

"사유는 제가 판단합니다."

한시윤이 말했다. 뒤에서 걸어오면서. 휴대용 조명을 왼손에 들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냉기 구역 배치도가 접혀 있었다. 시선은 직원이 아니라 문 너머 복도를 보고 있었다.

직원이 한 발 물러섰다. 본능이었다.

"분류가 끝난 게 아닙니다."

한시윤은 배치도를 펼쳤다. 시신 이동 태그 번호 세 개에 볼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분류가 너무 빨랐습니다."

장도혁이 직원의 어깨 너머로 손을 뻗어 잠금 패널을 눌렀다. 전자음이 한 번 울렸다. 녹색 불이 들어왔다. 직원은 더 이상 막지 않았다. 막을 근거가 사라진 게 아니라, 막을 타이밍을 놓친 것이다.

윤태건은 복도 끝에 서 있었다. 등을 벽에 기대고 양팔을 켜다. 경비원 한 명이 이쪽을 보고 있었는데, 윤태건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다.

"외곽 잡고 있겠습니다."

윤태건이 말했다. 한시윤은 고개만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냉기가 얼굴부터 밀고 왔다. 숨이 하얗게 나왔다. 조명을 켜자 천장의 배관 사이로 성애가 보였다. 보관 창고 냉기 구역은 영하 2도에서 영상 4도 사이를 유지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지금 체감은 그보다 낮았다. 벽면 계기판의 숫자가 영하 1.4도를 찍고 있었다.

'설정 온도보다 낮다.'

한시윤은 그것을 머릿속에 넣어 두고 안쪽으로 걸었다.

서민아가 먼저 와 있었다. 세 번째 보관대 앞에 서서 표본 봉투를 들고 있었다. 채집 핀셋이 오른손에 걸려 있었고, 확대경은 보관대 위에 놓여 있었다. 장갑은 이중이었다. 라텍스 안에 면장갑.

"한 박사."

"뭐가 나왔습니까."

인사가 아니라 확인이었다. 서민아도 그걸 알았다.

"7번, 12번, 15번. 조직 반응이 안 맞습니다."

서민아는 체온 기록지를 보관대 위에 펼쳤다. 세 장. 각각의 시신 번호 옆에 적힌 수습 시각과 체온 하강 곡선이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추락 직후 수습으로 분류됐는데, 사후 경직 해제 속도가 일치하지 않아요. 7번과 15번은 경직이 너무 빨리 풀렸고, 12번은 아직 잔존합니다."

한시윤은 기록지를 받아 들지 않았다. 대신 보관대 위 표본 봉투를 집었다.

봉투 안에 유충이 있었다. 세 마리. 크기가 달랐다.

핀셋으로 봉투 입구를 벌렸다. 조명을 가까이 댔다. 유충의 체절 사이, 성장선이 보였다. 정확히는 성장선이 '멈춘' 지점이 보였다.

"여기."

한시윤이 확대경을 들었다. 서민아가 옆으로 왔다.

유충의 몸통 중간, 체절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이에 띠가 있었다. 성장이 진행되다 일정 시점에서 정지된 흔적. 영양 공급이 끊기거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생기는 패턴이었다. 띠의 폭은 약 0.3밀리. 그 이후 구간은 다시 성장이 재개된 흔적이 있었다.

"성장이 멈췄습니다."

한시윤이 말했다. 확대경을 내려놓지 않은 채.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자란 게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 겁니다. 유충이 시신 위에서 자라다가, 시신이 갑자기 저온 환경으로 옮겨지면 성장이 멈춥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상온으로 나오면 성장이 재개됩니다."

서민아의 손이 멈췄다.

한시윤은 봉투를 보관대 위에 놓고 냉장 보관 기록표를 꺼냈다. 기록표에는 각 시신의 입고 시각, 보관 온도, 열람 이력이 적혀 있었다.

"중간 냉장 보관."

서민아가 말했다. 한시윤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외부에서 사고 직후 바로 수습돼 이 창고로 왔다면, 유충 성장에 정지 구간이 생길 수 없습니다. 현장 온도에서 이 냉기 구역 온도로의 전환은 한 번이니깐요."

한시윤은 기록표의 12번 시신 입고 시각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그런데 정지가 두 번입니다. 띠가 두 개예요."

서민아가 확대경을 가져갔다. 들여다봤다. 3초.

"맞아요. 두 번째 띠가 있어요."

"사고 현장에서 수습 → 어딘가에 보관 → 다시 꺼냄 → 이 창고로 이송. 최소 세 번의 환경 전환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시윤은 조명을 껐다. 다시 켰다. 봉투 표면에 서린 미세한 결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사고 수습이 아니다. 이건 절차다. 누군가 시간을 벌면서 시신을 관리했다.'

감식관 한 명이 뒤쪽에서 기침을 했다. 흡기 때문이 아니라, 입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서였다.

한시윤은 봉투 세 개를 나란히 놓고 냉기 구역 밖으로 나왔다.

임시 분석 테이블은 복도와 냉기 구역 사이, 컨테이너 벽을 등진 접이식 탁자였다. 시신 번호 카드가 왼쪽에 깔려 있었고, 냉장 출입기록 파일이 오른쪽에 쌓여 있었다. 브리핑 초안은 그 위에 덮여 있었는데, 아직 아무도 펼치지 않았다.

한시윤은 출입기록 파일을 펼쳤다.

시간축을 그리기 시작했다. 볼펜으로, 시신 번호 카드 뒷면에. 7번, 12번, 15번의 입고 시각. 성장 정지 띠의 추정 발생 시점. 11분 시차.

"여기."

시간축 위에 세 개의 점이 찍혔다. 각각의 시신이 중간 보관됐다가 이 창고로 들어온 추정 시각.

"세 건 모두 공식 수습 시각보다 앞섭니다."

서민아가 옆에서 봤다.

"수습되기 전에 이미 누군가 손을 댔다는 건가요?"

"사고 수습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한시윤이 볼펜을 내려놨다.

"준비된 절차."

남필구가 복도 끝에서 걸어왔다. 구두 소리가 먼저 왔다. 바닥이 콘크리트라서 울림이 길었다.

"한 박사."

한시윤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브리핑이 9시입니다. 지금 8시 17분이야. 발표 전에 현장 자료를 추가 검증한다는 건 절차상—"

"부장님, 9시 발표문에 이 세 시신은 '추락 직후 수습'으로 들어갑니까?"

남필구가 멈췄다.

"그렇게 분류됐으니까."

"분류가 틀렸습니다."

"한 박사, 검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분류를 뒤집을 수는—"

"브리핑 전에 끝내야 합니다."

한시윤이 처음으로 남필구를 봤다. 표정은 없었다. 없는 게 아니라 쓸모없어서 꺼놓은 것이었다.

남필구는 3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신 번호 카드 뒤의 시간축을 봤다. 11분이라는 숫자 세 개를 봤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반박 근거를 없앤다는 건 알았다.

".....보고는 내가 받아야 합니다."

그것만 말하고 돌아갔다. 구두 소리가 멀어졌다.

장도혁이 외부에서 들어왔다. 이마에 땀이 있었다. 새벽인데 땀이 났다는 건 뛰어왔다는 뜻이었다.

"브리핑 시간 30분 연기했습니다. 그 이상은 제 권한 밖입니다."

"충분합니다."

한시윤은 시간축 위에 마지막 선을 그었다. 세 시신의 중간 보관 추정 시각과, 이 창고의 냉장 출입기록에서 공백으로 남은 시간대. 그 사이에 11분이 세 번 들어갔다.

'같은 간격. 같은 절차. 같은 손.'

윤태건이 복도에서 고개를 들이밀었다.

"안에서 인력 두 명이 내려옵니다. 브리핑 준비한다고 하는데, 짐이 좀 많아 보입니다."

한시윤의 시선이 윤태건에게 갔다가, 테이블 위의 표본 봉투로 돌아왔다.

"짐이요?"

"자료 반출 가방 들고 있습니다."

공기가 바뀌었다.

소리는 없었다. 냉기 구역 문이 열리는 전자음도 없었고 발소리도 없었다. 그런데 공기가 바뀌었다. 한시윤은 그것을 느꼈고, 고개를 돌리기 전에 오른손을 테이블 위로 뺐었다.

분석 테이블이 옆에서 밀려왔다.

내부 인력이었다. 두 명. 한 명이 테이블 모서리를 밀었고, 다른 한 명이 표본 봉투와 분석 사진이 깔린 쪽으로 손을 뺐었다. 메모 보드가 바닥에 떨어졌다. 시신 번호 카드가 흩어졌다.

윤태건이 몸을 틀었다. 복도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동작이 빨랐다. 표본 봉투 쪽으로 손을 뺐은 인력의 팔을 잡았다. 손목이 아니라 팔꿈치 위. 쥐는 게 아니라 꺾어 세우는 각도였다.

"손 치우세요."

장도혁은 출구 쪽으로 돌았다. 등을 문에 붙였다. 다른 한 명이 자료 반출 가방을 들고 복도로 빠지려 했지만, 장도혁의 어깨가 문틀을 막고 있었다.

가방에서 봉투 하나가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졌다.

테이블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다. 다리 하나가 접혀 있었다. 분석 사진 네 장이 바닥에 흩어졌고, 표본 봉투 두 개가 테이블 아래로 미끄러졌다.

한시윤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흩어진 봉투 세 개 중 하나를 집었다. 12번이었다. 성장 정지 띠가 두 개 있는 유충이 든 봉투.

나머지 두 개는 바닥에 그대로 두었다.

서민아가 한시윤의 시선을 따라갔다. 12번을 먼저 챙긴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다.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12번이 세 시신 중 유일하게 정지 구간이 두 번인 표본이었다. 환경 전환의 증거가 가장 많은 것.

한시윤은 12번 봉투를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윤태건이 팔을 잡고 있는 인력에게 말했다. 조용했다. 거칠지 않았다. 거칠지 않아서 더 무거웠다.

내부 인력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아니, 보였지만 기록할 이름이 없었다. 이름 없는 손이 테이블을 밀었고, 이름 없는 가방이 봉투를 담으려 했다.

한시윤은 일어섰다. 재킷 안주머니를 한 번 눌러 확인했다. 12번이 거기 있었다.

복도 끝에서 경비원 한 명이 이쪽을 보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막지도 않았고, 돕지도 않았다. 그냥 보고 있었다.

장도혁이 문을 등진 채 고개를 돌렸다.

"한 박사."

"네."

"이쪽 한 명, 가방 들고 우측 복도로 꺾으려 했습니다."

한시윤의 시선이 복도 우측 끝으로 갔다. 비상구 표시등이 초록색으로 켜져 있었다.

가방을 든 인력이 장도혁의 어깨 옆을 비집고 나가려 했다. 장도혁이 팔 하나로 문틀을 잡았다. 가방 끈이 장도혁의 손등에 걸렸다가 빠졌다. 그 사이 인력의 발이 복도 타일을 밟았다.

뛰기 시작했다.

우측 복도. 비상구 방향.

윤태건이 잡고 있던 팔을 놓고 몸을 돌렸다. 반 박자 늦었다. 이미 복도 모퉁이를 꺾고 있었다.

한시윤은 뒤쫓지 않았다. 안주머니를 다시 한 번 눌렀다.

12번은 여기 있다.

도망친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도망쳤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증거였다.

한시윤은 바닥에 흩어진 분석 사진을 내려다봤다.

"윤 형사."

"예."

"CCTV 확보하십시오. 우측 복도에서 비상구까지."

윤태건이 돌아서서 뛰었다. 구두가 타일을 때리는 소리가 빠르게 멀어졌다.

장도혁이 문에서 등을 뺐다.

서민아가 바닥에서 나머지 표본 봉투 두 개를 주웠다.

한시윤은 기울어진 테이블을 세우지 않았다. 세울 필요가 없었다.

복도 비상구 쪽에서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금속 경첩이 벽에 부딪히는 반향. 그리고 정적.

한시윤은 재킷 안주머니 위에 손을 얹은 채 비상구 방향을 봤다.

'도주 방향을 알면, 도주시킨 손도 따라간다.'

=====

#29

표본 봉투 세 개가 바닥에 널려 있었다.

한시윤은 그중 하나를 먼저 집었다. 반출 시도 과정에서 분류 스티커가 반쯤 떨어져 나간 봉투. 시신 번호 7번, 버스 추락 희생자 중 세 번째 인양 유류품. 봉투 입구의 실링이 한 번 뜯겼다가 다시 눌린 자국이 있었다. 열접착선 위에 두 번째 열의 흔적. 누군가 열고, 다시 닫았다.

한시윤은 임시 분석실의 형광등 아래에서 봉투를 뒤집었다. 안쪽 비닐 면에 응축된 수분이 한 방울 맺혀 있었다. 밀봉 후 온도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다. 보관 창고의 온도는 4도로 일정했다. 수분이 맺히려면 한 번은 외부 온도에 노출되어야 한다.

집게를 꺼냈다. 스테인리스 끝이 형광등 빛을 받아 한 번 번졌다.

봉투를 열자 피부 채취 슬라이드가 먼저 나왔다. 시신 7번의 은닉 부위—겨드랑이 안쪽 접힌 피부—에서 채취한 샘플이었다. 슬라이드 위에 고정된 곤충 파편 두 점. 한시윤은 확대경을 가져오지 않았다. 맨눈으로 충분했다.

해안성 쉬파리 2령 유충의 두부 캡슐 잔해. 그 옆에 내륙 저온 서식 Calliphora 1령의 체절 파편.

같이 나올 수 없는 조합이었다.

한시윤의 손이 멈추지는 않았다. 다만 집게를 든 손가락의 간격이 미세하게 벌어졌다. 0.5밀리 정도. 감식관이 옆에 있었다면 눈치채지 못했을 거리.

'또 이거다.'

슬라이드를 보조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메모 카드를 꺼내 채집 위치를 다시 적었다. 겨드랑이 안쪽, 접힌 피부, 체표면에서 3밀리 깊이. 일반 부패 과정에서 곤충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위다. 산란하려면 이미 절개되어 있거나, 누군가 피부를 벌려 놓아야 한다.

한시윤은 확대 사진을 펼쳤다. 피부 접힘선 사진 네 장. 두 번째 사진에서 접힘선의 각도가 자연스러운 체위 변형과 달랐다. 피부가 한 번 당겨졌다가 돌아간 흔적. 탄성 회복 후에도 남는 미세한 연신 자국이 접힘선 양쪽으로 0.8밀리씩 퍼져 있었다.

누가 한 번 만지고 다시 숨겼다.

한시윤은 메모 카드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인위적 접근 후 원상복귀 시도. 처리 순서: 개방→삽입→복원→밀봉.'

집게를 내려놓는 소리가 스테인리스 트레이 위에서 짧게 울렸다.

---

서민아가 들어온 건 한시윤이 두 번째 슬라이드를 비교 사진 옆에 나란히 놓았을 때였다.

"오염 가능성부터 보겠습니다."

인사 없이 바로 테이블 앞에 섰다. 흰 가운 소매를 손목까지 걷은 상태. 서민아는 슬라이드 위의 두 파편을 15초 동안 들여다봤다. 고개를 한 번 기울였다가 원위치.

"우연한 오염이면 분포가 무작위여야 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한시윤이 채집 위치 도면을 밀었다. 서민아가 도면 위에 손가락을 짚었다.

"두 종 모두 은닉 부위 안쪽 3밀리 이내. 체표면 바깥에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외부 환경에서 자연 유입된 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해당 부위에 접근한 뒤 남긴 잔류물일 가능성."

한시윤이 처리 순서 메모를 서민아 쪽으로 돌렸다. 서민아의 시선이 '개방→삽입→복원→밀봉' 위에서 2초간 머물렀다.

윤태건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재킷을 벗은 상태. 셔츠 팔꿈치에 창고 먼지가 묻어 있었다.

"그 때 했던 말. 반복 습관."

윤태건이 테이블 위의 슬라이드와 도면을 번갈아 봤다.

"시신을 다루는 방식에 버릇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서도 나오니까?"

한시윤이 확대 사진 두 번째 장을 집어 윤태건 앞에 세웠다.

"피부를 벌리는 방향이 같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신 자국 폭도 0.8밀리로 동일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손버릇이 남았습니다."

윤태건의 턱이 한 번 움직였다. 뭔가 삼킨 것 같은 동작.

서민아가 슬라이드를 다시 들었다.

"한 박사. 이 처리 방식, 이전에 본 적 있습니까?"

한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1초. 2초.

형광등이 한 번 깜빡였다. 안정기가 낡은 임시 시설 특유의 잡음이 천장에서 내려왔다.

'회귀 전. 폐창고. 내 재킷 안쪽 솔기.'

그 감각이 손끝까지 왔다가 갔다. 차갑고 빨랐다. 콘크리트 바닥의 찬 기운과 비닐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것 같았지만, 한시윤은 그 기억을 문장으로 만들지 않았다. 현재의 슬라이드가 더 중요했다.

"본 적 있습니다."

그것만 말했다.

윤태건과 서민아가 동시에 한시윤을 봤다. 한시윤은 둘 다 보지 않았다. 메모 카드 위에 펜을 올렸다.

---

장도혁이 통로 도면을 펼친 건 오후 4시였다.

"이쪽 보십시오."

창고 주변 지하 통로. 재난본부 보관 창고로 이어지는 우회 동선이 세 갈래 있었다. 장도혁이 첫 번째 갈래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여기, CCTV 사각입니다. 통로 길이 40미터, 카메라 커버리지가 입구 5미터와 출구 3미터만 잡힙니다. 중간 32미터는 죽은 시야."

한시윤이 도면 위의 수치를 읽었다.

"반출 시도가 이 경로였습니까?"

"경비원 진술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출입문 반사 유리에 장갑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태건이 끼어들었다. "장갑 종류는?"

"니트릴. 의료용이 아니라 산업용입니다. 두께 0.12밀리."

한시윤의 시선이 도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장도혁이 CCTV 모니터 캡처 사진을 한 장 꺼냈다. 출구 3미터 구간, 타임스탬프 02:41:17. 화질이 거칠었다. 사람의 윤곽이 반사 유리 너머로 찍혀 있었다.

어깨 라인이 반듯했다. 고개가 숙여지지 않은 채 정면을 향하고 있었다. 손에 뭔가 들려 있었다—폐기용 상자 크기의 직사각형 물체.

한시윤은 그 윤곽의 손을 봤다.

멈칫이었다.

사람이 어두운 통로에서 반사 유리 앞을 지날 때 보이는 미세한 주저—고개를 돌리거나, 보폭이 줄거나, 어깨가 움츠러드는—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장갑 낀 손이 상자를 쥔 각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했다. 카메라 앞을 지나는 3초 동안 보폭 변화 제로.

'이 사람은 here를 알고 있다.'

"장도혁 조사관. 이 통로, 재난본부 정규 인력 외에 출입 기록 있습니까?"

"확인 중입니다. 다만 이 구간 출입은 카드 인증이 아니라 물리 열쇠입니다."

윤태건이 캡처 사진을 다시 봤다.

"이 사람, 내부 인력입니까?"

장도혁이 고개를 저었다.

"경비원이 이 시간대 순찰 기록에 해당 인물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한시윤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반사 유리에 찍힌 장갑의 손가락 배치. 엄지와 검지 사이 간격. 상자를 쥐는 방식.

손이 기억하는 패턴이었다. 표본 봉투 안 피부를 벌리는 방향과 같은 쪽. 왼쪽에서 오른쪽.

형광등 잡음이 다시 내려왔다. 이번에는 깜빡이지 않았다.

한시윤이 사진을 내려놓았다.

"이 사람이 시신을 만졌습니다."

---

밤이 됐다.

임시 분석실 창 너머로 재난본부 외곽의 가로등이 한 줄로 켜져 있었다. 주황색 나트륨등. 빛이 창유리에 닿아 테이블 위의 표본 봉투 표면에 길쭉한 반사를 만들었다.

한시윤은 의자에 앉지 않았다. 창가에 서서 테이블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표본 봉투. 흔재 패턴 확대 사진. 처리 순서 메모. 채집 위치 도면. CCTV 캡처. 한 줄로 나란히 세워 놓았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윤태건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들어오지 않았다. 서민아는 보조 테이블 옆에서 슬라이드 케이스를 닫는 중이었다.

윤태건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들어오지 않았다. 서민아는 보조 테이블 옆에서 슬라이드 케이스를 닫는 중이었다.

한시윤은 입을 열지 않았다.

'회귀 전, 나는 폐창고에서 죽었다.'

윤태건의 손이 문손잡이 위에서 멈춰 있는 동안, 한시윤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감각이 차갑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때 내 재킷 안쪽 솔기에도 같은 조합이 붙어 있었다. 해안성 쉬파리와 내륙 Calliphora. 같은 온도대에서 나올 수 없는 두 종이 같은 은닉 부위에. 피부를 벌린 방향도 같다. 왼쪽에서 오른쪽.'

서민아가 슬라이드 케이스를 내려놓았다. 소리가 나지 않게.

'지금 이 시신 7번의 표본과, 회귀 전 나를 죽인 현장의 흔적은 같은 손이다.'

한시윤의 시선은 표본에 박힌 채 움직이지 않았다. 체온이 실리지 않은 차가운 침묵이었다.

윤태건이 한 발 들어왔다.

"한 감정관. 아까부터 표정이……."

'내 죽음도 여기로 연결된다.'

한시윤은 굳게 다문 입술 너머로 그 확신을 삼켰다. 표본 봉투를 내려다보자, 비닐 표면에 나트륨등 빛이 주황색 선 하나로 떨어져 있었다.

봉투 안의 파편 두 점이 그 빛 아래서 윤곽만 보였다.한시윤은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번에는 내가 따라간다.'

한시윤이 내뿜는 무거운 침묵에 윤태건도 서민아도 선뜻 말을 잇지 못했다.

분석실 안의 형광등 하나가 안정기 노후로 0.5초 간격의 미세한 진동음을 내고 있었다. 그 소리만 남았다.

=====

### #30

시간축 패널 일곱 장을 순서대로 깔았다.

한시윤은 대기실 긴 테이블 위에 자료를 펼쳐놓고 한 장씩 위치를 바꾸고 있었다. 공식 브리핑 원고는 테이블 왼쪽 끝에 엮어두었다. 읽지 않았다. 읽을 필요가 없었다. 그 원고는 결론이 먼저 쓰이고 자료가 나중에 붙은 문서였다.

손가락이 세 번째 패널과 다섯 번째 패널 사이를 오갔다. 해안성 쉬파리 2령 사진, 냉장 흔적 비교 사진, 에어컨 타이머 기록 캡처. 세 장을 나란히 붙이면 한 줄이 되었다. 한 줄이면 충분했다.

문이 열렸다.

최문식이 들어왔다. 넥타이 매듭이 정확히 셔츠 첫 번째 단추 위에 걸려 있었고, 손에는 브리핑 원고 최종본이 들려 있었다. 그 뒤로 남필구가 반 발짝 늦게 따라왔다. 남필구는 한시윤 쪽을 보다가 테이블 위 배열을 보고 시선을 거뒀다.

"한 박사, 발표 순서는 재난본부 공식 정리, 국과수 보고, 자문관 코멘트 순서입니다. 자문관 코멘트는 삼십 초 이내로."

최문식의 목소리는 낮고 일정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쓸 자리가 아니라는 판단이 먼저 있는 사람이었다.

"원고에서 '사고 원인 미확정 상태'라는 표현 빼겠습니다.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

한시윤은 패널 배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빼도 됩니다."

최문식이 멈칫했다. 예상한 대답이 아니었을 것이다. 한시윤이 원고 수정에 반발하지 않는다는 건, 원고 자체를 쓸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다.

"한 박사, 흑시—"

"발표 때 공식 자료 그대로 씁니다. 한 글자도 안 바꿉니다. 배열만 바꾸겠습니다."

최문식의 손가락이 원고 모서리를 한 번 두드렸다. 남필구가 기침을 했다.

"배열이라니, 그게 무슨—"

"남 부장님, 시간 없습니다."

한시윤이 마지막 패널을 제자리에 놓았다. 일곱 장이 한 줄로 늘어섰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사고 경위였고, 한시윤이 재배열한 순서로 읽으면 사건 경위였다. 같은 자료, 다른 문장.

대기실 바깥 복도에서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벽을 타고 흘러왔다. 카메라 셔터 점검하는 딸깍 소리가 간헐적으로 섞였다.

장도혁이 뒷문으로 들어왔다. 재난본부 출입증이 목에 걸려 있었고, 한 손에 무대 동선표를 들고 있었다.

"자문관 발언 시간, 공식으로는 삼십 초입니다. 그런데 스크린 전환 권한은 무대 위 발표자 버튼에 있습니다."

한시윤이 장도혁을 봤다. 장도혁은 동선표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한시윤 쪽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마이크 잡으면 끊기 전까지는 발표자입니다. 기술적으로."

최문식이 장도혁을 봤다. 장도혁은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다.

'삼십 초면 된다. 첫 줄 띄우는 데 오 초, 나머지는 스크린이 말한다.'

---

브리핑장 조명이 켜졌다.

무대 정면 대형 스크린에 재난본부 로고가 떠 있었다. 객석 세 번째 줄까지 기자, 그 뒤로 감식관 몇 명과 형사들이 서 있었다. 윤태건은 오른쪽 벽 쪽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눈이 무대 위 마이크 위치를 재고 있었다.

재난본부 직원이 공식 발표를 시작했다. 버스 추락 사고 경위, 사망자 수, 수습 일정. 목소리는 안정적이었고, 원고를 정확히 읽었다. 이십 분.

국과수 보고가 이어졌다. 남필구가 단상에 섰다. 사인은 추락 충격에 의한 다발성 외상, 사망 시각은 추정 범위 안에서 통계적 유의미, 추가 검증은 진행 중이되 현 결론을 뒤집을 데이터는 없다.

서민아는 객석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다. 손에 자기 검증 메모를 들고 있었지만 펴지 않았다. 아직이었다.

"자문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삼십 초 이내로."

한시윤이 단상에 올랐다.

마이크를 잡았다. 스크린 전환 버튼을 눌렀다. 재난본부 로고가 사라지고, 한시윤이 대기실에서 배열한 시간축 패널 첫 장이 떴다.

해안성 쉬파리 2령 사진.

"시신 번호 3번, 7번, 15번 의류 섬유에서 동일 종이 검출됐습니다. 해안성 쉬파리 Sarcophaga 2령. 이 종의 서식 반경은 해안에서 내륙 쪽 최대 8킬로입니다."

스크린을 넘겼다. 사고 현장 지도 위에 반경이 그려져 있었다.

"추락 현장은 내륙 87킬로 지점입니다. 이 종이 현장에서 자연 발생할 물리적 조건이 없습니다."

기자 한 명이 앞줄에서 몸을 세웠다. 카메라 셔터가 연속으로 울렸다.

한시윤은 셔터 소리를 무시했다. 세 번째 패널로 넘겼다.

곤충 성장 단계 비교표. 두 시신에서 채취한 유충의 령 단계를 온도별 성장 속도 곡선 위에 찍어놓은 그래프.

"시신 번호 7번 기준, 현장 온도 19도에서 2령에 도달하려면 최소 84시간이 필요합니다. 공식 사망 추정 시각으로부터 역산하면, 사고 발생 시점보다 사흘 반 전에 이미 사망해 있어야 합니다."

객석 뒤쪽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났다.

네 번째 패널. 냉장 흔적 비교 사진. 피부 표면의 미세 결빙 패턴과 지방층 변색을 확대한 것이었다.

"시신 번호 3번과 7번 복부 지방층에 동일한 결빙-해동 흔적이 있습니다. 급속 냉장 후 상온 노출 시 나타나는 지방 변색 패턴이며, 국과수 공식 DB에 등록된 냉장 보관 시신 표본과 일치합니다."

남필구의 손이 무릎 위에서 짹 쥐어졌다. 한시윤은 보지 않았다.

다섯 번째 패널.

"에어컨 타이머 기록입니다. 사고 차량이 출발한 차고지, 시신 번호 3번 자택, 시신 번호 12번 직장 사무실. 세 곳 모두 공식 추정 사망 시각 기준 정확히 11분 전에 원격 가동 이력이 있습니다."

'11분. 세 곳 전부. 같은 습관이다.'

"온도 교란은 곤충 성장 속도를 왜곡합니다. 냉방 가동 시점을 기준으로 사망 시각을 재산출하면, 세 시신 모두 공식 기록보다 72시간에서 96시간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수정됩니다."

기자 두 명이 동시에 손을 들었다. 한시윤은 멈추지 않았다. 여섯 번째 패널을 띄웠다.

보고서 수정 전후 비교. 왼쪽에 초안, 오른쪽에 최종본. 시신 배치 사진 세 장이 초안에서 최종본으로 넘어가면서 촬영 각도가 바뀌어 있었다. 발목 부위 토양 흔적이 보이던 사진이 전신 원거리 샷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초안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 사이에 사진 세 장이 교체됐습니다. 교체된 사진은 전부 시신 하지부 근접 촬영분입니다. 토양 부착물과 곤충 채집 흔적이 보이는 사진만 빠졌습니다."

한시윤이 마지막 패널을 띄웠다.

일곱 장을 한 줄로 연결한 시간축. 해안성 곤충, 선사망, 냉장, 11분 시차, 사진 교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 하나.

"이 버스 추락은 재난이 아닙니다. 사전 살해 후 시신을 해안 경유로 이동, 냉장 보관, 현장 배치, 온도 조작으로 사망 시각을 위조하고, 보고서를 사후 조정한 위장 사건입니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셔터 소리도 멈췄다. 3초. 그 3초가 브리핑장 전체를 잡아먹었다.

서민아가 두 번째 줄에서 일어섰다. 손에 들고 있던 검증 메모를 폈다.

"국과수 법의학 소견으로 보충합니다. 시신 번호 3번, 7번 복부 지방층 결빙 패턴은 자연 부패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한 박사 쪽 분석이 조직학적으로 정합합니다."

남필구의 얼굴이 굳었다.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옆자리 감식관이 시선을 내렸다.

기자 한 명이 마이크를 들었다.

"지금 말씀은 공식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겁니까?"

한시윤이 스크린의 보고서 비교 화면을 가리켰다.

"공식 발표가 아니라 조정된 결론입니다. 사진 교체 이력과 시간축 불일치는 자료에 있습니다."

질문이 터졌다. 동시에 세 명이 말했다. 마이크를 든 손이 앞줄에서 흔들렸고, 뒷줄에서 속보 알림을 보내는 스마트폰 화면이 켜졌다.

"법곤충감정사라는 직책이 공식 발표를 뒤집을 권한이 있습니까—"

"재난본부 입장은—"

"보고서 수정 지시를 누가—"

윤태건이 벽에서 떨어져 나왔다. 무대 옆 통로를 지나 뒤쪽 출입구 쪽으로 움직였다. 재난본부 직원 하나가 뭐라 말했지만 윤태건은 출입구 옆에 서서 복도 양쪽을 확인했다. 자료가 나간 이상, 자료가 있는 곳을 먼저 지켜야 했다.

최문식은 객석 맨 뒤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앉은 채로 전화기를 꺼냈다. 화면을 두 번 터치했다. 얼굴에 아무것도 없었다.

'반박하지 않는다. 그게 더 무섭다.'

한시윤은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단상에서 내려오면서 장도혁과 눈이 마주쳤다. 장도혁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것으로 됐다.

---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한시윤은 표본 봉투가 든 가방 끈을 고쳐 잡았다. 윤태건이 옆에 서 있었다. 둘 다 말이 없었다.

엘리베이터 표시등이 B2를 찍었다. 문이 열렸다.

"한 감정관."

윤태건이 먼저 나서며 좌우를 훑었다. 형사의 습관이었다.

"내일부터 뭐가 옵니까?"

"모릅니다."

"근데 준비는 돼 있는 거죠?"

한시윤은 대답 대신 주차장 쪽으로 걸었다. 콘크리트 벽에 형광등이 한 칸 건너 하나씩 켜져 있었다. 발소리가 바닥을 쳤다.

'이겼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줄 하나를 세상에 꺼냈을 뿐이다. 줄 뒤에 뭐가 매달려 있는지는 아직 모른다.'

---

같은 시각. 지하 2층 반대편 동선.

검은색 세단 뒤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수행 직원이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화면에는 브리핑장 실시간 중계 캡처가 떠 있었다. 한시윤이 마지막 패널을 가리키는 순간이 스크린샷으로 잡혀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수행 직원이 받아 스피커로 돌렸다.

"봤습니다."

강준혁의 목소리였다. 낮고, 건조하고, 화가 나 있지 않았다. 계산하고 있었다.

"보고서 교체 건은 막을 수 있어. 법적으로 충분히 다투지. 문제는 11분이야."

수행 직원이 대답하지 않았다.

"11분은 습관이거든. 한 번 잡히면 전부 엮여. 그 감정사, 프로필 다시 올려."

태블릿 화면이 전환됐다. 한시윤의 사진이 떴다. 재난 현장에서 장갑을 끼고 표본을 들어올리는 측면 샷.

"최 변호사한테는 제가 넘기겠습니다. 법적 봉쇄 루트는 그쪽이 빠르니까."

잠깐 멈췄다.

"나머지는 다른 방식으로."

전화가 끊겼다.

수행 직원이 태블릿을 내렸다. 한시윤의 사진이 꺼지지 않은 채 화면에 남아 있었다. 엘리베이터 표시등이 B2에서 B3으로 바뀌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였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